

(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창립3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연미학과 환경사

미학지리의 프리즘을 통한
환경의 대안적 사유

- 일시 : 2018년 11월 10일(토) 09:4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호)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연미학과 환경사

- 미학지리의 프리즘을 통한 환경의 대안적 사유 -

· 일시 : 2018년 11월 10일(토) 09:4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호)

· 주최 :  사단
법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사단
법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프로그램

■ 등록 09:40-10:00

■ 1부 개회식 (10:00-11:35) 사회 김종근(학술부장, 동북아역사재단)

개 회 사 홍금수(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
환 영 사 박수진(서울대아시아연구소 소장)
축 사 이승호(대한지리학회 회장)
축 사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총장)
회 고 사 김일기(학회 선임고문)

기조강연 이태진(대한민국학술원), 역사와 환경 - '소빙기' 연구의 경험 - / 03

■ 2부 자연미학 주제발표 (13:00-14:45) 사회 전종한(부회장, 경인교육대학교)

13:05-13:30 김덕현(경상대학교), 유학의 자연미와 조선 서원의 전망 경관 / 18

13:30-13:55 성종상(서울대학교), 조선 사대부 원림 미학 / 45

13:55-14:20 최원석(경상대학교), 선불교와 산수, 그리고 풍수 / 67

14:20-14:45 진종헌(공주대학교), 1970년대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75

■ 3부 환경사 주제발표 (14:55-16:40) 사회 정치영(부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5:00-15:25 남옥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류가 만드는 인류세 / 86

15:25-15:50 공우석(경희대학교), 소나무를 보는 지리적인 눈 / 98

15:50-16:15 천명선(서울대학교), 일제강점기 가축 질병의 분포와 확산 / 112

16:15-16:40 박혜정(경기대학교), 도시, 자연, 환경 / 128

■ 4부 종합토론 (16:50-17:50) 좌장 이정만(고문, 서울대학교)

송원섭(제주학연구센터), 심승희(청주교육대학교)
박수진(서울대학교), 박정재(서울대학교), 황진태(서울대학교), 정현주(서울대학교)

기조강연

사회 김종근(학술부장,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와 환경 - '소빙기' 연구의 경험 -
이태진(대한민국학술원)

역사와 환경

- '소빙기' 연구의 경험 -

이태진(대한민국학술원)

1. 기조 발표에 임하면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초청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학회가 다른 전공 분야에 관심을 두는 예가 많지 않은데 학회 이름에 3개 분야를 표방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는 예외인 것 같다. 홍금수 회장께서 연초에 나에게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말하면서 2012년에 출간된 저서 『새 한국사』가 ‘환경 문제’를 담은 역사서로서 기념 학술회의의 취지에 부합하여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책은 ‘새로운’ 한국사를 목표로 특별한 노력을 쏟아 세상에 내놓은 것이지만 출판사 사장이 크게 실망할 정도로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인데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가 특별한 관심을 표해 주어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임하였다.

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빙기(little ice age)’ 연구를 시작하였고, 2000년 전후 『새 한국사』를 집필하면서 그때까지 얻은 연구성과를 줄거리로 삼아 새로운 통사를 내놓아 보려고 하였다. 이 책은 “선사시대에서 조선후기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듯이 근, 현대사를 포함하지 못하여 온전한 통사가 못 되는 약점도 있다. 나는 1990년대 초반에 규장각도서 관리 책임자로서 고종 시대의 공문서를 정리하는 사업을 주관하다가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황제(순종)의 冕名을 위조한 문건 60여 점을 발견하여 연구 분야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소빙기’ 연구가 뒤로 밀렸다. 1990년대에는 두 가지 연구를 병행하였지만 2012년 『새 한국사』를 낸 뒤, 특히 2010년 한국병합 강제 100년을 기하여 ‘한, 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2015년까지 이를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팀에 속하여 ‘소빙기’ 연구는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하였다. 이 기조 발표가 이 분야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2. ‘소빙기’ 연구의 배경

나의 ‘소빙기’ 연구는 당초 ‘역사와 환경’의 문제를 의식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1960년대에 조선 시대, 정확히 말하면 조선 초기의 역사 연구로 역사학도의 길에 들어섰다. 역사 공부의 거대한 사료의 세계를 상대하는 학문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처럼 문헌학의 기반이 열약한 풍토에서 ‘거대한 사료’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학부 과정에 ‘史籍解題’란 과목이 있지만, 이는 주요한 사서에 대한 해설일 뿐 진정한 문헌학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 문헌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960대 초 서울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님들은 졸업 논문 쓰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였다. 잘못 된 지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여건에서는 교수님들도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 같다. 국사연구실이란 공간은 경성제국대학 시기에 출간된 일본어로 된 전공 서적들과 논문집으

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었다. 한국어로 된 책은 한쪽 구석을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지 않았다. 일본어이든 한국어이든 간에 역사 공부 초보자에게 안내 역할이 될 만한 책은 하나도 없었다. 몇 편의 논문을 읽고 주제를 잡아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 실정이었다.

졸업 논문 쓰기에 대한 부담은 다행히 나에게 국사연구실 조기 출입을 가져왔고, 이 연구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조선왕조실록』(경성제국대학 출판 영인본)이 해결사 노릇을 해주었다. 조선 시대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니 조선 초기의 어떤 제도를 논문 주제로 잡아 태조에서 성종까지의 실록을 읽으면서 관련 자료를 뽑아 정리하면 최소한 논문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예를 여럿 보았다. 나도 그렇게 따라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학부 졸업 논문은 “서얼 차대고 - 첩자 「한품서용」제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라는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양반의 자제 가운데 첩의 자식은 서얼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재주가 있어도 관로 진출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나의 논문은 이 관습이 생긴 경위를 밝히는 것으로서, 조선 초기에는 첩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관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잡직에 기용되었다는 것. 당시 양반 사대부의 첩 가운데는 노비 출신이 많아서 천시의 관념이 생겼다는 것 등을 밝힌 내용이었다.

여기서 대학 졸업 논문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것은 한국학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지금이라도 문헌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학 초년생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학문 세계에 대한 푸른 꿈을 꾸면서 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명저란 것을 찾아 읽었다. 당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의 대표 저서가 된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는 1934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27년만인 1961에 12책을 내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한 해가 곧 이 대작이 완성된 해였고, 한국에도 축쇄판 번역본이 나와 있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 번역본을 읽었지만, 대학 초년생인 나에게는 큰 흥미를 자아내지 못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세계 문명 19개에 대한 저술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문헌학의 덕분이었다.

1919년에 벨기에의 역사학자 앙리 피렌느(Henri Pirenne)가 창도하여 국제학술원연합(Union Academique Internationale)이란 기구 출범하였다. 이 기구는 ‘지원 과제(partronage project)’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럽과 근동지역의 문명에 관한 기초자료 편찬사업을 각국 학술원 단위로 모집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시작한 사업 가운데는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대형 과제가 많았다. 인문학자들은 발칸 반도에서 과열된 민족적, 종족적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한 것을 보고 문명 간의 이해, 공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정리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자신의 대저를 기획한 1934년은 곧 이 프로젝트 가운데 몇 가지가 출판 성과를 본격적으로 낸 시점이었다. 유럽, 미국의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 각 분야는 이런 문헌학적 기반 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학 지망 초년병의 머릿속으로 국가, 사회 등의 거창한 단어들이 들락거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구체성이 있는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둔재인 내가 그나마 구체성이 있는 주제를 잡아 논문 쓰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헌학적 기능 덕분이었다고 회고된다. 실록은 당대의 수많은 관련 문서와 기록들을 정리해서 편찬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문헌학의 기초 요건을 갖춘 편찬물이다. 이를 사료로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문헌학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한국학이 크게 도약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학부 졸업 논문은 지도교수님의 칭찬을 받고 역사 관련 학술지로서는 당대 최고였다고

할 『역사학보』에 바로 실렸다. 이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우리나라 역사학이 얼마나 취약했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졸업 논문 덕분에 나는 대학원생으로서 『한국군제사 -조선 전기편-』 편찬에 집필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문 쓰기를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좀체로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학부 졸업 후 7~8년 만인 1972, 73년에 「士林派의 留鄕所 복립 운동 -조선 초기 性理學 정착의 사회적 배경-」(상, 하)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나로서는 고민 끝에 낸 ‘회심의 역작’이었다. 자화자찬을 이렇게 늘어놓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

1960~70년대 한국사의 이해, 인식에는 이른바 일제 식민주의 사관의 영향으로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나의 반세기에 걸친 한국사 연구 생활은 이의 극복을 위한 씨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작년(2017) 11월 ‘한·일 역사가 회의’의 전야제 행사인 “역사가의 탄생”에서 한국측 발표자가 되어 「식민주의 역사관, 그 통설 통론에 대한 도전」이란 제목으로 나의 역사학 연구 생활을 회고하였다. 한국사에 대한 일제 식민주의의 부정적인 인식의 극복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였다. ‘유향소 복립운동’은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일제 식민주의의 부정적 역사 인식과의 씨름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나의 연구는 조선 시대 성리학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었다. 고려 말부터 수용된 신유학 곧 성리학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백성의 생활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새롭게 입증하는 작업이었다. 왕정은 신유학의 “生生之德”의 철학에 따라 백성의 의식주 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세종대의 『농사직설』 『향약집성방』이 대변하듯이 나라의 근본인 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수행으로 농업기술의 발달, 인구의 증가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사족들도 지식인으로서 향촌 사회의 농업경제 발달에 이바지한 것 등을 밝혔다. 고려 시대의 휴한농법이 연작 상경농법으로 바뀌면서 농경 지대가 微高地에서 저평지로 이동하는 농촌풍경의 변화도 그려 보았다. 지방 거주 士族들의 농업경제 기반의 발달로 그들이 鄕約 보급운동, 서원 건립운동으로 향촌사회가 유교식으로 재편되어 가면서 학파를 중심으로 한 정파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문제는 조선 중기였다. 16세기 초중반의 잇따른 士禍는 중앙집권체제 속에 소수의 폐쇄적 권력 집단이 된 勳舊, 척신 세력, 이에 대한 각지 향촌 사회의 여론 주도층인 사족 집단 곧 士林의 성리학적 公道를 앞세운 비판 활동 양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난 정치 현상으로 긍정적 평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명종대(1545~1567) 이후의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 왜란 호란 등의 큰 규모의 외침에 대한 열등한 대응 등은 어느 모로나 긍정적 설명이 불가능하였다. 이 대목은 곧 일제 식민주의의 유교 망국론의 핵심 근거가 되어온 것이기도 하였다. 16~17세기의 조선 역사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사대부들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장면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나의 ‘소빙기’ 연구는 바로 이를 해결하려는 문제의식 아래 시작되었다.

3. 17세기 총체적 위기설, 외계 충격설 등과의 만남

1970년대에 구미 학계에 ‘17세기 총체적 위기론(Theory of General Crisis of Seventeenth Century)’이 대두하였다. 1600년대에 유럽은 30년 전쟁을 비롯한 전쟁, 폭동, 기근, 전염병 등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학계의 지배적 해석은 봉건제(feudalism)가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군의 역사학자들은 같은 현상이 봉건제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일어난 사실을 주목하여 지리학에서 밝힌 17세기 기후변동 문제로서 ‘소빙기’(little ic age) 현상을 주목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국내 서양 사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나는 1990년대 초에서 17세기 위기론의 대표 주자인 지오프리 파커(Geoffrey Parker), 스미스 두 교수의 저서 『17세기의 총체적 위기(General Crisis of Seventeenth Century)』에 직접 접했다. 나는 1985-86년 1년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다녀온 뒤 16세기 사회 경제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17세기 총체적 위기설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 시간에 이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읽기 시작하였다. 이 학설은 1600년부터 약 80년간 장기적으로 기온이 내려가 포도 수확을 비롯해 농산물 생산의 감소로 기근이 자주 들면서 사회적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기온 강하의 원인으로는 미국 콜로라도 천문대의 대장인 존 에디(John Eddy)의 태양의 흑점 활동 쇠퇴에 관한 논문이 실려 있었다. 이 책의 편자들은 기온 강하의 원인을 천문학계의 학설을 빌려 ‘소빙기’ 현상의 원인을 알려고 하였다.

나는 이 17세기 위기설에 접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떠 올렸다.¹⁾ 평소애 실록을 이용하면서 자연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여 17세기에 이처럼 심각한 자연 이상 현상이 장기적으로 일어났다면 실록이 이를 확인시켜 줄 것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17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인조실록』부터 펼쳤는데, 인조 재위 초반의 몇 해 기사를 통해 기온 강하와 관련되는 기록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봄철인데도 계곡의 물이 얼어붙었다든가, 이른 여름인데도 눈 또는 서리가 내렸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의 눈길은 자연히 앞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확인 작업은 위로는 『태조실록』, 아래로는 『철종실록』까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발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작업 초반, 『선조실록』을 넘길 즈음, 추위와는 무관하게 하늘에서 별이 무수히 떨어지는 상황에 접하였다. 流星 출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붉은 기운(赤氣), 검은 기운(黑氣), 흰 기운(白氣)이 나타났던가, 金星(태백성)이 대낮 하늘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천문 이상 관계 기록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문학에 지식이 없기도 하지만 추위와는 무관한 이런 현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교내에서 몇 학과 교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천체 물리학 전공의 蘇光燮 교수를 만났다. 혹시 이 분이라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성 얘기를 꺼냈다. 아니나 다를까 소 교수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매우 재미있는 얘기라면서 나에게 천체 물리학 분야의 한 논문을 소개해 주었다. 1980년에 저명한 과학 학술지 『Science』에 실린 루이스 알바레즈(Luis W. Alvarez) 교수 연구팀의 “중생대 말 백악기 3기의 멸종의 외계

1) 필자는 ‘소빙기’ 연구의 경위에 대해 『역사학보』 149호(1996) <說林>에 「소빙기 천변재이 연구와 『조선왕조실록』 -global history의 한 章-」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지오프리 파커 교수와 만남에 대한 기술이 있다. 1985~86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방문 교수를 마친 후, 이 대학교의 게리 레디아드 교수 추천으로 1987년 1월 하와이 주의 카우아이 섬에서 열린 “International history of East Asia 1500-1750”[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널드 토비(Ronald Toby), 호바트·윌리엄 스미스 대학의 윌리엄스 에트웰(Williams Atwell) 공동기획]에 참가하였다. 17세기 유럽사 전공자인 파커 교수는 토비 교수와 같은 학교의 동료로서 지정 토론자 참석하였다. 나는 아직 ‘소빙기’ 연구에 착수하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가 바로 17세기 위기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 *The General Crisis of Seventeenth Century*의 편저자라는 것을 몰랐다. 위 글에 이때 내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말한 것에 대해 그가 큰 관심을 표한 것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내가 “후금이 남하하여 호란이 두 차례나 일어난 뒤 만주 일대가 조선 상인들의 새로운 활동무대가 된 사실과 관련하여 후금의 남하 자체가 ‘소빙기’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커피 브레이크 중에 그(파커교수)가 나에게로 다가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의 영어로 천천히 이런 부탁을 했다. 조금 전에 조선왕조실록에 소빙기 현상과 관련되는 기록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자료 조사나 논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에게 꼭 연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204페이지) 그는 1997년에 낸 위 책의 개정판의 서문에서 나의 실록 기록 분석 결과, 곧 대량의 유성(소행성) 대기권 돌입설을 소개하면서 육안으로 서울 상공에서 관찰된 유성의 수를 밝혔다.

원인”이란 논문이었다.²⁾ 나는 얼른 중앙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이 논문을 찾았다. 이 논문이 실록의 자연 이상 기록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논문은 공룡 소멸설로 더 유명해졌지만, 학술적으로는 외계 충격설(Theory of the Terrestrial Impact)이란 신 학설을 제시하여 우주 과학의 새 장을 열었다. 이 외계충격설의 요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1)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바위들(boulders)이 떠도는 소행성 벨트(asteroid belt)가 있다.
- 2) 소행성 벨트의 바위, 돌들은 태양의 중력에 끌려 타원형 궤도로 돌다가 지구의 원형 궤도와 만나면 지구의 중력에 끌려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 돌입을 외계 충격이라고 한다. 소행성의 지구 돌입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때를 지어 들어 올 수도 있다.
- 3) 소행성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순간부터 그 물체에 대한 호칭은 流星(meteor)으로 바뀐다.

루이스 알바레스 팀의 연구는 길이 10km 크기의 초대형 유성이 중생대 말기에 지구 대기권으로 돌입하여 지구를 쳐서 공룡이 주인이던 당시의 지구의 생태계가 절멸(extinction)하고 신생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충격’ 이후의 연관 현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었다.

- 1) 충격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화풍(fire blast)이 지구 전체를 몇 바퀴 돌면서 지구 대기권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는 한편, 충돌 시에 발생한 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다.
- 2) 하늘을 덮은 먼지는 대기권을 초대형의 온실로 바꾸어 놓은 한편, 태양의 열과 빛을 차단한 상태는 열기를 서서히 식히어 그 많은 열기는 비로 변하여 대홍수(deluge)가 일어난다.
- 3) 장기간의 강우 후에도 성층권을 가린 미세 먼지(cosmic dust)는 여전히 태양의 열과 빛을 차단하여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추위가 닥쳐 ‘우주 겨울(cosmic winter)’ 상태에서 대부분의 동식물이 멸절하게 된다. 중생대 백악기의 지구의 주인이던 초식동물 공룡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하였다.

루이스 알바레스 팀의 외계 충격설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의 많은 자연 이상 현상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의 돌들이 때를 지어 지구 대기권에 유성으로 돌입하면서 그것들이 폭발하면서 생긴 여러 연관 현상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³⁾ 나는 이런 이해체계 아래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태조부터 철종까지 471년간의 자연 이상 관련 기록 25,670건을 얻었다.⁴⁾ 이를 50년 단위로 나뉘어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표를 통해 1500년부터 1750년까지가 자연 이상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란 것

2) Luis W. Alvarez, Walter Alvarez, Frank Asaro and Helen V. Michel, 1980, “Extraterrestrial Cause for the Cretaceous-Tertiary Extinction - Experimental result and theoretical interpretation,” *Science* 208(4448).

3) 2000년대에 들어와 우주 과학계는 소행성 벨트에 최대 2억 개의 바위들이 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도 현재의 과학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의 관찰 결과라고 한다(Giles Sparrow, 2006, *The Planets - A Journey through the Solar System*-, Quercus, p.132).

4) 김호(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현상별 그래프를 작성해 주었다.

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성이 과연 외계 충격설이 주장하듯이 이 장기재난의 원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성 출현에 관한 기록들의 분포도를 작성해 보았다(그림 1). 이 분포도는 다량의 유성이 1490년 무렵부터 1760년 무렵까지 끊이지 돌입한 상황을 보여주어 이것이 바로 이상 현상의 원인이란 것을 보여주어 ‘소빙기’ 현상도 외계충격 현상의 하나란 판단을 내리게 해주었다. 유성 출현 외의 다른 이상 현상에 관한 기록들을 현상별로 묶어 본 결과 27개의 연관 현상들이 파악되었다(표 2).

표 1. 조선왕조실록의 자연 이상 기록의 50년 단위 배열

Period	Corresponding Years	Total Number
Period 1	1392-1450	2117
Period 2	1451-1500	1420
Period 3	1501-1550	6109
Period 4	1551-1600	4785
Period 5	1601-1650	3300
Period 6	1651-1700	3563
Period 7	1701-1750	2716
Period 8	1751-1800	936
Period 9	1801-1863	724
Total		25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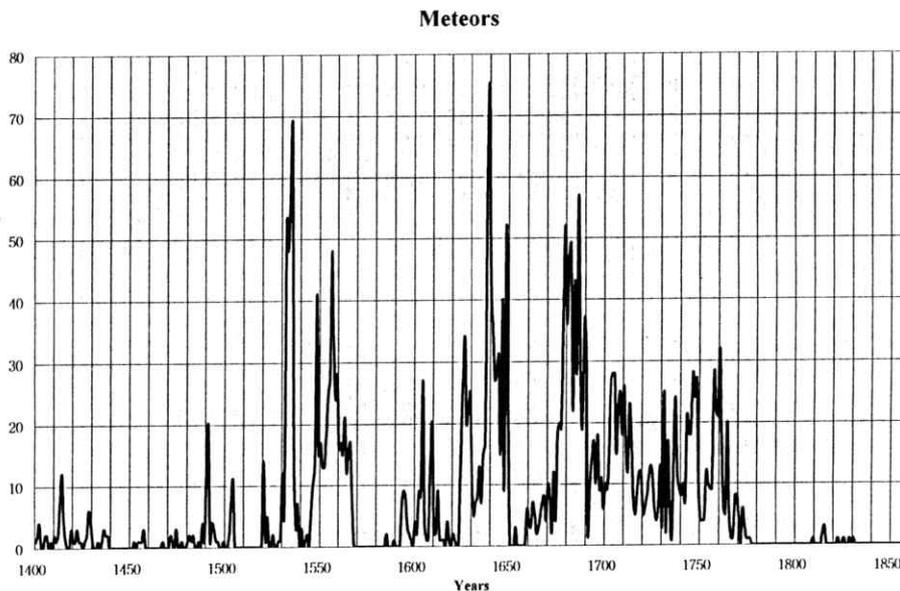


그림 1. 조선왕조실록의 유성 출현 기록의 분포

표 9. 조선왕조실록의 자연 이상 현상 기록의 현상별, 시기별 분포

Phenomena	P1	P2	P3	P4	P5	P6	P7	P8	P9	Total
Meteors	103	69	422	387	766	740	695	239	10	3431
Colored vapors	48	9	333	325	211	61	61	3	1	1052
Strange sounds	0	0	4	4	2	0	0	0	0	10
Comets	21*	198	221	102	37	102	84	75	374	1214
	(5)	(8)	(6)	(8)	(4)	(8)	(5)	(3)	(14)	(61)
“Guest stars”	0*	0	0	127	102	0	14	22	0	265
or New stars	(0)	(0)	(0)	(3)	(1)	(0)	(3)	(2)	(0)	(9)
Abnormal sun	6	0	16	27	23	9	13	2	0	96
Abnormal moon	0	0	1	10	6	1	0	2	0	20
Halo effect, sun	424	352	1662	1378	266	121	239	44	1	4487
Halo effect, moon	27	16	145	557	78	116	176	27	0	1142
Venus in daytime	252	339	1186	397	829	1141	388	116	239	4887
Thunders, lightning	264	108	547	456	209	250	282	211	43	2370
Hail	177	68	578	260	223	295	262	108	35	2006
Frost	107	11	145	38	84	121	81	17	1	605
Unseasonal snow	37	3	70	32	35	117	65	18	0	377
Heavy rain	63	1	38	13	5	22	21	17	7	187
Frightful rainstorms	149	112	59	34	134	89	47	7	2	633
Violent windstorms	46	4	61	28	30	42	16	3	2	232
Heavy snow	2	7	7	0	2	14	4	0	0	36
Colored snow, rain	14	8	29	18	8	11	1	1	0	90
Dust storms (Micrometeorites)	0	0	1	2	7	19	0	0	0	29
Daytime darkness	0	0	1	0	14	24	13	2	0	54
Fog	144	20	45	280	91	22	48	1	0	651
Earthquakes	183	78	482	287	110	185	157	13	5	1500
Tidal waves	4	1	7	5	14	33	38	7	3	112
Water color changes	14	0	1	0	1	12	5	0	0	33
Unusually low temperature	8	1	28	3	11	9	4	0	0	64
Unusually high temperature	24	15	20	15	2	7	2	1	1	87
Total	2117	1420	6109	4785	3300	3563	2716	936	724	25670

*The first number is the number of recorded observation. Inside parenthesis is the number of actual comets or guest stars.

주요 연관 현상들을 상공, 대기권, 지상 세 구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공: 유성, 혜성, 객성(guest star), 有色天氣(적기, 흑기, 백기), 금성(태백성) 낮 출현, 해와 달의 이상(보라색 해, 붉은 색 달), 겹 해무리와 달무리, ...

대기권: 겨울철 천둥 번개, 우박, 서리, 때 아닌 눈, 폭우, 폭설, 장기 강우 및 강설, 유색 비 및 눈, 먼지 폭풍(dust storm), 유사 안개로 인한 대낮 어둠, 안개 및 유사안개 ...

지상: 지진, 해일, 바다 물의 변색, 이상 저온, 이상 고온, 극심한 흉작, 처음 보는 농작물 해충, 기근, 전염병, 대규모의 사망.

상공에는 유성 외에 혜성, 객성(Super Nova)이 출현한 기록도 있지만, 이는 소수로서 별도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한다. 소행성은 대기권에 돌입하면 유성으로서 크기와 관계없이 마찰로 폭발하여 ‘우주 먼지’를 일으킨다. 소형 유성은 초대형과는 달리 떼를 지어, 때로는 ‘우주 먼지’에 싸여 들어 올 수도 있다. 서울 소재의 관상감에서 육안으로 관측한 위 기간의 유성의 수는 3,249개였다(표 2. pp.3-8의 합계). 그것들이 대기권 마찰과 동시에 발생한 ‘먼지’가 심각한 자연재난으로 이어졌다. 어둠, 안개 같은 먼지에 관한 일련의 기록에 따르면, 1611년(광

해군 3) 3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서울 지역은 안개 같은 먼지에 싸여 앞을 볼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었다. 유성 떼를 싸고 들어오는 '우주 먼지'가 서울 일대를 휩쓸 재난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주 먼지의 누적은 태양의 열과 빛의 차단 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해와 달이 붉게 또는 보랏빛으로 변했다던가, 금성(태백성)이 낮에 중천에 나타났던가, 낮이 밤처럼 어두워졌다고 한 것은 모두 '우주 먼지'로 연출된 이상 현상으로 간주 된다. 장기간 빛과 열이 차단 되면 기온 강하가 초래되고, 상공에도 장기간 추운 상태가 이어지면 수분이 수많은 얼음 결정체가 빛이 이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광학적 현상으로 햇무리, 달무리, 그것도 겹겹의 무리를 현출시켰다. 잦은 무리 현상은 하늘에 대한 신앙과 관련하여 많은 공포심을 자아내기 마련이었다. 대기권의 장기적인 이상은 氣圈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지역적으로 폭설, 폭우가 빈발하는 재난으로 이어졌다. 기상, 기후의 잦은 이상은 흉작과 기근을 초래하고 동시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대규모의 사망을 초래하는 참상이 지상에 이어졌다.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이 폄하한 조선 중기의 참상은 人災라기보다 天災의 소치였다.

실록 자료의 조사 결과는 '소빙기'의 존속 기간을 새롭게 파악하는 주요한 성과를 동반하였다. 구미 학계의 '17세기 위기설'은 1600년대의 70~80년 정도를 해당 기간으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실록 자료는 1490년부터 1760년까지 약 260년간 '소빙기' 현상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소빙기' 기간의 확장은 지금까지 전혀 자연 이상과 연관 지우지 않았던 16세기의 주요한 역사상, 예컨대 유럽에서의 종교전쟁과 종교개혁, 마녀사냥, 한국사에서의 성리학의 心學 경도, 예학의 강조, 그리고 사화와 당쟁의 격심한 정쟁, 동아시아 전반의 전란 상황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⁵⁾

4. 국제학술회의 참가 발표와 독일 전단 그림 자료(Flugblatt)

1995년 8월 27일부터 1주일간 제18회 국제역사학대회(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ical Sciences)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국제역사인구학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Historical Demography)가 특별 세션으로 '대규모의 죽음들(Great Killers):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을 기획하여 나에게도 발표 요청이 왔다. 이 무렵 나의 실록 기록의 수집과 분석이 거의 다 이루어져 "소빙기(약 1500~1750)의 천체현상적 원인-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분석-(Astronomical Causes for the Little Ice Age[1500-1750]: An Analysis of the Annals of the Dynasty of Choson Korea)"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신청하였다. 발표는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근 500년에 달하는 기간의 자연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그 자리는 역사학자들의 모임이었으므로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우주 과학자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싶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던가 2년 뒤 그 기회가 찾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순서상 몬트리올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 한두 가지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그 무렵, 서울시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서울역사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를 신설하고 이 연구소에 박물관의 전시계획 수립과제를 부여했다. 나는 전시기획위원의 자격으로 몬트리올 국제역사학대회에 가는 길에 캐나다의 몇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오타와에 소재한 캐나다 국립과학기술박물관(National Museum of

5) 이에 대해서는 한 차례 나의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이태진, 1999, "외계충격 대재난설(Neo Catastrophism)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해석," 역사학보 164).

Science & Technology)이 마지막 방문지였다. 여기서 나는 매우 중요한 ‘소빙기’ 관련 자료를 만났다. 이 박물관의 ‘오로라’ 전시실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두 개의 그림 자료의 사진이 벽에 전시되어 있었다(그림 2). 이 그림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다. 그림에 묘사된 광경이 바로 실록에서 읽은 유성의 폭발 또는 그 영향으로 생긴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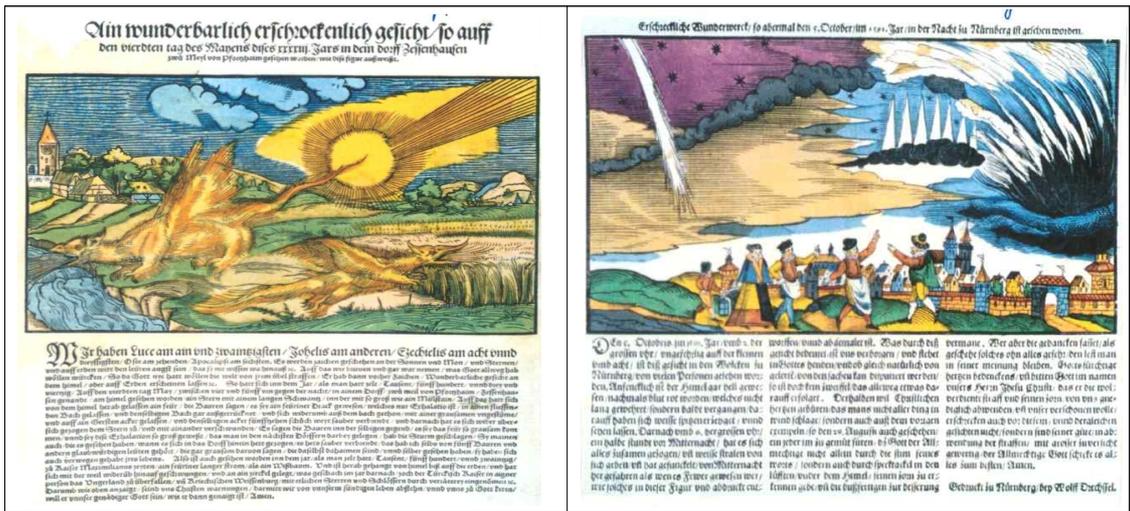


그림 2. 캐나다 국립과학기술박물관의 오로라 이미지

그런데 두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오로라 현상에 관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 (가) 1570년에 보헤미아 지방에 나타난 현란한 오로라를 보고 한 미술가가 이를 우주 촛불로 묘사하였다. (A dazzling aurora seen from Bohemia in 1570 inspired an artist to depict it as a display of cosmic candle fire)
- (나) 1594년 독일 뉴런버그 상공에 나타난 불은 오로라의 장관이었다. (Heavenly fire over Nurenberg, Germany, in 1594 was a spectacular aurora)

나는 이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확신 아래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에게 두 그림의 출처를 물었다. 미국의 지리학자 로버트 이더(Robert Eather) 박사의 *Majestic Lights* (1980)에 실린 것이라는 답이 왔다. 나는 이 책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일란 헤즈마넥(Milan Hetzmaneck) 박사에게 부탁해서 복사본을 전해 받았다. 이 책이 나온 해는 공교롭게 루이스 알바레스 팀의 ‘외계 충격설’이 발표된 해로서 지리학자인 이 책의 저자가 이 그림이 소행성(유성)의 대기권 돌입, 폭발과 관련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관심사인 오로라 현상으로 간주했다. 이 책은 이런 착오의 산물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충실한 참고문헌(bibliography)을 제공하여 나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림 자료들이 독일에서 제작된 ‘전단(Flugblatt)’이란 것과 함께 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유럽, 미국의 도서관, 박물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1997년 1월 말 안식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 ‘전단’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

교를 거쳐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두 대학도서관을 거쳐 독일의 뉴렌버그의 독일민족역사박물관(German National Museum)을 찾았다. 2주가 넘는 기간의 여행이었다. 뉴렌버그의 박물관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여행에 앞서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에게 소장 자료의 양을 물었더니 “a large number”란 표현의 답이 와서 가장 큰 기대를 걸었다. 나는 이 회답을 받고 2,30점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현지에 도착하니 무려 100점에 달하는 자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대부분이 실록에 글로 묘사된 광경들이었다. 뉴렌버그에서의 조사는 에어랑겐-뉴렌버그 대학교에 유학 와 있던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이창우씨(현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귀국 후 한 달여 만에 슬라이드 복사물을 받았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전단’ 자료는 모두 15세기 무렵부터 쓰기 시작한 고 독일어로 되어있어 해독이 큰 문제였다. 수소문 끝에 관악 캠퍼스에 괴팅겐대학교에서 북동아시아 유목민족(여진)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요하네스 렉켈(Johannes Reckel) 씨가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문장들을 영어로 번역해 주는 일을 기꺼이 수락해 주었다. 영어 번역문으로 내용 파악을 한 끝에 94점이 유용한 자료로 선별되었고 그 제작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모두가 실록으로 파악된 소빙기 기간(1490~1760) 안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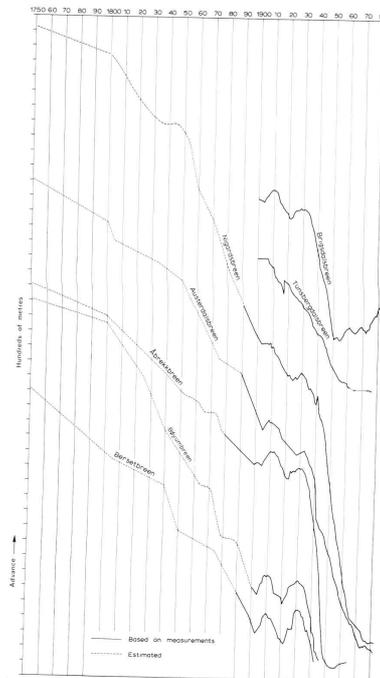


Figure 3.9 Retreat of Jostedalbreen tongues from 1750 to 1980, based on Fægri (1933), Liestøl (1963), Kasser (1967 and 1973), Müller (1977) and Liestøl (1976, 1977a, b, 1978, 1979, 1980, 1982a, b)

그림 3. 그로브 교수 추정 노르웨이 빙하 혀가 산 위로 올라간 시기

영국 방문 중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지리학과 도서관에서도 소득이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김종일(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안내로 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Meteorite*란 저널을 조사하여 필요한 글 몇 편을 얻었다. 그 가운데 로버트 이더 박사의 <Majestic Lights>에 대한 서평이 있었다. 평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로라의 광선은 어느 경우나 아래서 위로 향하는데 이 책에 제시한 그림 자료들의 빛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아서 오로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자료실에서 이 학과의 진 그로브(Jean Grove) 교수의 저서 *Little Ice Age* (1988)를 알게 되어 서점에서 바로 구입하였다. 이 책은 노르웨이의 한 빙하의 혀(tongue)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 것에 관한 역대의 자료들과 함께 최근 여러 해 동안의 관찰을 합하여 분석한 내용이었다. 놀랍게도 기온 상승으로 빙하의 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1750년으로 잡혀 있었다. 실록 자료에 소빙기의 근본 원인인 유성의 출현 기록이 씻은 듯이 없어지는 시점이 바로 1760년이었는데 그로브 교수의 연구 결과가 바로 이것과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로써 ‘소빙기’ 현상은 1760년에 원인이 소멸하며 이후의 재해는 잔존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그림 3).

1997년 상반기에 나는 유럽의 관련 자료를 얻고 또 관련 연구 성과에 접하여 매우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 지구 근접물체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과 만나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해 봄에 한일 관계의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갔을 때 숙소 근처 서점에서 『우주로부터의 위기』(1994)란 책을 보게 되었다. 저자는 교토대학 공과대학 야부시타 신(藪下信) 교수, 천체 수학의 관점에서 소행성의 지구 돌입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서 고대의 유성 낙하에 관한 역사 얘기도 곁들였다. 당시에는 소행성 관계 서적이 드물어서 반가운 마음에서 귀국 후 몬트리올에서 발표했던 논문(영역)을 보냈다. 야부시타 교수는 바로 일본에서 구미의 우주 과학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 근접물체(Near Earth Objects)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너무 반가워 꼭 참가하겠다고 답하였다. 1997년 8월 14~18일 히코네(彦根) 시의 다이닉 에스트로팩 ‘덴큐칸(天球館)’에서 “혜성, 소행성의 역학과 지구 역사에서의 역할(Dynamics of Comets and Asteroids and Their Role in Earth History)”이란 주제의 학회가 열렸다. 바라던 우주 과학자들과 만날 기회가 이렇게 빨리 찾아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독일 그림 자료까지 확보한 뒤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은 같은 해 8월 말에 후쿠오카에서 세계 천문학자 대회가 열리기 전에 분과 회의처럼 지구 근접물체 전공자들만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미국, 유럽의 학자들 외에 일본 연구자들도 다수가 참여하였다. 나는 몬트리올 회의의 원고를 다듬고 사이사이 독일 그림 자료를 곁들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마쳤다. 발표 후 점심 때, 참가자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영국 북아일랜드의 아마 천문대(Armagh Observatory)의 마크 베일리(Mark E. Bailey)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다. 지난 7월 11~13일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피츠 윌리엄 칼리지(College of Fitzwilliam)에서 ‘학제 간 연구회(Society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⁶⁾의 제2회 케임브리지 대회가 “청동기시대의 대자연재난(Natural Catastrophe During Bronze Age Civilization)”이란 주제로 열리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3명의 기획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회의의 개요를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마침 그 원고(Introduction)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자신들은 자연 과학자들이지만 외계충격 현상이 인류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대회의 주제를 ‘청동기 문화시대(3000~1000 BC)의 대재난’을 주제로 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었는데, 오늘 내 발표는 같은 성격의 자연 이상 현상을 담은 기록을 분석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해 주었다. ‘학제간

6) 1975년 영국 런던에서 이마뉴엘 벨리코프스키(Immanuel Velikovsky, 1895~1979)이 주도하여 창설되었다. <http://www.knowledge.co.uk/sis/>

연구회’는 기록이 없는 것을 “고고학적, 지리학적, 천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관점 (Archeological, geological, astronom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에 이상 현상을 담은 기록이 있다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그의 소감 피력이 끝난 뒤에 나는 내가 전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문제로서, 유성 낙하와 관련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부대 현상들에 대한 나의 정리가 과학적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것을 ‘연관 현상 (associate phenomena)’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회의가 끝날 때 야부시다 신 교수와 함께 이 회의의 공동 기획자인 헨라드(J. Henrad) 교수는 나에게 발표문을 마무리 지워 곧 보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는 네델란드에서 발행되는 천문학 잡지(Celestial Mechanics and Dynamical Astronom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pace Dynamics)의 수석 편집인이었다. 나의 발표문 “Meteor Fallings and Other Natural Phenomena Between 1500-1750 a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Korea)”는 이 잡지의 제69호에 바로 실렸다.(1988, Kluwer Academic Publishers) 나의 실록 자료 정리는 이로써 지구 근접물체에 대한 핵심 전공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 되었다.

5. 마무리: 인류 역사와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발전에 대한 기대

마크 베일리 아마 천문대장을 통해 알게 된 ‘학제 간 연구회(SIS)’의 ‘청동기문화 시대의 대자연재난’에 관한 연구 성과는 내가 이후 ‘소빙기’ 자연재해가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 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 18편은 이듬해 학술회의의 타이틀과 같은 제목으로 옥스퍼드의 “BAR International Series 728” (Archeopress, Publishers of British Archeological Reports, 1998)로 출판되어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볼 수 있었고 이를 소개하는 기회도 한 차례 가졌다.⁷⁾

이 연구는 인류의 이른바 선사시대인 기원전 3000~1000년 (홍적세 후기)에 외계충격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된 가운데 인류사회가 받은 영향을 최초로 다룬 연구로서 개척적인 의의가 크다. 이들은 중근동,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확인된 500여 개의 크레이터를 유성(소행성) 낙하의 증거로 삼아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들이 보고되었다. 사하라 사막 일대가 본래 초목지대로 테네르(Ténère) 신석기 문화가 꽃피던 곳이었는 데 기원전 2000년 전후, 규모가 큰 소행성의 공중 폭발로 사막이 되었다는 설명과 증빙 언급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리고 신석기 문화시대에는 수평 방향의 큰 나무나 바위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이 이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하늘 방향의 신적 존재를 상징하게 된 것이 수많은 소행성(유성) 낙하가 동반한 광음과 섬광이 가져온 공포의 소산이란 설명도 매우 흥미로웠다. 이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늘 방향에 우리를 모두 죽이려는 무서운 ‘魔’의 존재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 희생(Human sacrifice)을 바치다가 그 공포심이 사라지는 환경 변화 속에 각지의 창조신(deity)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1995년 8월 몬트리올 국제역사학 대회에서 조선왕조실록 기록 분석의 결과를 처음 발표한 이래 ‘소빙기’ 자연이상 현상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점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7) 주 3의 글 참조.

큰 공감에 갔다. 오히려 SIS의 “청동기 문화시대” 연구는 내가 해 낼 수 없는 영역(시대)을 처리해 준 것처럼 느껴져 매우 반가웠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서 원초적으로 태양계의 메카니즘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었다. 소행성의 지구 대기권 돌입이란 메커니즘이 연출하는 자연재난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지구 자체와 그 위에 사는 생명체들이 큰 영향을 받아왔다. 1980년 루이스 알바레스 팀은 지구의 이런 환경적 실체를 최초로 규명하면서 지구의 역사의 중요한 일단을 밝혔다. 즉 중생대가 신생대로 바뀌는 역사가 외계충격 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00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람피노(M. Rampino) 교수 팀은 고생대가 중생대로 바뀔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소행성 메커니즘이 지구의 역사를 바꾸어 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1997년, SIS의 ‘청동기문화 시대(=홍적세 후기)’의 외계충격 현상에 대한 탐구는 곧 신생대에 들어와 지구의 주인이 된 인류(mankind)가 외계충격현상으로 입은 영향, 그 가운데 외계충격 현상에 대한 공포심이 하늘 방향의 신적 존재를 등장시켰다는 규명은 인류사의 거시적 고찰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소빙기’(1490~1760)에도 유럽에서 종교개혁, 종교전쟁, 마녀사냥 등 극심 정신세계의 동요가 일어난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한국 조선의 성리학이 天變은 하늘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 보내는 讜告라고 하여 인간의 소행에 대한 성찰을 중시하여 心學 일변도 성향을 보이다가 禮學의 발달로 이어진 것은 다른 유형의 대응이었다.

나는 1996년에 실록 기록 분석의 결과를 발표한 후 바로 『삼국사기』 『고려사』를 통해서도 외계충격 현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록 기록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유성 낙하에 부수한 ‘연관현상’들을 두 사서에서 추출하여 시기 분포를 살핀 결과, 680~880년, 1100~1230년, 1340~1420년 등 세 시기가 의미 있는 외계충격기로 파악되었다.⁸⁾ 이 파악은 『새한국사』 서술의 줄거리 세우기에 크게 활용되었다. 같은 시기의 다른 문명권, 다른 나라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 설득력을 높여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많아 보완의 여지가 많다.

‘역사와 환경’은 21세기 인문학이 새로운 경지를 향하여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주요한 명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빙기’ 현상에 관한 강연 자리에서 종종 지나친 환경 결정론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역사는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유럽의 ‘근대’가 신으로부터 해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 그것이 거둔 성과도 크지만, 한편 우리의 시선을 지나치게 안으로 집착하게 만든 결함도 없지 않다. 18세기 근대 인문학의 견인차 역할을 한 볼테르(1694~1778)은 18세기 문화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격변주의(catastrophism)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관점은 19세기에 들어와 ‘격변’ 현상이 사라진 환경 조건에서 점진주의(gradualism)의 진화론이 득세하는 가운데 잊혀졌다. 지구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간다면, 인간의 역사는 격변주의와 점진주의의 교합 관계로 보는 것이 정설이 될 것이다. 외계충격설과 ‘소빙기’ 연구는 전자의 개발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8) 이태진, 1997, “고려·조선중기 천재지변과 天觀의 변천,” 한국사상사방법론, 한림대 한림과학원총서, 소화.

참고문헌

- 이태진, 1996a, “소빙기 천변재이 연구와 『조선왕조실록』 -global history의 한 章-,” 역사학보 149. <說林>
- 이태진, 1996b, “소빙기(1500~1750)의 천체현상적 원인 -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분석 -,” 국사관논총 72, 국사편찬위원회.
- 이태진, 1997, “고려·조선중기 천재지변과 天觀의 변천,” 한국사상사방법론, 한림대 한림과학원총서.
- 이태진, 1999, “외계충격 대재난설(Neo Catastrophism)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해석,” 역사학보 164.
- 이태진, 1998, “Meteor Fallings and Other Natural Phenomena Between 1500-1750 a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Korea),” *Celestial Mechanics and Dynamical Astronom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pace Dynamics* 69, Kluwer Academic Publishers, Netherlands.

자연미학 주제발표

사회 전종한(부회장, 경인교육대학교)

- 유학의 자연미와 조선 서원의 전망 경관
김덕현(경상대학교)
- 조선 사대부 원림 미학 - 땅 읽기 相地를 중심으로 -
성종상(서울대학교)
- 선불교와 산수, 그리고 풍수 - 마음과 자연의 만남의 미학 -
최원석(경상대학교)
- 1970년대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오름미학의 형성 -
진종헌(공주대학교)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 景觀

- 立象以盡意와 以美啓眞의 自然美學 -

김덕현(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 유학의 자연미와 경관읽기

유학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학문이고 정치철학이었으며, 생활문화였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경관과 한국인의 심성에는 유교문화의 전통이 새겨지고 침전되어 있다. 유학의 영향이 유학의 기원지인 중국에 비하여 한국에 더 깊다고 본다면, 그 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유학 특히 성리학이라고도 하는 신유학이 조선에서 번창한 것은 유학의 자연관 및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유학의 가르침은 천지의 큰 베품이 생명이며, 산천에 펼쳐진 생명현상에서 유학의 최고 가치 仁을 깨닫고, 천지 자연의 생명 의지(生意)를 자신으로 마음으로 삼는 天人合一이다. 유학이 추구하는 진리가 아름답게 재현된 현상이 산수 자연이었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아름다운 산수 경관을 한반도 중남부에서 가장 잘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산수 경관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지 않지만, 背山臨水 · 前低後高의 지형인식에서 보듯이 산수 경관을 전망하는 문화는 조선시대 한국인에게 일종의 문화심리구조로 내재화되어 있었다. 유학자들은 산수경치를 ‘感愛’했다. 그들에게 산수경치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눈과 귀의 즐거움이 아니었다. 이중환이 말한 怡神暢情하는 마음의 즐거움도 넘어선다. 유학자들에게 산수 자연미 感受는 종교적 구원을 대체하는 정신과 영혼의 즐거움이다. 자연미를 즐기는 志趣는 천인합일을 지각하는 遊息 문화로 유학의 樂感文化를 대표하고, 道の 경지를 즐기는 문화로 간주되어 유학자들이 간절히 추구하는 인생 境地였다. 배산임수의 한국의 산천은 이러한 유학의 자연관 · 진리관을 체득 인식하는 탁월한 현상이었고, 그 대표적 경관이 서원과 정자에 있었다.

나는 여기서 자연미가 유학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찰하고, ‘형태를 드러내어 뜻을 다한다(立象以盡意).’는 유학의 전통에 서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써 참을 열어 간다(以美啓眞).’는 사례를 조선시대 서원의 전망 경관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리학자들이 경관을 의미 체계가 재현된(representation) 형태로 보는 입장과도 통한다. 경관은 그것을 만들고 재현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규범의 결과이며 세계관의 반영으로 간주된다.⁹⁾ 이 글은 의미가 재현된 형태인 경관은 模寫를 벗어나 독해(reading)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경관읽기’이기도 하다.¹⁰⁾

이 글이 기대하듯이 서원에서 나타나는 자연미 감수가 ‘以美啓眞’의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피력해 낼 수 있다면, 天人合一이라는 유학의 거대 담론이 현대가 처

9) 이영민 외 역(데이비드 앳킨슨 외 편), 2011, 『현대문화지리학』, 논형, 112.

10) Duncan, J.,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13.

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세부적 담론으로 조정되어 제시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학의 美와 天人合一

1) 美와 善

한자의 美는 善과 같은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後漢 시대 許慎의 『說文解字』에는 “美는 맛있음이다. 美 자는 羊과 大를 모은 것인데 양은 六畜 가운데 주로 음식을 공급한다. 美는 善과 같은 뜻으로 천하거나 박하지 않은 것이다.”¹¹⁾ 美 자의 기원이 ‘양이 크면 맛있다(羊大則美)’이고, 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善은 맛있음(味), 쾌감으로 좋음, 즐거움을 함축한다. 美와 善이 연계된다는 의미는 첫째, 직접 혹은 直覺적인 것이지 이지적 사고가 아니다. 둘째, 필요를 초월하여 욕망을 만족시키는 특징이며, 셋째, 개체의 애호 흥미와 관련된다.¹²⁾ 美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있는데, 羊의 모양이나 양 머리 장식의 관을 쓴 大人이 아름답다. 즉 ‘羊人爲美’로 설명되기도 한다. 선사시대 추장이 각종 토tem 巫術을 신비하고도 권위 있게 잘 진행하는 사회적 상징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¹³⁾ 제례 행위는 집단을 단결시키고 규율을 습득하여 의식을 통일시키는 기호적 사회 문화 활동, 곧 상징행위로 美의 사회적 기능이다.

‘羊大則美’ 혹은 ‘羊人爲美’라는 美의 어원에 대한 해석은 자연 감각기관의 즐거움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통일이 美가 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감성과 이성, 자연과 사회의 상호 융합과 통일을 추구하는 美에 대한 해석은 의미심장하다. 미학은 자연에서 출발한 감성에 기초하지만 즉자적 태도는 아니다. 문화적 감성이며, 사회를 조직하는 것과도 관련되는 특정 관점에 입각한 심미적 태도이다.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보느냐, 또 추구하는 최선의 사회적 상징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은 동양과 서양의 미학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세계관과 관련된다. 동아시아 미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상징 행위, 최고수준의 행위, 일체화, 인생 최고의 경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美와 善은 서로 융통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미로써 선을 쌓는다(以美儲善)’고 한다. ‘美와 善은 같은 뜻’이라고 할 때, 情感으로서 審美와 理智로서 道德이 合一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역사 현실에서 美와 善은 분리되어 왔다. 공자는 “인자스런 풍습이 있는 마을이 아름답다. (里仁爲美 - 『論語』, 「里仁」 1)” 그리고 “오미(五美 - 『論語』, 「堯曰」 2)”¹⁴⁾에 대한 언급에서 美를 좋음 칭찬을 뜻하는 善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자는 이미 美와 善이 일체화되고 통일되는 정치 사회적 현상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오히려 美와 善이 분리되는 역사적 추세를 주목하고 그 대안까지 언급했다. ‘盡善盡美’와 ‘文質彬彬’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공자는 “舜임금의 음악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 그러나 武王의 음악은 지극히 아

11) 美甘也 從羊從大 羊在六畜主給膳也 美與善同意 无鄙切 - (漢) 許慎 撰, 2014, 『說文解字』, 北京聯合出版公司, 101.

12) 李澤厚 저·權瑚 역, 1990, 『華夏美學』, 東문선, 15.

13) 李澤厚, 앞의 책, 8-19.

14) 子張問於孔子曰 何如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 『論語』 「八佾」) 하였다. 『論語集註』에서는 “미는 겉으로 드러난 성대함이고 선은 그 아름다움의 내면 실재이다. 드러난 공의 성대함으로 말하면 순임금과 무왕이 같지만, 순임금은 사양함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무왕은 정벌 주살을 통해 천하를 얻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내용에서 지극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⁵⁾고 해석하였다. 공자는 또 본바탕(質)이 아름다운 외관(文)을 이기면 野人이요 文이 質을 이기면 걸치레만 잘하는 史이니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이다.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 『論語』 「雍也」 16) 하였다. 美와 善, 文과 質의 불일치에 관한 『論語』의 언급에서, 공자가 천하를 盡善盡美하게 다스리는 外王 추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배움과 수양에 힘쓰는 군자의 內聖에서 文과 質, 美와 善의 合一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2) 美의 意味와 自由의 形式

현대 중국의 미학철학자 李澤厚는 美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⁶⁾ 첫째, 강력한 형식(대상화된 형태)으로 표현해낸 감각적 쾌감이다. 둘째, 윤리판단의 약한 형식이다. 美와 善을 같은 의미라고 볼 때, 善은 쾌감 뿐 아니라 칭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아름답다(美)’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찬성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盡善盡美’가 함축하는 美와 善의 분화, 불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審美 대상을 가리키며, 심미 대상은 심미 태도에 의해서 창조된다. 일상생활에서 ‘美’자는 대부분 심미 쾌감을 일으키는 대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많은 미학자들은 보통 美를 심미 대상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물이 아름다운 까닭은 사물 속에 인간의 본질적 능력이 형상으로 體現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美는 객관 방면의 사물과 형태(형식 구조)가 주관 방면의 의식 형태(심리정감 구조)와 맞아 떨어져(대응)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미를 낳게 된다. 인간의 주관적인 정감·의식과 대상이 결합되어 주-객관이 의식형태, 곧 정감과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되어야 美가 성립한다. 따라서 美는 심미대상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객관 방면의 심미 대상은 주관 방면의 심미 감정·심미 태도에 의해 선택되고 창조된다. 심미 태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풍경이라도 심미 쾌감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심미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석사 무량수전 기둥에 기대서서 전망하는 산천 경치의 아름다움’은 한국인의 독특한 심미 태도를 전제로 한다.¹⁷⁾ 심미 대상으로서 美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상태와 분리될 수 없고, 주관적 의

15) 韶, 舜樂. 武, 武王樂. 美者, 聲容之盛. 善者, 美之實也. 舜紹堯致治, 武王伐紂救民, 其功一也, 故其樂皆盡美. 然舜之德, 性之也, 又以揖遜而有天下; 武王之德, 反之也, 又以征誅而得天下, 故其實有不同者. 程子曰, 成湯放桀, 惟有吳德, 武王亦然, 故未盡善. 堯 舜 湯 武, 其揆一也. 征伐非其所欲, 所遇之時然爾. - 『論語集註』 「八佾」.

16) 李澤厚 저·張泰鎮 역, 2000, 『美學四講』, 중문, 48-57.

17)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축축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들이 마치 그림움에 지친 해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운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 .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 앉으면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산마루, 눈길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식상태란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주관적이고 문화 역사적인 것이다.

자연은 오랜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인류에 의해 통제 개조되어 왔다. 李澤厚는 이를 ‘자연의 인간화’로 불렀다.¹⁸⁾ 자연의 인간화 과정은 인간이 추구하는 善(합목적성)과 자연의 眞(합법칙성)이 통일되는 실천 과정 자체이며, 여기에 미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¹⁹⁾ 인간 주체의 실천 활동(善)이 관철된 성과로서 현실화된 자연 사물의 합법칙적 형식(眞)의 아름다움은 ‘사회미’라 할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한 역사적 현장에서 느끼는 숭고·존엄의 美, 그리고 거대 정교한 건축물과 공예 미술품의 美가 그 예이다. 노동과 기술을 통해 발전된 인류의 조형 능력이 전개한 사회미는 주로 형식미가 된다. 형식미는 각종 형식 구조 · 비례 · 균형 · 대칭 · 박자 · 질서 등 추출된 형식법칙(장악된 법칙성)으로 ‘의미 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이다. 형식미는 현대 사회의 방대한 생산 제품에서 잘 나타난다.

자연미는 생산 활동의 성과인 사회미와 구분된다. 아름답다고 하지만 ‘의미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학의 영역에서 배척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자연미 역시 광의의 ‘자연의 인간화’의 결과이다. 모든 美의 근원은 인간이 추구하는 善(합목적성)과 자연의 眞(합법칙성)이 통일되어 실현된 善, 즉 ‘자연의 인간화’에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자연의 인간화는 인류의 총체적인 사회 역사적 실천이라는 본질적 역량이 창조한 미이다. 자연은 신화의 단계에서 무서운 대상으로 나타나서 인간과 자연은 적대적 관계였다. 다음에 자연은 환상과 이상향을 기탁하는 꾸며진 세계였다. 문화의 발전과 함께 대자연의 景色은 그 자체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興을 기탁하고 德을 비유하며, 情을 이입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미와 마찬가지로 ‘자연이 인간화’되어 심미 대상으로 들어온 것이다. 역사에서 인간과 자연은 情景으로 交融되고 자연 경관을 直觀하여 상상적 진실을 자연에 투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美의 근원을 眞과 善의 통일 즉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통일로 보고, 이를 ‘자연의 인간화’라고 부른 李澤厚는 “자유의 형식이 바로 미의 형식이다.”라고 정의한다.²¹⁾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객관적인 유효성을 가진 위대한 행동역량이어야 하는데, 이 역량이 자유인 까닭은 그것이 객관 법칙에 부합 혹은 장악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역량이란 대상을 조형해내는 능동적 역량을 의미한다. 합목적과 합법칙의 숙련통일에 의해서 도달하는 고도의 경지가 바로 미의 창조임은 공자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 - 『論語』 「爲政」)”, 莊子の ‘포정이 소를 잡는 얘기(庖丁解牛 - 『莊子』, 「養生主」)’에서 보이는 자유의 경지로 표현되었다. 또 “곧바로 천지만물과 함께 흐른다.(直與天地萬物上下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위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 최순우, 1996,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학교재신서1, 78.

18) 마르크스는 인류의 기본적인 실천, 곧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생산활동에서 도출된 세계의 객관적 현실적인 존재형식이 미이기 때문에 “인류는 미의 법칙에 따라 조형(개조)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 李澤厚, 앞의 책, 58-61.

19) 李澤厚는 『美學四講』에서 이러한 실천에 의한 “실현된 선”을 미의 근원으로 보고, ‘자연의 인간화’라고 불렀다.

20) 李澤厚, 앞의 책, 76.

21) 자유의 형식이 미의 형식이다. 내용의 측면에서 말하면, 미는 현실이 자유의 형식으로 실천과정을 통해서 긍정된 것이다. 형식의 측면에서 말하면, 미는 실천에 의해 긍정된 현실의 자유로운 형식이다. - 李澤厚, 앞의 책, 62.

同流 - 『論語集註』 先進)”, “큰 음악은 천지와 화합하는 것이다 (大樂與天地同和 - 『禮記』, 「樂記」)” 등으로 나타난 유학의 천인합일 사상은 학문과 수양에 의해서 도달된 유학자의 자유 경지가 直覺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의 합일을 나타낸 것이다. 무작위의 자연이 주요한 심미 대상이 되어 진정한 자유의 형식으로 인식될 수 있었으니, 이것이 儒學의 자연미이다.²²⁾ 이러한 유학의 자연미 심미를 李澤厚는 ‘아름다움으로써 참을 열어간다 (以美啓眞)’²³⁾으로 부른다.

3. 比德과 意境의 대상으로서 자연미

1) 상을 세워 뜻을 다하다(立象以盡意)

자연 경관을 비롯한 외적 형상을 통해서 내적 본체를 인식한다는 생각은 일찍이 『周易』 「繫辭傳」의 “상을 세워 뜻을 다한다. [立象以盡意]”에서 보인다.²⁴⁾ 언어나 개념으로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눈으로 볼 수 있는 形象을 내걸어 심오한 이치를 재현해 보인다는 상징적 의미작용을 말한 것이다. 李澤厚는 자연 경색과 같은 형상을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는 ‘立象以盡意’ 방식을 比興, 比德, 意境 등 3개 차원으로 제시한다.²⁵⁾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관적 감정을 객관화 대상화하는 방식을 3개 차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비흥은 ‘사물에 의탁하여 말을 일으키는 것 [托物興詞]’이다. 사물을 빌어 뜻을 열어가는 방식은 일상에서 예술에까지 광범하게 활용되어왔다. 우리나라 애국가나 교가에서 그리고 많은 가요에서 山川을 시작말로 삼는 것이 좋은 예이다. 비덕은 德 · 義 · 道 · 志 등의 德目을 산과 물을 비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안정 · 믿음 · 큰 업적은 산에 비유하고, 사람의 활발함 · 즐거움 · 무궁한 지혜는 정감적으로 유사한 물에 비유한다. 유명한 ‘樂山樂水’는 인간의 덕목을 理智의 중재를 거쳐 산과 물에 비유한 것이다.

인물과 인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比德의 특징은 윤리 도덕의 규범을 자연현상과 정감적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詩文에서 개념적 중재 없이 直覺으로 객관적 대상인 자연 경물을 주관적 인간 정감과 직접 비유하는 방식을 意境이라 한다. 直覺은 자연과 인간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니, ‘자연의 인간화’에서 ‘인간의 자연화’로 나아가는 物我一體의 경지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意境은 일종의 情景交融이며 物我同一의 경지이며 상상적 진실이다. 시인의 주관과 외재의 객관이 갑자기 결합하여 ‘감정과 경물이 만나고 사람의

22) 李澤厚 (1992, 『中國美學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4-31)는 중국미학의 특징을 다음 6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유학의 미학과 부합한다. 1)美와 善의 통일, 2)情과 理의 통일, 3)認知와 直覺의 통일, 4)天人合一을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의 통일, 5)和를 중시하는 고대 인도주의 정신, 6)종교가 아닌 심미 경계를 인생 최고의 경계로 본다.

23) 李澤厚, 『美學四講』, 85.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며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하니 그러면 성인의 뜻을 볼 수 없다는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은 상을 세워서 그 뜻을 다한다.’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其不可見乎? 子曰, ‘聖人立象以盡意-『周易』, 「繫辭傳」상)

25) 李澤厚, 『華夏美學』, 203~224.

뜻(意)과 자연의 형상(象)이 통하는 것이 意境이다. “그대는 얼마나 많은 근심을 지니고 있는가, 마치 봄날 강물이 동쪽 흐르는 것과 같다네(問君能有幾多愁 恰似一江春水行東流 - 李煜, 「虞美人」)”처럼, 의경은 형상을 말하지만 형상을 넘어선 상상적 진실로 ‘情이 주가 되고 경물이 뒤따른다(情主景從)’는 것이다.

李澤厚는 儒學은 “심미로 종교를 갈음하고 인간의 자연화로 종교적 구원과 해탈을 대체한다.”고 주장하여 심미가 인생 최고의 경지이며 인간의 진정한 자유 감수라고 본다. 나아가 그는 현대에 유학이 다시 일어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현대에서 유학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자연 경색에 대한 審美가 도구본체(과학기술과 사회의 발전)와 심리본체(문화심리구조)를 근간으로 삼아 개별 생명의 개성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직관(以美啓眞)’·‘자유로운 의지(以美儲善)’ 그리고 ‘자유로운 즐김(자연스러운 개체의 잠재력)’ 실현을 기대했다.²⁶⁾ ‘아름다움으로서 선을 쌓는다(以美儲善)’는 比德과 ‘아름다움으로써 참을 열어간다(以美啓眞)’는 直覺의 방식에서 자연미 심미로 표현되는 유학의 천인합일 사상이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2) 以美儲善의 자연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의 도덕(善)을 드러내는 ‘以美儲善’의 자연미는 신유학 성립 이전까지 유학의 주요한 자연미 심미방식이었고, 현대에까지도 자유롭고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는 전형적 비유로 활용된다. 以美儲善은 도덕과 인격 경지를 자연경색에 비유하는 比德의 방식이다. “침착하고 중후하기는 높은 산악과도 같았으며 고요하고 심원하기는 깊은 샘과 같았다(『退溪全書』 4, 「言行錄」, 44)” 鶴峯 金誠一이 스승 退溪 李滉(1501~1570)의 풍모를 비유한 표현이다. “당시 사람들이 王羲之를 평하기를, 표표하기가 마치 흐르는 구름 같고 굳센 모습이 날랜 용과 같았다.” 중국 魏晉南北朝 시대 사대부의 일화를 기록한 『世說新語』에 보이는 왕희지의 인간적 풍모에 대한 비유이다.

자연 경색을 인격에 비덕한 가장 유명한 언급은 역시 공자의 ‘樂山樂水’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슬기로운 사람은 움직이나 어진 사람은 조용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즐기지만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 『論語』, 「雍也」)²⁷⁾ 하였다. 산은 사람에게 편안한 안정, 중후한 믿음을 주고, 물은 막힘이 없이 활발해서 통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미덕을 산과 물에 비유한 것이다. 退溪는 “山水를 즐긴다는 것(樂山樂水)”은 본래 自身의 마음속에 있는 어짐(仁)과 지혜(智)의 씨앗을 닦고 기쁨으로써 그 氣象과 意思가 비슷한 산과 물을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樂山樂水’는 산과 물이라는 물질적 대상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仁’과 ‘智’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道德精神의 修養을 갖춘 觀察 主體가 山水를 만나 意氣投合되어 表出되는 人格 境地임을 밝힌 것이다.²⁸⁾

26) 李澤厚 지음·노승현 옮김, 2005, 『학설(己卯五說)』, 들녘, 42~46.

27) 知者達於事理而周流無滯, 有似於水, 故樂水 仁者安於義理而厚重不遷, 有似於山, 故樂山. 動靜以體言, 樂壽以效言也. 動而不括故樂, 靜而有常故壽. 程子曰 非體仁知之深者, 不能如此形容之. - 『論語集註』.

28) “樂山樂水는 성인의 말이지만, 산은 어질고 물을 지혜롭다는 말도 아니며 또한 사람과 산수는 본래

‘光風霽月’은 道學의 시조로 알려진 濂溪 周敦頤(1017 ~ 1073)의 인품에 대하여, 문장가 황정견(黃庭堅)이 “인품이 대단히 높고 마음이 구속되는 바 없이 시원하여 비온 뒤 반짝이는 바람결과 맑은 달과 같았다(人品深高 胸中洒樂 如光風霽月 -朱熹, 『周敦頤集』, 「周敦頤事狀」)”고 찬미한 말이다. 세속적 도덕을 넘어서 진실로 道를 터득한 도학자의 초 도덕적 정신 경지를 자연 경색에 비유한 ‘光風霽月’은 후대에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보인다. 자연 경물을 義에 비덕한 예는 ‘中流砥柱’를 들 수 있다.²⁹⁾ 강 가운데 우뚝 서서 오랜 세월 거센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온 바위를 세상의 변화와 시련에도 지조를 지키는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退溪는 도산의 낙동강 가운데 있는 바위에 ‘景巖’이란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지어 찬미했다.

경암

천년토록 거친 물결에도 그친 적 있겠나만,
물결 가운데 우뚝 솟아 웅장한 기세를 다투네.
인생의 자취란 마치 물에 뜬 나무 인형 같은 것,
뉘라서 이 격류 속에서 굳게 버틸 수 있으리오.

景巖

激水千年詎有窮
中流屹屹勢爭雄
人生蹤跡如浮梗
立脚誰能似此中

比德은 아름다운 자연경색으로써 윤리 도덕적 品德을 비유하여 정감적 연계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유학의 자연 경색 - 인간 도덕 비유의 바탕에는 우주 자연 천지를 생명화 · 윤리화 · 정감화 함으로써 거대한 개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유학의 오랜 전통이 있다. ‘曾點의 ‘풍영지취’(風詠之趣 - 『論語』 「先進」 25)에 대한 朱熹(朱子, 1130 ~ 1200)의 해석은 ‘美와 善이 서로 통하는 비덕에서 나아가, 物我交融·相互一體의 경지로 이해되었다.’³⁰⁾ 이 경지를 朱子は “사람의 욕구가 다한 곳

성이 같다는 것을 이르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어진 자는 산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즐긴다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물과 비슷하기에 물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의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나는 이 두가지 즐거움의 뜻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해야 한다.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하려고 하면 다른데서 구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그 깊은 곳의 진실을 취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을에는 어짐과 지혜의 씨앗(實)이 있다. 그것이 마음을 채우고 바깥까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게 되며,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짐과 지혜의 씨앗을 확충하지 않고서, 오로지 높이 솟은 나무가 무성한 산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고, 거칠고 도도하게 흐르는 냇물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틀린 것이며,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지 않을 수 없다....” 「自省錄」, ‘答權好文論樂山樂水’, 『退溪全書』 권 17.

29) 『水經』의 주석 河水에, “지주는 산 이름이다. 옛날 우임금이 치수사임을 할 때 물길을 막고 있는 산 언덕을 뚫었다. 따라서 산을 깨뜨리고 황하의 물을 통하게 하여 황하의 물 흐름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산을 안고 지나가므로 물속에 있는 것이 솟돌 기둥처럼 보이므로 지주라고 부른다.” 나중에 우뚝하게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음. - 이장우, 2007. 『퇴계시 풀이』 제 4권, 영남대 출판부, 147.

30) 증점의 학문은 대개 사람의 욕구(人欲)가 모두 없어진 곳에 천리가 흐르고 가는 곳마다 충만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움직이고 머물 때 조용함이 이와 같았고 뜻을 말함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일상생활의 떳떳함을 즐기는데 지나지 않았고 애당초 남을 위하자는 뜻이 없다. 그리하여 가슴속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상하가 함께 흘러 각각 묘한 곳을 얻어 은연중 말 밖으로 드러났다. 앞의 세 제자들이 하찮은 일에 얽매임과 비교해보면 그 기상이 같지 않다. 그래서 공자께서 감탄하며 깊이 동의하신 것이다.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 故其動靜之際,

에 천리가 흐르고”,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상하로 함께 흐른다.”하였다. 無作爲의 자연 현상을 인욕이 사라진 천리의 유행 그 자체로 직관하여, 심미적 경험을 도덕적 체험으로 直覺하는 것이다.

자연의 인간화의 역사적 발전은 비덕과 같은 理智의 중재를 생략하고 정감적 상상력으로 直覺하여, ‘정감과 경색이 서로 통하는’(情景交融) 상상적 진실 곧 意境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인격 풍모와 상징적인 자연경물을 직접 대응시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情景交融의 意境은 동아시아 문예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意境의 전통은 나아가 유학의 대표적 자연미 심미 형식인 ‘아름다움으로써 참을 열어나가는(以美啓眞)’ 방식이 되었다.

3) 以美啓眞의 자연미와 仁의 直覺

(1) 萬物一體와 生意의 仁

중국 문화는 宋代에 들어와 크게 변화 발전된다. 그 중 하나가 新儒學의 흥기이다.³¹⁾ 신유학자들은 禪宗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스스로 그려한 것, 作爲가 없는 진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신유학자들은 『易傳』과 『中庸』을 중시하고 새롭게 해석했다. 『周易』을 풀이한 『易傳』은 유교적 天人同構의 세계관(天道觀)을 밝힌 자연철학서라 할 수 있다. 『易傳』은 외재적 자연적 天에 긍정적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여 인간사에 유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天에 도덕적 정감적 심미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천인감응(天人感應)-천인합일의 儒家的 자연관·세계관을 열어낸 것이다. 『中庸』은 인간의 내적 수양의 철학(工夫論)을 밝혔다. 『中庸』의 가르침은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수양하는 人道를 닦아 天道에 부합하는 참된 삶을 추구한다는 ‘明善誠身’이다.³²⁾

신유학 자연관의 기초가 된 『易傳』의 天은 도덕적 정감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易傳』에서 말하는 天은 자연법칙이라는 의미에서 眞이지만, 실제로는 심미적인 것이지 종교적이거나 과학적 인식이 아니다. 『易傳』의 “天道の 운행은 건전하고 굳자는 그것을 본받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한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 『周易』「乾卦 象傳」)”에서 외재하는 자연인 天을 비유하고 의인화하여 인간사에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 자연에 도덕적 색깔을 부여하면서 天人感應, 天人合一의 유가적 세계관을 밝힌 것이다. “날로 새로운 것을 성덕이라 하고 낳고 또 낳는 것을 역이라

從容如此。而其言志，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樂其日用之常，初無舍己爲人之意。而其胸次悠然，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隱然自見於言外。視三子之規規於事爲之末者，其氣象不侔矣，故夫子歎息而深許之 - 『論語集註』「先進」)

31) 陳來(1997,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43~45)는 송-명대에 본격화된 중국 문화의 변천을 세 가지로 들었다. 선종(禪宗)의 성행, 고문운동, 그리고 신유가의 흥기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 현상은 위진 당 시대의 귀족 사회의 장원제에서 발전한 평민 지주제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반 한 것이다. 신유가가 기우린 노력은 기본적으로 시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체계를 강화시키는 것과 함께 그것을 추상화하여 ‘천리(天理)’로 만드는 일이었다. 동시에 천리를 인간 본성이 내적으로 함축한 것으로 규정하여 극명한 가치 이성을 재현 형태로 체험하는 일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와 도교의 출세간주의를 배척하는 것과 동시에 도불의 정신생활을 발전시켜 충분히 흡수하고 정신수양의 경지를 탐구하여 인문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종교성을 함께 지닌 ‘정신성’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32)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中庸』 제1장),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中庸』 제20장)

한다(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 「繫辭傳」 상 1)”하여, 낙관적 인생의 의미를 자연관에 투입시켜 세계관과 인생관이 서로 통일되는 자연-역사 철학을 성립시켰다.³³⁾ 程顥(1032~1082)는 “生生之謂易에 대하여 이것이 천이 도가 되는 까닭이다. 天은 단지 생을 도로 삼을 뿐이다. 생이라는 이치를 이어가는 것이 善이다.” 하였다.³⁴⁾ 천지의 ‘끊임이 없이 낳고 낳는(生生不息)’ 生道を 易의 내용(天道)으로 밝히고, 이러한 이치를 이어가는 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善(人道)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천지가 자리를 베풀면 역이 그 가운데서 행해진다(生生之謂易 天地設位而易行乎其中 - 『程氏遺書』 「明道先生語」 2)”하여 生도가 발현되는 현상이 곧 천지 자연임을 천명한다. 나아가 『易傳』은 “천지의 크나큰 공덕을 일러 생이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 - 「繫辭」 하 1)”하였는데, 이는 天道가 대자연에 베푸는 ‘낳고 낳아 그침이 없음(生生不已)’을 천지의 功德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天地之大德曰生’은 유학의 세계관과 심미관에 큰 영향은 미쳤다.

『易傳』은 천지 자연에 도덕적 품격과 약동하는 생명체의 성질을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친근한 감정과 심미적 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天道 곧 誠을 無作爲의 자연에서 발견하도록 고무하여 天人合一하는 길을 열었다.³⁵⁾ “역은 생각도 행위도 없다.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감응하면 마침내 천하의 일에 통한다(易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 「繫辭」 상 10)” 이는 우주의 궁극적 이치인 易의 본체는 無思 無形의 寂然不動이지만, 그것이 느껴지면 천하의 일에 통할 수 있는데, 군자가 ‘感에 응답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感而遂通)’하여 천인감응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또 “象을 본받음에 天地보다 큰 것이 없고 變通함에는 四時보다 큰 것이 없고, 象을 내걸어 밝게 하는 것으로는 해와 달보다 더한 것이 없다(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莫大乎日月 - 「繫辭」 상 11)”고 하여, 易이 가장 크게 드러난 象이 天地임을 밝혀 군자가 感而遂通하는 대상이 天地自然임을 보였다.

程顥는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인을 체득해야 한다. 인이란 혼연히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 『二程全書』 권1, 「識仁」)”하고, “천지가 만물을 낳는 기상을 보아라. 만물의 생의가 가장 불만하니, 元(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것을 仁이라 한다(觀天地生物氣象 萬物之生意最可觀 此元者善之長也 斯所謂仁也: 『近思錄』 권1, 「道體」)”라고 하였다. 또 “醫書에 손발이 마비되는 병을 不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가장 적절하게 이름 붙인 것이다. 仁이란 만물을 일체로 삼으니 자신이 아닌 것이 없다. 자신임을 깨달으면 어딘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자신에게 있지 못하다면 자연히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손발이 不仁하여 氣가 통하지 않는다면 모두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하였다.³⁶⁾ 氣가 통하지 못하는 신체

33) 이택후 저 · 정병석 옮김, 2005, 『중국고대사상론』, 한길사, 261~281.

34) 生生之謂易 是天之所以爲道也 天只是以生爲道 繼此生理者只是善也 - 정씨유서 권2 상

35) 망령됨이 없는 것(无妄)이 지극한 성이다. 지극한 성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기르는데 끊임없이 낳고 낳아 ‘각각 그 올바른 본성과 운명을 가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无妄이다. 사람이 이 无妄의 도와 합일할 수 있다면 이른바 ‘천지와 그 덕을 합일하는 것’이다. (无妄者 至誠也 至誠者天之道야 天地化育萬物 生生不窮 各正其性命 乃无妄也 人能合无妄之道 則所謂 ‘與天地合其德也’) - 『程頤講易傳(白話伊川易傳)』, 135.

36) 醫書言, 手足痿痺謂不仁, 此言最善名狀.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認得爲己, 何所不至. 若不有諸己, 自不與己相干, 如手足不仁, 氣已不貫, 皆不屬己. 故博施濟衆, 乃聖之功用. 仁至難言. 故

마비를 不仁으로 비유하는 것은 仁을 ‘사는 것(生)’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生命)’이라고 본 것이다.

신유학을 집대성한 南宋의 朱子는『周易』의 “復은 그 천지의 심을 보는 것이다 (復 見其天地心乎 -『周易』「復卦)」”에 주목하여, “천지는 만물을 낳은 것을 심으로 삼는다 (以爲天地以生物爲心者也 -『朱子大典』 권 32 「答張敬夫)」”고 해석한다. 천지가 인간처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만물을 낳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은 朱子에 의해서 “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인데, 사람이 이를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仁說)」”로 전개되었다. 사람에게 적용되어 온 仁을 천지의 마음에 적용한 ‘天人同構’의 사고이다. 주자는 천지와 사람이 함께하는 仁의 근본을 ‘생명을 낳는 뜻(生意)’으로 정의하였다(仁本生意 乃惻隱之心之心也 -『朱子語類』하권). 일찍이 程子の 제자 謝良佐는 仁을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天人合一의 知覺이라는 마음의 문제로 이해하여, “마음에 지각이 있어야 인이다(必有知覺之謂仁)”³⁷⁾라고 했다. 여기서 모든 존재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心의 발현이며,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生意)’이 仁이므로 존재의 이치는 仁이 된다.³⁸⁾

(2) 孔顏樂處 추구와 仁의 體得

정호와 주자를 비롯한 신유학자들에게 仁은 천지만물로 대표되는 타자와 일체로 통하는 萬物一體의 仁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체를 이루는 힘은 生에서 오는 것이므로 仁은 또한 생기발랄하고 창조적인 理, 곧 生意로 설명되었다.³⁹⁾ 仁을 生生不息하는 天地의 德으로 보는 신유학의 해석은 隨唐의 문벌귀족의 시대에서 宋代 사대부의 시대로의 전환이 가져온 생활 이상과 심미관의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中唐에서 北宋 시대로 들어오면서 미술의 주제가 佛道와 人物에서 山水와 林石으로 변화되는 산수화의 발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사대부 지주계급은 “산중에서 은거하는 삶의 경지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것(山居之意裕如也)”⁴⁰⁾이라는 심미관에, “일상의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곧장 선천의 순수한 경지에 도달한다.(不離日用常行內, 直到先天未晝前)”는 인생관을 가졌다.⁴¹⁾ 심미의 대상은 공자와 맹자가 말한 인성미과 사회미에서 신유학자의 자연미로 전환되고 발전된다. 이러한 심미관의 변화는 시대의 철학 종교관에 영향 받았다. 禪宗은 북송시대에 이르러 유행하게 되었고 선종의 교의는 중국 전통사상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들은 모두 준 범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자연과 일체감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자연으로부터 영감이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 심령의 해방을 희망하였다. 영원한 자연 산수가 곧 사라질 인간세계의 부귀영화보다 뛰어나고, 자연에의 순응이 인위적 조작보다 바람직하고, 산림과 泉石이 세속의 음악보다 유구하다고 보았다. 북송의 程子나 남송

只曰己欲立而欲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欲令如是觀仁. 可以得仁之體. -『程氏遺書』 2 上,

37) 謝良佐, 『宋元學案』 권24, 「伯達問答」(陳來, 앞의 책, 197-199에서 재인용).

38) 오하마 아키라 지음·이형성 옮김, 1997,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439.

39) 仁者何也 活者爲仁 死者爲不仁 今人身體麻痺 不知痛痒 謂之不仁 桃杏之核 可種而生者 謂之仁 言有生之意 推次 仁可見矣 -『上蔡語錄』 1-6, A. C. 그레이엄 지음·이현선 옮김, 2011,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심산, 215에서 재인용.

40) 李澤厚 윤수영 옮김, 1991, 『美的歷程』, 동문선 문예신서 47, 414.

41) 馮友蘭 저·鄭仁在 역, 1983, 『中國哲學史』, 형설출판사, 32; 曾點之學... 樂其日用之常” -『論語集註』 「先進」.

의 朱子は 모두 선종의 교리를 섭렵하고 극복한 후 자신의 학문을 성립시켰다.

신유학자들의 氣象은 높았다. 학문의 목표가 聖인이었으므로 유학을 聖學이라고도 한다.⁴²⁾ 周敦頤(號 濂溪, 1017~1073)는 ‘배워서 聖인이 될 수 있다’하고,⁴³⁾ 성인이 바라는 바는 天이라 하였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通書』 「志學章」 제10). 고대 先秦 유학에서 天은 종교의 하나님과 같은 주재자의 의미를 가졌으나, 宋代 이후의 신유학에서 天은 주로 천지만물 곧 대자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성인은 天人合一하여 자연과 같은 德을 가진 사람이다.⁴⁴⁾ 『易傳』의 세계관과 『中庸』의 수양철학을 기초로 하는 신유학자들은 인생에서 추구할만한 ‘중요한 것’을 알면, 부귀빈천 같은 ‘사소한 것’을 잊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부족함이 없이 즐거워하는 정신 경지를 얻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공자와 안연이 즐거워한 것(孔顏樂處)’으로 표현되었다. 신유학자들의 이상은 성인의 정신 경지인 ‘孔顏樂處’를 알고 실천하는 인생이었다. 道學 혹은 理學으로 불리는 宋代 신유학자들의 학문은 선형적 이성인 天理 인식을 강조하고, ‘孔顏樂處’를 생활의 목표로 삼아 높은 도덕 경지를 추구했다. 신유학자의 도덕 경지는 곧 심미 경지였고, 이는 외재하는 자연미와 내재하는 유학자의 정신세계가 직관으로 感而遂通하는 交融으로 표현되었다. 周敦頤는 창 앞에 무성한 잡초를 뽑지 않고 바라보는 이유를 묻자, ‘내 뜻과 같기 때문(與自家意思一般)⁴⁵⁾’이라고 하였다. 천지자연의 낳고 낳는 생명의 德을 잡초에서 直覺하고 뜻이 같은 자연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程顥는 일찍이 周敦頤로부터 ‘孔顏樂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풍농월하며 돌아와 ‘나는 曾點과 함께 하리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吟風弄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程氏遺書』)”하였다. “늦은 봄 친구들과 함께 들녘으로 나가 기수에 멍 감고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는 曾點의 氣象이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 보였기 때문에 공자께서도 깊이 공감한 것이다.⁴⁶⁾ 체득한 ‘孔顏樂處’의 경지를 정호는 銘詩 「秋日偶成」에 드러냈다. “한가하게 살아오니 일이 없어 조용하지 않을 때 없고 잠에서 깨어보니 동창이 이미 밝았도다. 만물을 고요히 바라보니 모두 自得함이요 사계절의 좋은 興趣도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道는 천지와 형상 있는 것 바깥까지 통하고 생각은 풍운의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 부귀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빈천해도 즐거워하니 男兒가 여기에 이른 것이 호걸이로다(閑來無事不從容 曉覺東窓日已紅 萬物靜觀皆自得, 四時佳興與人同 道通天地有形外 思入風雲變態中 富貴不淫貧賤樂 男兒到此是豪雄 - 『二程集』 권3 「明道先生語」 3, 銘詩)” 또 스스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천지만물과 하나 되는 仁의 경지를 즐거워하는 시를 읊었다. “열은 구름 산들바람 한낮이 다 된 때에, 꽃핀 버들 길 따라 앞 시내를 지나네. 주변 사람 내 마음의 즐거움은

42) 성인은 우리가 마음으로 옮겨 여기는 바를 먼저 아신 분이다.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孟子』 「告子」 상); 사람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人皆可以爲堯舜, 有諸? 孟子曰 然 -『孟子』 「告子」 하 2장).

43) 聖可學乎 曰可 曰有要乎 曰有. 請聞焉 曰一爲要 一者無欲也, 無欲則靜虛 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 -『通書』 「聖學」, 第20장.

44) 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此言聖人全動靜之德 - 周敦頤, 「太極圖說」

45) 周茂叔前艸草不除去 問之云 與自家意思一般 -『程氏遺書』 3.

46)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論語』 「先進」, 25장.

모르고서, 한창 공부할 소년이 한가로이 거닌다 말하리 (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旁人不識予心樂 將謂偷閒學少年 - 『二程集』, 「偶成」) "생동하는 산수 자연에 대한 심미를 통해서 천인합일이 體認되는 느낌을 시문으로 드러낸 것이다. 『詩經』과 『中庸』의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떠 있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네(鳶飛戾天 魚躍于淵 - 『中庸』에서 『詩經』 「大雅· 旱麓」의 시를 인용)”의 의미에 대해서, 정호는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자연을 직관하면 생동하는 자연 현상에서 천리의 자연스러운 발현과 유행을 直覺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⁴⁷⁾ 정호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대하면 대상인 물과 합일할 수 있음을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二程集』 「答橫渠張子厚先生書」 定性書)”로 밝혔다. ‘廓然’이란 확 트이고 정연하여 분명한 모습을 말하는데, 성인의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면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하는 마음이 없으며 집착하지 않고 이기심이 없어진다는 학문하는 군자의 지향을 비유한 것이다.⁴⁸⁾ ‘大公’의 의미는 聖人は 자기를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항상 仁으로 일관하며 이치가 그러하면 치우침 없이 바로 義를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⁴⁹⁾ ‘物來而順應’은 ‘자기를 사사로이 여겨 잔피를 사용하지 (自私而用智) 않는 것이다.⁵⁰⁾ 성인을 배우는 군자는 廓然大公의 마음을 수양하여 廓然히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 (物來而順應) 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정호의 동생 程頤(1033~1107)는 “지극히 은미한 것은 理이고, 분명이 드러나는 것은 象이다. 體와 用은 그 근원이 하나이고 뚜렷한 것과 은미한 것에는 간격이 없다 (至微者 理也 至賢者 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 『二程集』, 『易傳』 序)”고 하였다. 理와 象은 은미하고 뚜렷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근원이 같고 象 안에 理가 있기 때문에 학문과 수양이 깊은 군자는 直觀으로 현상인 用을 통해서 本體인 理를 直覺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대의 유학자 張載(1020~1077)는 “마음을 크게 하면 천하의 사물을 體得할 수 있다 (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 - 『張載集』, 「正蒙」, 大心)”고 하였는데, 체득이란 마음을 사물에다 두는 直覺으로 해석된다. 大心은 직각의 방법으로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감각의 한계를 뛰어 넘는 덕성의 마음이며, 우주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끝없는 수양을 통해 길러진다.⁵¹⁾ 이러한 사고와 체득을 통해서, 장재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이 내 몸을 이루고 하늘과 땅의 빼어난 것이 내 본성을 이룬다. 사람은 모두 내 동포이고, 만물은 모두 내 짝이다 (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 『近思錄』 「爲學」 편 「西銘」)” 라는 정신 경지를 천명할 수 있었다. 이는 천하의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는 萬物一體 · 天人合一의 경지이다. 따라서 군자는 반드시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 命을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해 끊어진 학문을 이어가고,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연다 (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歲

47) 『程氏遺書』 권1 .

48) 子絕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 『論語』 「子罕」.

49) 군자는 천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하거나 반대함도 없으니 義를 따를 뿐이다.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 『論語』 「里仁」)

50) 張德麟 지음·박상리 외 옮김, 2004, 『정명도의 철학』, 예문서원, 157 .

51) 陳來 지음, 앞의 책, 116~118 .

開太平 - 『近思錄』 「爲學篇」) ”는 큰 뜻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신유학자의 고원한 정신세계는 萬物을 낳는 천지 자연의 仁을 마음으로 直覺하는 ‘以美啓眞’의 통찰에서 드러난다.

仁의 체득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유학자들은 생명을 낳는 기운이 왕성한 봄철의 자연 풍광에서 생의로서 인을 가장 잘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仁은 ‘소리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약동하는(鳶飛戾天 魚躍于淵)’ 자연 현상과 신록이 천지에 빛을 발하는 活潑한 봄철 풍광에서 지적 이해가 아닌 직각적 정감으로 體認된다. 朱子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자연 경관에서 仁이 곧 生意라는 直覺을 시로 읊는다. “높이 솟은 정자에서 굽어보는 시내, 이른 새벽에 올라 저녁에 이르도록 보는구나.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시내 건너편 나무들을 바라보다. 잇달아 숲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각각 生意를 드러낸다. 위대한 조화는 본래 말이 없거늘 다투어서 이 마음 함께 깨달을까(危亭俯清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 - 『朱子大典』 권6 「題林澤地之欣木亭」)” 하였다.

주자는 「觀書有感」 詩에서 연못(方塘)에 비친 天光과 雲影을 통해 天理를 直覺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질문해본다. 현상에서 천리를 직각할 수 있는 까닭은 敬으로써 하늘이 준 本性을 맑게 유지해왔기 때문이다.⁵²⁾

조그만 네모 연못이 거울처럼 열리니	半畝方塘一鑑開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안에 떠있네	天光雲影共徘徊
어떻게 것처럼 맑을 수 있을까 물어보니	問渠那得清如許
맑은 물 솟아나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지	爲有源頭活水來

주자의 「觀書有感」 詩는 敬은 敬과 義가 함께 쓰이고 서로를 이루며 순환하는 活敬이어야 한다는 주자의 새로운 敬사상을 상징하는 시이다.⁵³⁾ 고요하고 맑은 연못의 아름다움을 통해 내면 진리를 直覺한다는 以美啓眞의 정신을 함축한다. 조선의 서원에서 많이 보이는 사각형 연못(方塘)은 주자가 강조한 持敬主一의 공부를 상기시키도록 배려한 것이다.

聖人을 바라고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는 신유학자들이 仁을 체득하는 방법은 天地의 生意를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이 경지가 ‘공자와 안자가 좋아했던 즐거움(孔顏樂處)’이며, 학문과 수양으로 고양된 인격으로 산수 자연을 審美하면서 천리를 直覺하고 참된 삶을 열어가는 길이다. 신유학의 학문과 자연미 심미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조선시대 서원 경관에 再現되었다.

4. 조선 서원 유식공간의 전망 경관의 자연미

서원은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지금도 전국 각지에 많이 남아있

52) 良齋 李德弘이 「觀書有感」 一絶에 대해 질문하였다. 先生이 말하기를 “半畝方塘一鑑開는 心の 全體가 湛然虛明한 氣像을 말한 것이고, 天光雲影共徘徊는 高요하면서 능히 感하여 物이 오면 다 비추는 뜻을 말한 것이고, 問渠那得清如許는 무엇에 말미암아 이 虛明한 體段이 있는가를 말한 것이고, 爲有源頭活水來는 天命의 本然을 밝힌 것이다.” - 『退溪言行錄』.

53) 주자 37세(1166년)에 지어진 시이다. - 수정남(東景南) 지음 · 김태완 옮김, 2015, 『주자평전』 上, 역사비평사, 515 - 517.

다. 조선시대 서원은 대체로 산을 등지고 기슭에 자리 잡고 전면에 하천과 산을 바라보는 背山臨水, ‘前低後高’ 지형에 입지한다. 이러한 지형적 입지조건은 서원의 건물 배치를 ‘前堂後廟’ 구조로 전형화할 수 있게 했다. 뿐 아니라 서원의 가장 앞쪽에 遊息 공간으로 門樓를 배치하여 遊息 - 講學 - 祭享 공간이 위계적으로 전개되는 한국 서원의 독특한 공간구조를 발전시켰다. 조선시대 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달리 尊賢을 매우 중시하고, 존현 기능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제향공간을 가장 상위에 위치시켰다. 또 전면에 문루를 두어 전망되는 산수 자연을 감상하는 외향적 유식공간의 배치 또한 한국 서원의 고유한 특성이다. 유학자들에게 자연미 심미는 그들의 궁극적 이상인 天人合一의 체득을 위한 聖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서원에서 전면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유식공간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개별 서원의 遊息空間인 門樓의 명칭은 전면 자연풍광의 특성을 함축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仁의 지각을 촉발하는 역할, 즉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참됨(誠)을 直覺하는 ‘以美啓眞’의 의미를 담고, 제향 인물의 정신세계에 비유되었다. 한국의 대표적 史蹟 서원 8곳을 사례로 해서, 서원의 전망 경관이 그 자연미를 통해 仁을 직각하는 以美啓眞의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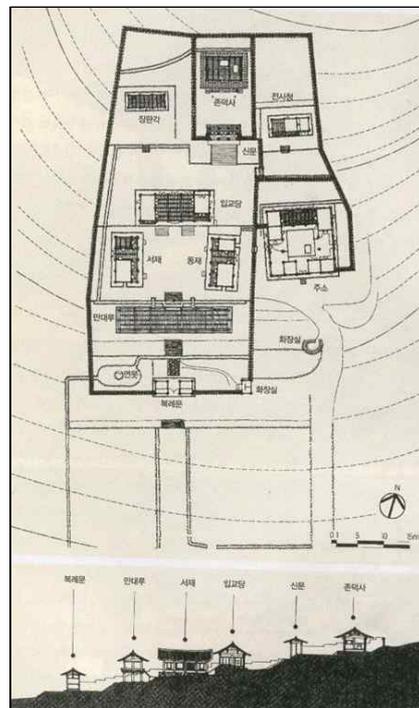


그림 14. 병산서원의 전저후고와 전당후묘 배치

1) 소수서원 景濂亭

紹修書院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있다. 1541년 풍기군수 周世鵬이 白雲洞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여 이곳 출신 유학자 安珦를 배향했고, 1550년 조선 최초로 국가의 공인을 받은 賜額 서원이다, 소수서원의 자연미는 서원 앞을 흐르

는 작은 시내 竹溪와 건너편 언덕 翠寒臺의 生氣이다. 이것이 열어주는 가르침은 ‘草有一般意’이다. 소수서원은 초기 서원으로 ‘前低後高’ 지형에 ‘前堂後廟’로 건물을 배치하는 조선 서원의 전형적 입지와 공간 구성이 뚜렷하지 않다. 소수서원의 문루에 해당하는 유식공간은 서원 입구에 있는 작은 정자 景濂亭이다. ‘景濂亭’이란 이름은 濂溪 周敦頤를 우러러 사모한다는(景慕) 뜻을 가진다. 경령정에서 바라보면 죽계가 흐르고 그 뒤에는 초목이 무성한 언덕 취한대가 있어 작은 시내를 案對 경관으로 하는 溪景에 해당한다.⁵⁴⁾ 경령정 맞은 편 죽계 가에는 못생긴 바위가 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敬’자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흰색으로 ‘白雲洞’이라는 각자가 있어 함께 죽계 물에 비친다. 이들 바위 각자는 숲 속에 있는 바위가 드러내는 부조화를 잊게 하고, 죽계와 취한대로 이루어진 경령정 전망을 幽閒 하면서도 생기 있는 정경으로 느끼고, 나아가 공경스런 분위기로 지각하도록 한다.

경령정 안벽에는 주세붕과 이항의 시를 차운한 시판들이 걸려 있다. 주세붕의 시는 경령정에 오른 느낌을 초목으로 그득한 산의 색깔과 그 가운데를 흐르는 죽계 시냇물 소리, 즉 ‘山色 溪聲’으로 읊었다. 또 서원에 은거하여 학문하는 유학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자연과 感通하여 얻어지는 공경하는 마음을 그려냈다.

경령정

산은 우뚝 서 있는데 공경한 빛깔,
 시내를 졸졸 흐르는데 층층의 소리.
 은거한 이 마음으로 얻는 바가 있겠지,
 한 밤중에 외로이 정자에 기대 있네.

景濂亭

山立祇祇色
 溪流疊疊聲
 幽人心有會
 夜半倚孤亭

주세붕을 이어서 퇴계가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賜額書院을 성취했다. 퇴계는 山色 溪聲으로 지각되는 경령정 전망 경관의 의미를 周敦頤가 밝힌 ‘草有一般意’로 고양시킨다. 퇴계는 풀들도 인간처럼 生意를 가졌다고 보고,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생의를 함축해서 전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여기서 경령정 전망은 유학자들에게 천지의 모든 생명이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진 生意를 直覺하는 以美啓眞의 경관이 된다.

경령정

풀도 우리 인간처럼 생의를 가졌으니,
 흐르는 시내 끝없는 소리를 머금었네.
 유람객들 내 말 아직 믿지 못하는 듯,
 씩은 듯이 상쾌한 텅 빈 정자를 보게나.

景濂亭

草有一般意
 溪含不盡聲
 遊人如未信
 蕭洒一虛亭

경령정에 올라 죽계와 취한대를 바라보며 ‘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이라는 生意의 仁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기대한 퇴계의 희망은 후대 유학자들이 읊은 경령정 시문에서 실현되었다. 金堉(1723-1790, 『竹下集』 권2)은 해질녘 경령정에 올라 가을 山色과 만고토록 그치지 않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평생 추구해온 仁智의 즐거움을 비로소

54) 김덕현·이상호, 2013,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2 - 들판을 바라보는 野景 4개 사적 지정 서원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25(3), 15.

찾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경림정에 올라 걸린 시를 차운하며
산은 늦가을 정취를 머금었고,
시내는 만고의 소리를 간직했네.
평생 동안 추구한 仁智의 즐거움,
해질녘의 경림정에서 찾아지네.

登景濂亭 次板上韻
山帶三秋色
溪含萬古聲
平生仁智樂
落日景濂亭

2) 도산서원 天淵臺와 天光雲影臺

陶山書院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있다. 도산서원은 退溪 李滉(1501~1570)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퇴계가 강학하던 도산서당을 퇴계 사후 제자들이 서원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따라서 도산서원의 전망경관은 퇴계가 도산서당을 만들 때 이미 설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인한 낙동강 수몰과 이어진 서원정비 사업으로 서원 전면 경관은 많이 변화되었다. 서원 진입 방식이 낙동강 변에서 서원을 우회하며 오르는 길에서 산길을 따라 옆에서 내려오는 길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서원 앞의 골짜기를 매립함으로써 옛날처럼 도산서당에서 낙동강을 시원스럽게 전망하는 경관이 사라졌다.

退溪는 일찍이 은거의 뜻을 가지고 거처를 3번이나 옮긴 끝에 61세 되는 1561년 陶山書堂을 완공하고 「陶山書堂雜詠併記」를 지었다. 이 글에서 도산을 선택한 경위를 “작은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는 낙동강 가를 굽어보니 그윽하고 고요하며 멀고도 널찍할 뿐 아니라 바위와 멧부리가 맑고 돌샘이 달고 차가우니 은둔하기 알맞은 곳이었다. 들사람이 밭농사를 일구고 있어서 값을 주고 바꾸었다(爰有小洞 前俯江郊 幽篁遼廓 巖麓悄蒨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野人田其中以資易之)” 하였다. 가까운 청량산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늙은이에게는 산과 물을 겸하는 도산이 편리하다(以兼山水 而逸老病)” 하였다. 만년에 발견한 도산의 산수가 노인인 그에게 수양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생각된 것이다. 도산서당 일대의 다양한 遊息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이들 장소를 왕래하는 즐거움을 모두 18 절구 七言詩로 읊었다. 퇴계는 「陶山書堂雜詠併記」를 맺으며, 산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까닭이 ‘도의를 즐기며 심성을 기르기 위함(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이라고 밝힘으로써 ‘以美啓眞’의 뜻을 함축하였다.

다른 서원과 달리 도산서원 앞에는 경치를 전망하는 문루가 없고 대신 天淵臺와 天光雲影臺라는 자연적 전망대가 있다. 천연대와 천광운영대는 서원 앞 낙동강 변 언덕 좌우에서 강을 바라보는 遊息 공간이다. 퇴계는 「陶山十二曲」에서 “봄바람에 꽃 온 산이 가득하고, 가을밤에는 달이 臺에 가득하니, 사계절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물며 鳶飛魚躍 天光雲影이야 끝이 있으랴.” 하고, “天雲臺 돌아들어 玩樂齋 瀟灑한데 萬卷 생애로 樂事 무궁하여라. 이중에 往來風流를 일러 무삼하리요.” 하였다. 퇴계는 완락재에서 독서와 사색하는 틈틈이 천광운영대와 천연대를 왕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往來風流’로 노래한 것이다.

완락재
경을 주로 해도 다시 의를 모으는 공부가 필요하니
잊지도 말고 조장도 말면 점차로 두루 통하게 되리라

玩樂齋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염계의 태극 동정 순환의 오묘함에 이른다면
비로소 믿겠네! 천년동안 이 즐거움 같았음을.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천연대의 ‘天淵’은 『詩經』의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왔다. 아래 천연대 시는 천연대에서 낙동강에 위로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생기발랄한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 위아래에서 활발히 流行하는 천지의 오묘한 造化 곧 天理를 直覺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천연대에서 자연의 활발한 運行을 보고 태극 동정의 천리를 깨달았으며 하루 종일 마음의 눈을 열었다.”고 술회하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공부로 『中庸』이 가르친 明善 誠身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자신을 참되게(誠身) 하여 天道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善을 밝히는(明善) 학문을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질문하고 깊이 사유하고 명확하게 분별하여 독실하게 실천하는 人道가 『中庸』의 가르침이다.

천연대
솔개 날고 물고기 뛰노는 것 누가 그렇게 시켰는가!
천지에 활발히 유행하는 이치 하늘과 못에 드러나니
강 언덕에서 온종일 마음의 눈을 열어놓고 보며
『중용』 明誠 편 전부를 두서너 번 외워보네.

天淵臺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

天光雲影臺에 서면, 아래 낙동강 물이 깊은 연못을 이루어 거울처럼 맑고 고요하다. 하늘 빛과 구름 그림자가 물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은 물이 맑기 때문이다. 하늘이 준 人性도 본래 거울처럼 맑은 것이지만 本性을 보존하려는 노력 없이는 人慾으로 오염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못이 맑은 거울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물이 源頭에서 오염되지 않는 活水로 내려오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원두는 유학자들이 말하는 無極 太極 곧 天理, 혹은 하늘이 내린 본성에 비유된다. 원두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活水는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하나인 상태로 유지하는(主一無適) 持敬(主敬)을 의미한다. 퇴계는 천광운영대에서 원두의 물이 항상 활수로 내려오도록 경건한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자의 「讀書有感」 시 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주자가 그랬던 것처럼 길게 감탄한다.

천광운영대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활수 위에 비치니
觀書 시의 깊은 깨우침 네모난 연못에 있네.
내 이제 맑은 못 위에서 깨달음 얻으니
마치 그 때 주자께서 길게 감탄한 것과 흡사하네.

天光雲影臺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歎長

도산서원의 자연미 전망 장소는 문루가 아닌 천연대와 천광운영대이다. 천연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天理의 유행을 直覺하는 장소이고, 천광운영대는 ‘源頭 活水’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아 참을 지키는(閑邪尊誠)의 持敬 공부를 다짐하는 곳이다. 도산서원의 천연대와 천광운영대는 퇴계가 실천한 天道(천리)의 直覺과 持敬으로 수양하는 人道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立象而盡意’, ‘以美啓眞’의

장소이다.

3) 병산서원 晩對樓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다. 西厓 柳成龍(1542~1607)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전면에 큰 낙동강과 푸르게 둘러선 屏山을 두르고 있는 江景이다. 晩對樓는 이 강경 전망을 마주 대하는 기다란 문루다. 만대루의 ‘晩對’는 杜甫의 시 「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기 마땅하고 흰 눈 쌓인 골짜기는 깊은 유람에 적당하네(翠屏宜晩對 白谷會深遊)” 하는 ‘翠屏宜晩對’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朱子는 武夷精舍의 경치를 읊은 「武夷雜詠」에서 晩對亭 시를 읊었다. 54세(1183년)에 武夷山으로 은거한 주자는 그의 학문이 세상을 현혹하는 僞學으로 지목되어 탄압받고, 걷기조차 어려운 다리 병과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눈병을 앓고 있었다. 심신의 어려움에 처한 老境의 주자는 무이산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그가 추구하는 학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고무 받고 싶었을 것이다. 「晩對亭」 시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오르니, 멀찍이 만대봉 솟아있네,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 그늘까지 밝게 비추네(倚筇南山巔 卻立有晩對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하였다. 시인 두보는 “푸른 봉우리가 저녁녘에 마주하기 마땅하다(翠屏宜晩對)” 하고 直覺으로 意境을 읊었지만, 유학자 주자는 인간의 늙음과 자연의 의연함, 천지의 냉엄함과 경색의 인자함을 대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참됨(誠)을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투영하여 자신의 학문의 진리성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은 병산서원 앞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미 서쪽에 기운 해는 높은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마지막 빛을 뿌린다. 비스듬하게 비치는 햇살에 낙동강과 병산의 푸름은 비취빛으로 더욱 황홀하게 반짝이고, 병산의 바위 절벽 깊이 어두운 곳까지 햇살이 여유롭게 스며든다.⁵⁵⁾ 이 때 빛나는 산과 물의 생기가 보는 이의 눈으로 스며들고 가슴으로 젖어들면서,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하는 느낌이 전해진다. 산과 물이 생기가 내 마음 속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경관의 山色과 사람의 마음이 生意라는 의미로 서로 감통하여 合一感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신유학자들은 知覺의 天人合一, 곧 마음에 지각되는 仁으로 생각했다. 푸른 산봉우리의 그늘진 구석까지 비취주는 저녁 무렵 병산서원 晩對樓의 햇살은 천지만물을 낳는 仁의 보편성을 直覺하도록 하는 특별한 경험이다.

55) 병산서원에서 건너편 산을 유심히 바라보면, 지나치게 가깝게 높은 산이 있어 위압감이 느껴진다. 산 높은 곳에는 파여진 바위 굴 모양의 어두컴컴한 바위가 있어, 산의 생기를 해치고 바라보기에 불편한 느낌을 준다. 이를 풍수에서는 ‘산살(山殺)’이라고 부른다. 소수서원 경림정 앞의 경자바위도 이런 유형이다. 이 경우 옛사람들은 바위에 좋은 글귀를 새겨 두거나 건물을 짓기도 하고 혹은 막아주는 느낌을 주는 비보 장치를 두어 살기(殺氣)를 제압하고 나아가 좋은 의미, 혹은 생기로 전환시키는 비보(裨補厭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병산서원 전면을 완전히 막아선 7칸 규모의 기다란 누각 晩對樓는 이처럼 그냥 바라보기에 불편할 수 있는 전망 경관을 그림틀과 같이 누각 기둥 속에 가두는 차경(借景)을 만들어 산과 강의 경치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비보 건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서원 전망의 山殺을 막아주는 병산서원 건축의 특징은 서원의 동재가 서재와 평행을 이루지 않고 안쪽으로 틀어서 바위 산이 보이는 동쪽을 막아주는 배치에서도 나타난다.

4) 옥산서원 無邊樓

玉山書院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다. 1572년(선조 5)에 경주 부윤 李濟閔이 지역 儒林과 의논하여 현 위치에 晦齋 李彦迪(1491 ~ 1553)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웠다. 옥산서원의 입지는 李彦迪이 은거하던 獨樂堂 아래 紫溪변으로, 작은 시내와 숲으로 둘러싸인 溪景이다. 옥산서원의 문루의 처음 이름은 納淸樓였으나 無邊樓로 바뀌었다. 옥산서원 창건 때 許曄이 지은 「玉山書院記」는 납청루의 뜻을 풀이한 것이고, 무변루는 盧守愼이 지은 「書院堂額贊」에 풀이가 있다. 허엽은 「옥산서원기」에서, “이름은 納淸인데 淸은 곧 氣이니, 기는 곧 陽이다. 이 누각에 오르는 자는 淸 곧 기와 양을 받아들여 陽氣를 기를 것이다. 양기를 기르는 것은 道를 凝縮하는 것이다. 납청루는 이 양기 함양과 도의 응축을 모두 갖춘 것이다” 하였다. 허엽은 납청루가 서원 앞에 펼쳐진 자연의 양기 곧 생기를 받아들여 도를 응축한다는 生氣體得의 장소임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언적의 제자인 노수신은 이름을 무변루로 바꾸면서 지은 「서원당액찬」에서 보다 함축적으로 생의(生意)를 말하면서, 제향인물 이언적의 학문 경지를 암시한다. 무변루의 ‘無邊’은 북송시대의 시인 黃庭堅이 염계 주돈이의 志趣를 “風月無邊 庭草交翠”로 찬양한 데서 왔다. ‘풍월무변’으로 부른 것은 염계가 光風霽月 같이 맑고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庭草交翠’라 한 것은 염계가 ‘나와 뜻과 같다(與自家意思一般)’ 하여 정원의 풀을 제거하지 말라고 한 만물일체 사상을 가리킨다. ‘의사일반(意思一般)’은 生意를 함께하는 대자연은 나와 一體라는 ‘天人合一의 仁’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염계는 「太極圖說」을 저술하여 新儒學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며 道學의 시조로 불리진다. 이언적은 「태극도설」의 ‘無極而太極’에 대하여, “도의 어디까지나 物的 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만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논한 바 있어,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을 염계에 비견하는 뜻을 함축한다.

노수신은 무변루의 의미를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靡欠靡餘 罔初罔終 光與霽與 遊于太虛)”라고 풀이하였다. 노수신이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한 것은 염계의 학문 ‘無極’을 말한 것이고,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한 것은 염계의 인품을 말한 것이다. 노수신은 옥산서원 앞 紫溪의 생기 충만한 풍광에서 유학자가 대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느끼며 天人合一하는 仁을 直覺한다고 보았다. 또한 무변루 앞 紫溪 변에서 학문과 수양에 힘쓴 晦齋를 염계의 光風霽月的 경지에 비견하고자 한 것이다.

溪景 옥산서원의 전면 경관 紫溪의 품은 넓지 못하지만 풍요하고 깊어보여서 마치 깊은 산중처럼 느껴진다. 이 작은 숲에서 光風霽月처럼 빛나고 시원한 마음으로 태허의 경지에서 유학자들이 노니는 모습을 그려낸 무변루 뜻풀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孔顏樂處를 재현하는 듯하다. 晦齋를 흠모하며 오로지 聖學에 나아가는 유학자들이 소박한 작은 시내 紫溪에서 무한한 風月을 즐기며 천지가 만물을 낳는 仁을 체득 인식하는 풍류는 조선시대 서원문화의 소중한 성취로 생각된다.

5) 도동서원 水月樓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있다. 東邦五賢의 한 분으로 文廟에 從享

된 寒暄堂 金宏弼(1454~1504)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도동서원은 가파른 언덕 위에서 북쪽으로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江景 입지이다. 김굉필의 외증손 寒岡 鄭述(1543~1620)가 주도하여 현풍읍에 있던 雙溪書院을 임진왜란 이후 이곳 오설(烏舌)면으로 이군했다. 도동서원은 건물을 前低後高의 지형에 위계에 따라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여 整齊嚴肅 主一無適의 서원 경관을 보여준다.⁵⁶⁾

도동서원 문루의 당호는 水月樓이다. ‘水月’은 주자의 시 ‘秋月照寒水’에서 왔다.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춘다(秋月照寒水)’는 도동서원에서 전망하는 낙동강 경관을 잘 그려냈다. 도동서원의 입지 경관은 가까운 낙동강 본류를 높은 언덕 위에서 북향으로 내려다 보는 특별한 사례이다. 가을철 달 밝은 밤에 도동서원에서 북쪽으로 낙동강을 관조하는 느낌을 ‘秋月照寒水’로 재현한 것이다. 情景를 묘사한 ‘秋月照寒水’는 주자의 시에서 성인의 심법을 공경하게 전수받는 군자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의미를 가진다. 주자는 「齋居感興詩」 20수에서 요(堯)와 순(舜)의 공경하고 삼가는 心法이 精一하게 전해져 만세토록 사람의 기강을 세웠음을 찬양한다.⁵⁷⁾ 제10수에서 “삼가 천년토록 유교 성인이 전해온 마음을 생각하니 가을 달이 차가운 물을 비추 듯하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고 읊었다.⁵⁸⁾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는 천년에 걸쳐 성인들 간에 순수하고도 끊임 없이 전해온 심법이 가을 달이 원천에서 맑게 끊임 없이 흘러내리는 찬 강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데, 그 심법은 ‘敬’ 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⁵⁹⁾ 성인의 마음을 흐르는 물에 비유함은 공자의 ‘川上嘆’에서 유래한다. “공자께서 시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은가! 밤과 낮을 쉬지 않으니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순수함이 또한 그침 없는 것(純亦不已)’이다.” 하고, 성인의 ‘純亦不已’한 마음을 天德인데, 그 요점은 오직 ‘慎獨’에 있다 하였다.⁶⁰⁾ 도동서원의 설립을 주도한 鄭述 역시 ‘秋月照寒水’는 군자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⁶¹⁾ 정구는 낙동강을 항상 전망하도록 도동서원의 입지와 건물 배치를 결정하면서, 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가을 달이 차가운 강물을 비추는(秋月照寒水)’ 모습처럼 敬과 慎獨으로 전해온 성인의 심법을 ‘純亦不已’의 자세로 배우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56) 김덕현, 2017, “도동서원 경관에 재현된 성리학의 정신세계”, 『문화역사지리』 29(4), 9~11.

57) 성인들 간에 천년에 걸쳐 전해온 심법은 『書經』 「大禹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을 말한다.

58) “放勳始欽明 南面亦恭己 大哉精一傳 萬世立人紀 猗歟歎日躋 穆穆歌敬止 戒熒光武烈 待旦起周禮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魯叟何常師 刪述存聖軌” 『朱子全書』 卷66, 「齋居感興二十首」, 제10 수.

59) 주석에 “熊氏(熊剛大)曰, 此篇 言堯舜禹湯文武周公傳心之法在乎敬”

60) 程子曰 ‘此道體也. 天運而不已, 日往則月來, 寒往則暑來, 水流而不息, 物生而不窮, 皆與道爲體, 運乎晝夜, 未嘗已也. 是以君子法之, 自強不息. 及其至也, 純亦不已焉.’ 又曰 ‘自漢以來, 儒者皆不識此義. 此見聖人之心, 純亦不已也. 純亦不已, 乃天德也. 有天德, 便可語王道, 其要只在謹獨.’ 愚按: 自此至篇終, 皆勉人進學不已之辭. - 『論語集註』 「子罕」 16.

61) “오장(吳長)과 내가 무흘에서 선생을 모시고 잠을 잘 때의 일이다. 밤이 깊어져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선생은 만월담(滿月潭) 가에서 산보하다가 우리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것이 곧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이다. 유자(儒者)는 이 이치를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제생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오장에게 「感興詩」의 “가을 달이 차가운 물을 비추네.(秋月照寒水)”라는 구를 외우게 하고 감탄하면서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다. - 이천봉” 『국역 한강집』 제4권, 「한강언행록 제3권」 유편 잡기.

주자가 천년을 이어온 마음으로 읊었고 다시 정구가 강조한 군자의 마음 ‘秋月照寒水’는 2백여 년이 지나 1849년 癡窩 李源祚(1792~1871)의 水月樓 상량문에 새겨졌다. 李源祚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문루에 현판을 걸면서, “근원이 있어 거울 같은 물이 흘러내리는 (混混一鑑源頭) 차가운 강물에 비친 달처럼 밝고(寒水照月) 비취빛 나는 강을 내려다보는 높다란 도동서원에서 성인의 전한 심법을 강의하니, 도학의 전통이 대니산 아래 도동서원에 전해진 것 같다”하였다. 또 도동서원의 강의는 서원 앞 차가운 강물에 비치는 달처럼 밝게 빛나고, 안개 낀 달밤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닐며 「武夷悼歌」를 부를 수 있으니, 우리 마음은 차가운 정자를 비추는 밝은 달과도 신령스럽게 통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차가운 강을 비추는 밝은 달(寒水照月)’이 도동서원 선비들에게 성인의 마음을 밝혀주고, 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은 源頭에서 흐르는 活水처럼 敬으로 전해진 성인의 心法을 자기 마음으로 닦아가도록 바란 것이다.⁶²⁾

수월루 상량문에 천명된 ‘秋月照寒水’은 持敬을 요체로 하는 金宏弼의 정신세계와도 부합된다. 김굉필의 정신세계는 “학문에 힘쓴 지 10여 년 만에 動靜이 모두 禮法을 따랐고 持敬 공부를 오로지한지 30여 년에 정력이 쌓이고 道와 德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⁶³⁾라고 역사에 기록되었다. 김굉필은 시 「船上」에서 달빛 가득한 강 가운데 뜬 배 위에 앉은 자신의 모습에서 直覺되는 ‘秋月照寒水’의 경지를 읊었다. 달빛 가득한 강 위에서 ‘敬’이 주재하는 한훤당의 마음은 천지와 하나 된 듯하고, 물고기는 거울 속에 노는 듯 강은 맑고 밝다. 거문고 안고 돌아가는 김굉필은 ‘강 가운데 가득한 달빛(江心月)’이라는 자연미와 일체가 된 것이다.

배위에서	船上
배는 하늘 위에 앉는 듯하고	船如天上坐
물고기는 거울 속에 노는 듯	魚似鏡中遊
술 마신 후 거문고 끼고 돌아가니	飲罷携琴去
강 가운데 달빛이 배 하나 가득	江心月一舟

도동서원은 整齊嚴肅한 경관으로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를 상쇄하는 미학적 디테일이 곳곳에 보인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사당 벽에 그려진 두 개의 벽화이다. <江心月一舟>와 <雪路寒松>이라는 좌우 벽화는 김굉필의 정신세계가 ‘秋月照寒水’의 持敬과 ‘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의 節義였음을 알려준다. 도동서원 사당에 배향된 인물 정구가 도동서원 享祀文에서 “公께서는 敬과 義를 함께 지키셨습니다.”라고 했듯이, 敬과 義[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김굉필이 오로지하여 실천한 정신세계였음을 서원의 가장 존엄한 장소 사당에 벽화로 재현하였다. 도동서원의 유학자들은 서원 전망 경관

62) 李源祚, 『癡窩先生文集』 권4 上 櫟文

63)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의리(義理)의 학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우리 조선조의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성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마음을 다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힘쓴 지 10여 년 만에 동정(動靜)이 모두 예법(禮法)을 따랐고 지경(持敬) 공부를 오로지한지 30여 년에 정력이 쌓이고 도와 덕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세를 만나게 되자 화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세상에 시행한 것은 없었으나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음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인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 - 『선조실록(宣祖實錄)』 권4 선조 3년 5월 병자(丙子)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

을 ‘秋月照寒水’라는 자연미로 형상화하여 純亦不已의 성인의 마음을 열어가는 단초로 삼아 持敬의 정신세계를 닦아간 것이다.

6) 남계서원 風詠樓

남계서원은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다, 문묘에 종향된 一蠹 鄭汝昌(1459~1504)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남계서원은 낮은 구름 산지에 기대어 濼溪가 흐르는 들판과 먼 산을 바라보는 野景서원이다. 서원 문루의 이름은 風詠樓이다. 「風詠樓記」에 ‘風詠’이 뜻하는 바가 잘 설명되었다. 鄭汝昌의 후손이 쓴 기문에 전망 경관을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얽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하였다. 또 경관이 주는 정경의 의미를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 悠然히 스스로 얻은 뜻이 있다. 頭流山(지리산)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남계의 상류)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一蠹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氣象을 우러러 볼 수 있으니, 흡사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해서 風詠樓라 이름 하였다”고 밝힌다.

19세기 호남의 유학자 奇正鎭의 풍영루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曾點에 직접 비유한다. “一蠹 선생의 심오한 학문은 비록 후생이 헤아릴 수 없으나 여러 선배들의 말씀을 상상해보건대... 선생의 시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孤舟又下大江流)’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舞雩에 바람 쏘이고 沂水에서 목욕하겠다는 기상이 있다. 이것이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라는 것으로만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두류산 백암산과 남계 위수는 모두 조망할만한 아름다운 산수로 기록할만하다” 하였다. 두개의 風詠樓 記文은 모두 남계서원의 전망 경관을 묘사하고, 이 경지에서 曾點이 風詠하던 氣象을 떠올리며, 이를 다시 제향인물 一蠹의 정신세계로 연결한다.

曾點의 氣象이란 증점이 공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 올라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자께서 탄식하며 증점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論語』「先進」25)한 것을 말한다. 남계서원에서 앞에 펼쳐진 들판과 시내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는 감회는 유학자들에게 『論語』에 나오는 ‘증점의 즐거움(風詠之趣)’를 떠올리도록 했을 것이다. 정여창은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에서, “바람결에 냇버들 가볍게 나부끼니 사월 화개 땅에 보리가 이미 익었구나. 두류산 천만 봉우리를 모두 둘러보고 외로운 배는 다시 큰 강으로 내려가네(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하였다. 이러한 정여창의 기상이 곧 증점의 기상과 같다는 것이다. 문루 풍영루에서 탁 트인 들과 아지랑이 낀 시내 그리고 구름 속에 아득한 산들을 바라보는 감회는 曾點의 기상과 통한다. 증점의 기상을 주자는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는 은연중 저절로 드러난 것(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論語集註』「先進」)”으로 풀이한다.

儒者가 아니라도 늦은 봄날 남계서원에 올라 신록이 펼쳐진 전망 경치를 바라보면 증점이 풍영했던 기상을 떠올리고, 다른 사람과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처지에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이 유연해져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합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약동하는 천지의 생명 기운을 받아들여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싶어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소통하게 하여 우주의

이치를 열어가는 힘을 주고 있음도 느껴진다. 남계서원이 제향하는 賢人 一蠹의 기상이 그러했고, 일두를 흠모해온 남계서원의 선비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남계서원의 유식 공간 風詠樓는 생기 가득한 전망경관에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그리고 천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 仁의 즐거움을 직각하는 ‘以美啓眞’의 장소이다.

7) 필암서원 廓然樓

필암서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있다. 필암서원 제향인물 河西 金麟厚(1510~1560)는 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文廟에 從祀된 분으로 道學과 節義 그리고 문장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⁶⁴⁾ 필암서원은 산을 등지고 있지만 평지에서 들판을 바라보는 野景 입지이다. 평지 서원이기에 서원 앞에 서면 서원의 전경은 보이지 않고 앞쪽에 있는 2층 문루 廓然樓가 특히 드러나 보인다. 들판을 전망하는 廓然루는 浩闊한 대장부의 기상이다. 다른 한국 전통 건축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서원 건축은 서구의 교회처럼 우러러보는 경관이 아니다. 특히 서원의 문루는 위에 올라서 전망되는 경관을 바라보며 天人合一하는 기상을 얻는 遊息 공간이다. 야경 서원으로 전망이 廓然한 필암서원 문루 이름 ‘廓然’은 깊은 의미함축을 가진다. “치우침 없이 분명하게 탁 트여 드넓게 공평할 수 있으니, 사물이 이르면 순응할 수 있다(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程顥, 「定性書」)”에서 온 ‘廓然’은 성인의 마음과 군자의 학문을 그려낸 大心の 경지이다. 廓然루 이름은 尤庵 宋時烈이 지었다. 廓然루 안에 걸려 있는 金時稔의 「廓然樓記」에는 廓然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풀이한다.

“아, 내 삼가 우암의 은미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정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평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연역하기를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仁이 몸체(體)가 되는 것이고,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는 것은 義(義)가 쓰임(用)이 되는 것이다. 仁이 확립되고 義가 행해지면 본성이 고요해져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한결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람의 한 치 마음이 담박하여 텅 비고 밝아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잔꾀에 얽매임이 없게 되면, 거울처럼 텅 비고 저울대처럼 평평하여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中에 늘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확 트이게 되어 밖에서 비추는 것들이 그에 순응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송시열은 廓然루 이름을 짓고 현판 글씨도 직접 썼지만, 廓然루의 의미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廓然루기」의 작자 김시찬은 黃庭堅이 주염계의 기상을 ‘光風霽月’로 형용한 것처럼, ‘廓然’은 우암이 河西의 정신과 기상을 『주역』 「繫辭傳」의 “나타난 것을 미묘하게 하고 깊숙한 것을 드러낸다(微顯闡幽)”는 방식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추측한다. 하서 김인후는 조선 仁宗의 사부로서 인종이 일찍 사망하자 고향에 은둔하며 관직을 사양하고 학문에 전념하는 깨끗한 出處와 學德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⁶⁵⁾ 廓然樓는 전망 경

64) 國朝人物 道學節義文章 忒有 其兼有而不偏者無矣 天佑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 『宋子大全』 권 154, 「河西金先生神道碑銘」

65) 송시열이 지은 김인후의 神道碑銘에 “그 淸風大節은 우뚝 솟아 세상을 울리고 밝혀서, 둔한 사람도 염치를 알고 나약한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였으니 백세토록 스승이라 말해도 될 것이다.”하였다. (其淸風大節 聳動震耀 頑廉而懦立 則雖謂之百世之師 可也 - 『河西全集』 「附錄」 1권)

관의 특징(象)을 내세워, 제향인물 河西의 廓然大公한 정신세계를 顯彰하고, 유학이 추구하는 성학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立象以盡意’의 탁월한 사례이다.

8) 돈암서원 山仰樓

遯巖書院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있다. 1634년(인조 12)에 沙溪 金長生(1548~1631)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창건되었다. 돈암서원은 연산평야의 낮은 구릉에 기대어 평야와 먼 산을 바라보는 野景 서원이다. 돈암서원은 원래 서북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연산천에 인접한 김장생의 강학처에 있었는데, 홍수를 우려하여 현재의 위치로 1880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移建되었다. 옛 입지와 마찬가지로 현 위치 역시 넓은 평야에 바라보는 덕분에 수십 km 멀리 있는 계룡산의 연봉을 비롯한 먼 산들이 아득하게 보인다. 돈암서원의 강당이었던 養性堂의 기문 「養性堂記」에는 돈암서원의 전망 경관에 대한 김장생의 생각이 보인다. (『沙溪全書』 제5권)

... 멀리 보이는 산세는 대둔산이 남쪽에 있고 계룡산이 북쪽에 높이 솟아 못 봉우리들이 우람하게 모두 한 자리 사이에 모여 있다. ... 만약 일찍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와 산을 우러르며 즐기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살피며 자연 경물을 접하는 대로 이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함양하며 놀았다면 마음공부에 도움이 없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뜻만 있고 결단하지 못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올해에 처음으로 돌아왔다. ... 요즈음 앓으나 서나 슬픈 마음이 들기에 옛터에 작은 집을 지어 다시 여러 사람들의 시를 새겨 놓고 때때로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다. 또 당호를 養性堂으로 고쳐 당세의 시인들에게 和韻을 구하고자 한다.

養性堂의 전망 경치에 대해 김장생은 “산을 우러르며 즐기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살피며 자연 경물을 접하는 대로 이치를 깨닫는다(仰而樂山 俯而觀水 觸物悟理)”라고 기술하고, 그 의미를 “그 속에서 함양하며 놀았다면 마음공부에 도움이 없지 않았을 것(涵泳優游 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夫)”이라고 적었다. ‘높은 산을 우러르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자의 깊이 찬탄이 있다. 공자는 『詩經』 「小雅」의 구절을 인용하여 “높은 산을 우러르는 것을 높은 덕행을 본받는 것(高山仰止 景行行止)”에 비유하였다. 또 산을 우러르는 마음을 仁을 좋아하는 데 比德하면서, “仁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道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게 될지라도, 몸이 늙은 것도 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모른 채,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힘쓰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詩之好仁如此. 鄉道而行, 中道而廢, 忘身之老也, 不知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孳孳, 斃而后已. - 『禮記』 32편 「表記」)” 하였다.

‘높은 산을 바라보는 (山仰)’ 김장생의 즐거움은 공자가 말한 仁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었다. 김장생은 관직에 나가기 보다 은둔하며 많은 제자를 길렀다. 宋時烈 · 宋浚吉 · 尹宣舉 · 崔鳴吉과 자신의 아들 金集 등 수 많은 당대 巨儒 정치가들이 김장생의 門下에서 나왔다. 김장생의 山仰과 好仁은 수백 년 동안 湖西 제일 서원의 영광을 지켜온 돈암서원 정신세계의 뿌리이다. 돈암서원은 최근 문루를 크게 다시 세워 ‘山仰樓’ 현판을 달았다. 다른 서원의 전망에서 느껴지는 生意나 天人合一과 달리, 돈암서원의 山仰은 생각되는 바가 높은 德行(景行)이라는 점에서 ‘이미저선(以美儲善)’하는 비덕으로도 볼 수 있다. 김장생 자신은 隱遁을 지향해서 서원 이름도 은둔을 뜻하는 ‘遯巖’으로 하였다. 그러나 돈암서원 山仰樓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며 ‘高山仰止 景行行止’의 뜻을 음미해보면, 沙溪의 문화에서 조선 후기 朝廷을 주도했던 정계의 거물을 배출한 사

실이 沙溪의 ‘山仰’하는 氣象과도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돈암서원에서 전망하는 자연미의 유형이 사회미적 성격을 가진 崇高美에 가깝기 때문이다. 건강부회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연미의 유형에 따라 直覺되는 참됨(誠, 眞)과 고무되는 善의 내용이 달라져 서원이 배출하는 인물들의 정신적 지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5. 요약을 대신하여

필자는 서원의 전망 경관을 풍수에서 말하는 ‘案對 景觀’처럼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관으로 보고, 문루나 전망대의 이름이나 기문을 天人合一이라는 유교적 맥락에서 해석한 바 있다.⁶⁶⁾ 이번 논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立象以盡意 以美啓眞의 관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8개 서원의 전망 경관 읽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서원에 재현된 以美啓眞

입지 전망	書院	樓門 · 亭 · 臺	以美啓眞 (立象以盡意)	資料
野景	濼溪	廓然樓	擴然而大公, 物來而順應	定性書, 廓然樓記
	筆巖	風詠樓	風乎舞雩 詠而歸	論語 (集註) 風詠樓記
	遁巖	山仰樓	高山仰止 景行行止	詩經
江景	陶山	天淵臺 天光雲影臺	鳶飛戾天 魚躍于淵 源頭活水	詩經, 中庸 朱子 詩, 觀書有感
	屏山	晚對樓	翠屏宜晚對 落日明影翠	杜甫 詩, 百濟城樓, 朱子 詩, 晚對亭
	道東	水月樓	秋月照寒水	朱子 詩, 齋居感興, 水月樓 上樑文
溪景	玉山	無邊樓	風月無邊 庭草交翠	濼溪先生遺像贊 玉山書院堂額贊
	紹修	景濼亭	與自家意思一般 草有一般意	程氏遺書 退溪 詩

66) 김덕현, 2011,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회보』 1.

참고문헌

近思錄, 沙溪全書, 四書集註, 書經, 宣祖實錄, 世說新語, 宋子大全, 心經, 禮記, 凝窩先生文集, 二程全書 程氏遺書, 周易 易傳, 朱子全書 朱子語類, 中庸, 河西全集, 退溪先生文集 退溪全書

A. C. 그레이엄 지음 · 이현선 옮김, 2011,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심산.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김덕현, 2011,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회보 1.

김덕현, 2012,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한국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자료집, 서원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김덕현 · 이상호, 2013,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산간 계곡에 입지한 4개 사적 지정 서원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5(2).

김덕현 · 이상호, 2013,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2 -들판을 바라보는 野景 4개 사적 지정 서원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5(3).

김덕현, 2017, “도동서원 경관에 재현된 성리학의 정신세계,” 문화역사지리 29(4).

김봉렬, 1999, “성리학의 건축적 담론-도동서원,” 한국건축의 재발견3, (주)이상건축.

김봉렬, 1999, “이땅에 새겨진 정신,” 한국건축의 재발견 3, (주)이상건축.

롤랑 바르트 저 ·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2006, 국역 한강집.

성백효 역주, 2002, 譯註 心經附註, 전통문화연구회.

수정남 (束景南) 지음 · 김태완 옮김, 2015, 주자평전 상, 역사비평사.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7, 道東書院誌

오하마 아키라 지음 · 이형성 옮김, 1997,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王甦 著 李章佑 譯, 退溪詩學, 중문출판사.

유인호·하현정, 2008, “도동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논문집 11(3).

이광호 역, 2001, 聖學十圖, 흥익출판사.

이상해, 1998, 書院, 열화당.

이상호, 2014,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해석적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민 외 역(데이비드 앳킨슨 외 편), 2011, 현대문화지리학, 논형.

이장우, 2007, 퇴계시 풀이 제4권, 영남대출판부.

李澤厚 저 · 정병석 옮김, 2005, 『중국고대사상론』, 한길사.

李澤厚 저 · 權瑚 역, 1990, 華夏美學, 동문선.

李澤厚 저 · 張泰鎮 역, 2000, 美學四講, 중문.

李澤厚 지음 · 노승현 옮김, 2005, 학설 (己卯五說), 들녘.

李澤厚 지음 · 윤수영 옮김, 1991, 美의 歷程, 동문선 문예신서 47.

李澤厚, 1992, 中國美學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푸 투안 지음 · 이옥진 옮김, 2011,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張德麟 지음 · 박상리 외 옮김, 2004, 정명도의 철학, 예문서원.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 주돈이 지음 주희 주석 · 권정안 김상해 역주, 2000, 通書解, 청계 .
- 陣來 지음 · 안재호 옮김, 1997,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 최순우, 1996,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 학교재신서 1 .
- 馮友蘭 저 · 鄭仁在 역, 1983, 中國哲學史, 형설출판사.
- 한국서원연합회, 2014, 한국의 서원문화.
- 한국서원연합회, 2014, 한국의 서원유산 1.
-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2004, 國譯景賢錄 보정재판 .
- (漢) 許慎 撰 , 2014, 說文解字, 北京聯合出版公司
- 楊軍 王成玉 譯, 2010, 程頤講周易-白話 伊川易傳, 長春出版社.
- Duncan, J.,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선 사대부 원림 미학
- 땅 읽기 相地를 중심으로 -

성종상(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INTRODUCTION

한국정원의 바탕으로서 자연

국토경관

반도 = 대륙 + 해양
3면이 바다 + 좁은 국토의 골격으로서 산/산맥
국토 2/3가 산
그 속의 생명줄로서 강/물
높고 낮은 산과 굽이치는 물
한국 국토경관미학 용어로서 곡
-구곡문화
-곡과 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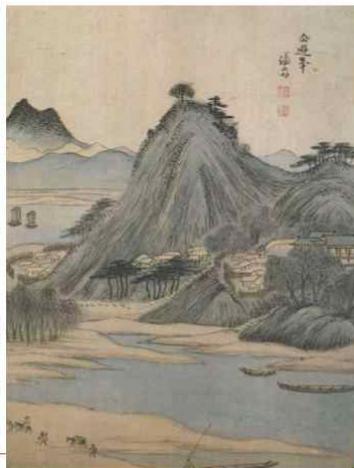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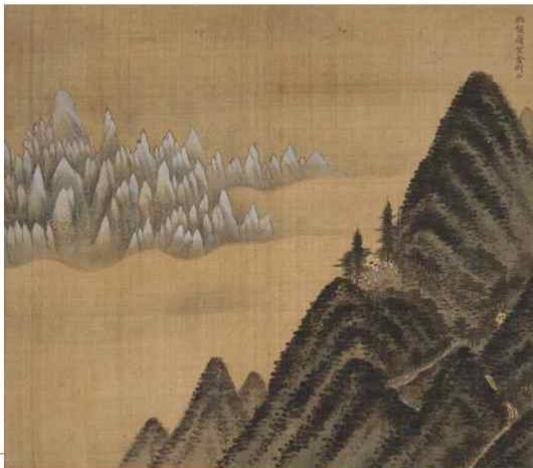


<Daedongyeo-jido(1861, Kim Jungho)>

INTRODUCTION

한국정원의 바탕으로서 자연

국토경관 - 山水 : 한국적 국토경관의 요체



<Poongak-do(1741)> <Sunyoo-bong(1741)> Sun Jung

INTRODUCTION

한국정원의 바탕으로서 자연

기후

온대기후 - 뚜렷한 4계절

변화감 · 리듬 · 생명감 & 순환 · 윤희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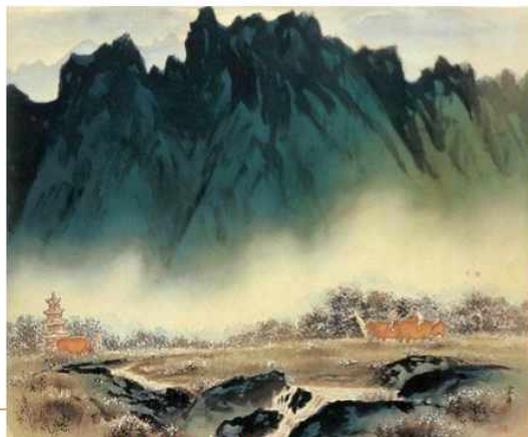
한국정원의 바탕으로서 자연

경관의 바탕으로서 자연 素景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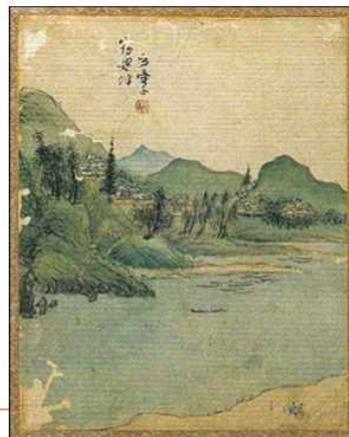
한국인의 자연관 = f (온대기후, 산수, 신앙

繪事後素 - 한국국토경관의 素素 로서 산수

그 바탕 속에 표출된 심미적 소산으로서의 한국정원



<청록산수> 김기창 1976



<노량진> 장시훈 18세기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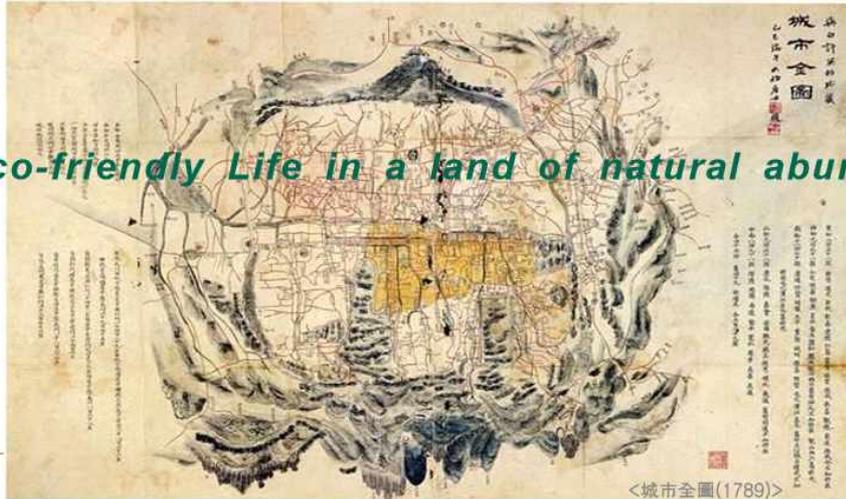
한국정원의 바탕으로서 자연

한국인의 자연관과 삶

= 풍부하고 고마운 자연 속 풍요로운 삶 지향

→ 자연과의 조화; 자연친화적 정원(정자, 구곡, 원림)

Eco-friendly Life in a land of natural abundance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

땅 읽기의 이해

땅 읽기 相地 란?

相 = 살피다. 자세히 보다. 가리다, 고르다

생김새, 어떤 대상의 모양 혹은 태도

= 擇 점치다

相地 = 땅을 살피다.

읽다 search, 고르다 select, 다듬다 shaping/labeling

Cf. 원기 園基; 기지 基地

터; 터잡기

site; site analysis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

땅 읽기의 이해

땅 읽기의 방편으로서 '유 遊'

遊 = 노닐다 = 놀다 遊 + 다니다 行

소요유(장자)에서의 '遊' = 타자에의 얽매임(累)으로부터 벗어남

정치적 책임에서 오는 걱정(憂)으로부터 떠남

동양적 산수미의 체득방식으로서 '遊'

- 집 주변 산수간에서부터 명산대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遊'

- 유산기, 유산시, 유산문학

수시로 찾아 '遊'함으로써 땅 읽기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

땅 읽기의 이해

격물치지 格物致知 '遊'

"...사물에 나아가 미루어 궁구하고 체득하여 경미한 심층까지 살피는 ..."

<고산유고>

격물의 방식으로서 '遊'

유연리 노래하다 <우음 偶吟> - 윤선도

금쇄동 산에는 꽃이 바야흐로 피고

수철바위 밑에는 우레 같은 물소리

유인의 몸이라고 어이 일마져 없으리오

대지팡이에 짚신신고 매일 소간다네

유림에서 거닐며 <유림만보 楡林晩步> - 청약옹

지팡이 짚고 사립문 나섰

시냇가 백사장 거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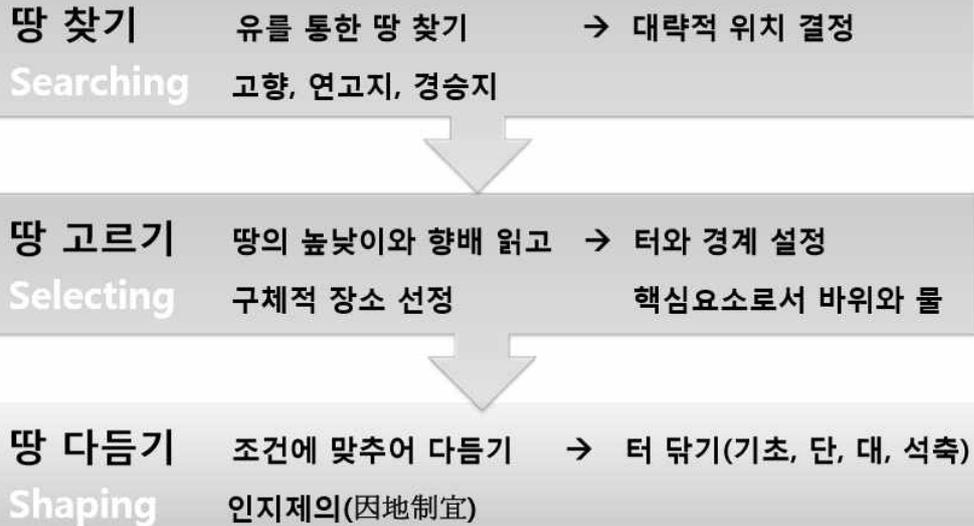
장독에 사지는 맥 풀리고

바람에 옷자락만 펄럭이네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

땅 읽기의 이해

땅 읽기의 단계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

땅 읽기의 이해

땅 읽기의 방법

'유'를 통한 답사 : 온몸을 통한 공감각적 체험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적 답사

지식과 정보의 적용 : 풍수지리, 자연과학

기억과 인문적 요소 : 연고지(고향, 선현 등)



이불해 <예장소요도>
16세기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소쇄원 瀟灑園

땅 고르기와 다듬기 인지제의 因地制宜

땅의 높낮이와 향배 고려 → 정원의 동선 및 주요 영역 설정

정원 내 주요소 위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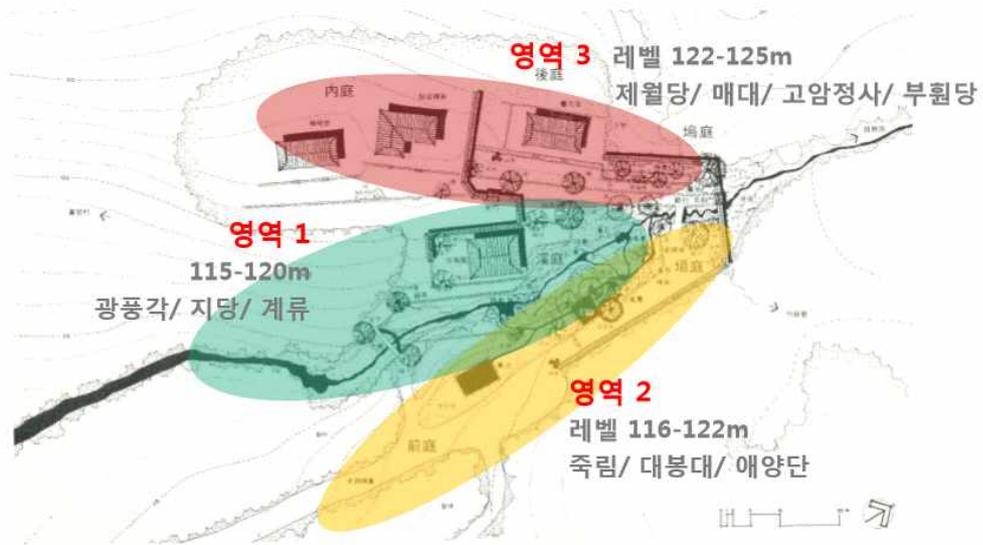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소쇄원 瀟灑園

땅 고르기와 다듬기

소쇄원 : 기존 지형을 활용한 영역 구분 - 3개의 영역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소쇄원 瀟灑園

땅 고르기와 다듬기 인지제의 因地制宜

기존 바위와 계류 도입 → 정원의 핵심요소로 활용

최소한의 단, 대; 비구 飛溝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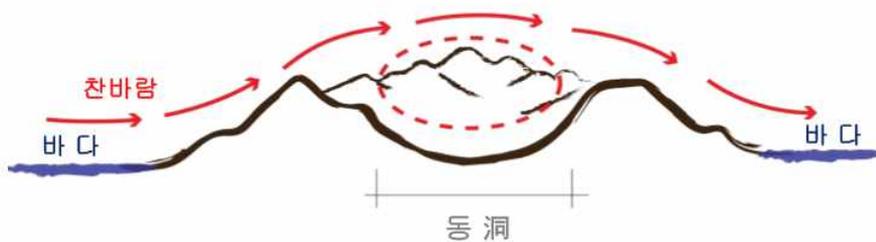
땅 찾기와 고르기

인문적 요소 : 해남 윤씨가 소유 섬; 가노 수호 거주

각별한 인연 - 하늘이 나를 기다린 곳

자연요소 : '섬중산중'의 지형; 미기후 조건

부용동의 지형과 미기후 - 섬중산중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찾기와 고르기

자연요소 : '섬중산중' 의 지형; 미기후 조건

산세와 자연경물 - 영속한 산기와 기절한 수석

좁은 입구 경로와 넓은 골짜기 洞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찾기와 고르기

가거지로서 보길도 확인/선정 위한 고산 윤선도의 상지 과정

1차 상지 : 등문에서 보이는 산세의 흐름 등 개략 파악

2차 상지 : 격자봉에서 섬의 전체 형국, 너른 골짜기(洞) 파악

3차 상지 : 안산에서 깃발로 낙서재 위치 선정

4차 상지 : 낙서재에서 안산의 엽승비보로서 동천석실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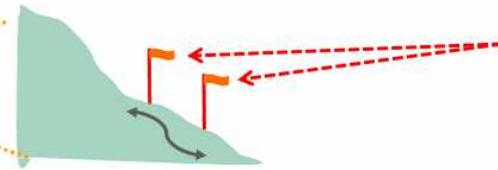
5차 상지 : 세부 장소에서 용도/의도별 조건(특히 물)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고르기와 다듬기

낙서재 : 관산점에서 “고저와 향배를 헤아려” 정확한 터 결정
북향 - 지형지세와 형국 읽기의 산물; 격자봉과 혈맥



장대 깃발을 이용한 낙서재 터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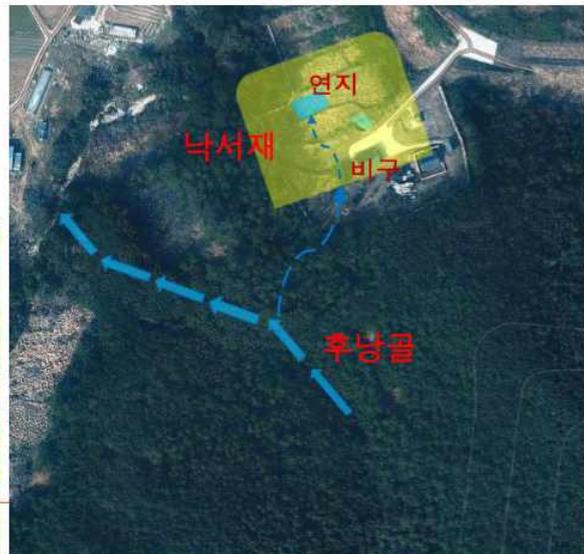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고르기와 다듬기

낙서재

바위와 물 구비 장소 선정
주변 지형과 자원 읽고 물 끌어오기
- 바위:- 소은병, 구암
- 물 : 후낭골, 비구 飛溝, 연지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고르기와 다듬기

세연정 : 2차 지류에 위치 = 하천공학, 수문학을 고려한 탁월한 입지 선정

- 폭우시 급류에 의한 침식 대비
- 용천 : 상시 수량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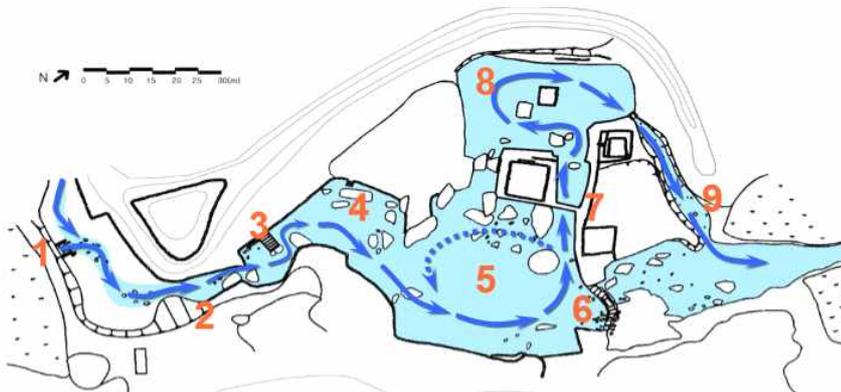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고르기와 다듬기

세연정 : S자형 수로 = 홍수시 침식 및 범람 방지 + 수면 유지 방안



- 1 샘(복류수)
- 2 S-자 수로
- 3 돌출수제
- 4 기존 바위들
- 5 계담(상지)
- 6 판석보
- 7 입수보
- 8 방지(하지)
- 9 출수부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고르기와 다듬기

세연정의 돌출수제 = 홍수시 침식 및 범람 방지 + 수면 유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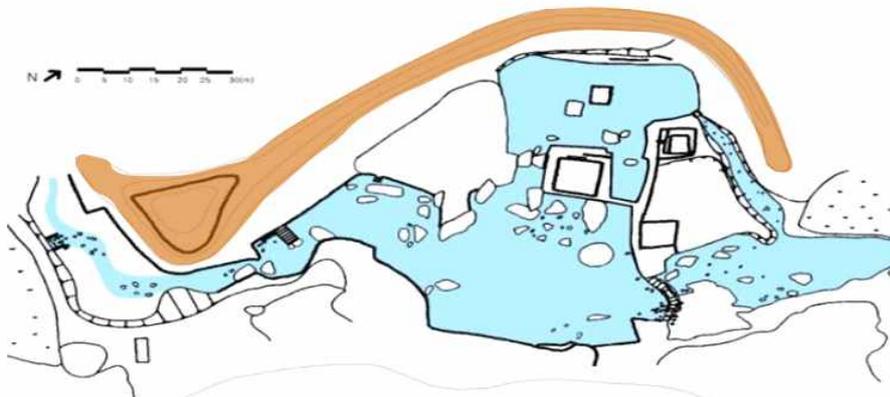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보길도 부용동 芙蓉洞

땅 고르기와 다듬기

세연정의 둔덕

= 절성토 균형 및 공간 영역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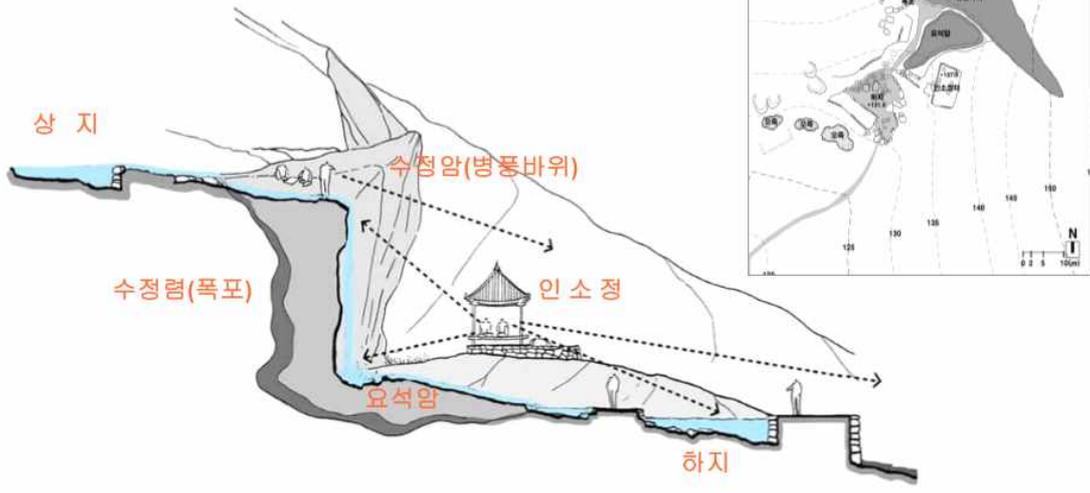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해남 수청동 水晶洞

땅 찾기와 고르기

수청동 : 바위와 물 구비 장소 선정

계곡을 통째로 막은 압도적 스케일 바위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해남 수청동 水晶洞

땅 찾기와 고르기

수청동 : 바위와 물 구비 장소 선정

우레같은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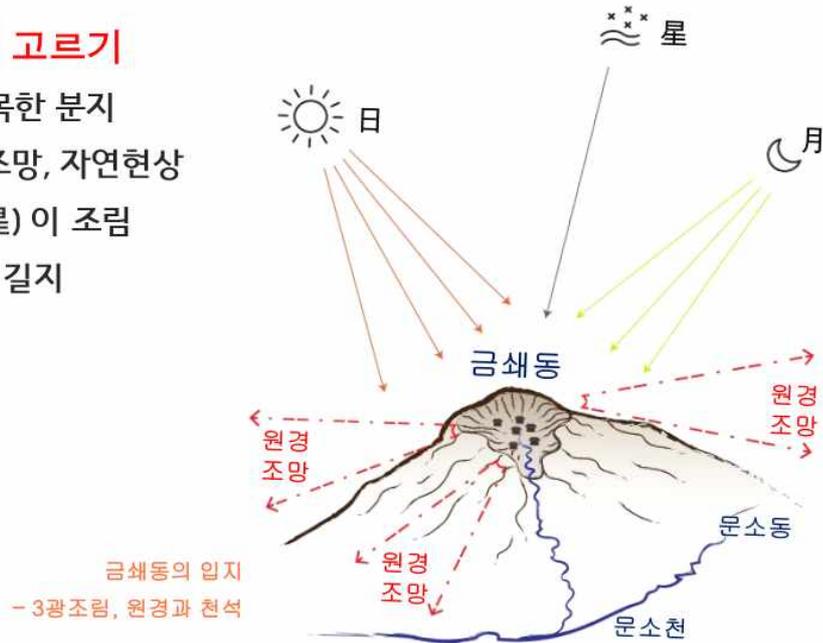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해남 금쇄동 金鎖洞

땅 찾기와 고르기

산꼭대기 오목한 분지
 → 미기후, 조망, 자연현상
 삼광(日/月/星) 이 조림
 → 풍수상의 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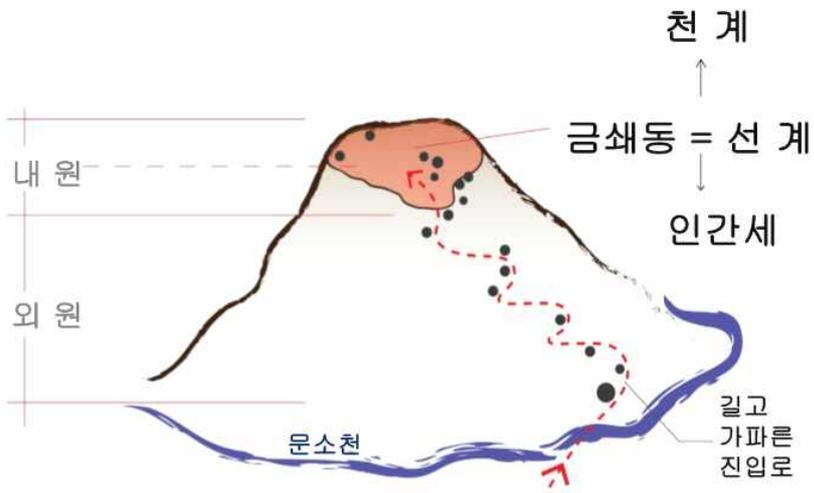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해남 금쇄동 金鎖洞

땅 찾기와 고르기

금쇄동 상지 - 수직적 공간구도 : 인간세 - 선계 - 천상계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해남 금쇄동 金鎖洞

땅 찾기와 고르기

금쇄동 : 원경(遠景)과 천석(泉石) 겸비
석천(石泉), 상연지, 하연지, 계류, 지일폭포...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해남 금쇄동 金鎖洞

땅 찾기와 고르기

금쇄동 : 원경(遠景)과 천석(泉石) 겸비
월출암, 추원, 인빈, 집선대, 난가대, 흙월, 연화...



금쇄동 인빈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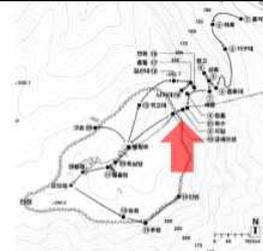
해남 금쇄동 金鎖洞

땅 찾기와 고르기 - 휘수정(揮手亭)의 입지

선계 금쇄동 진입의 최종 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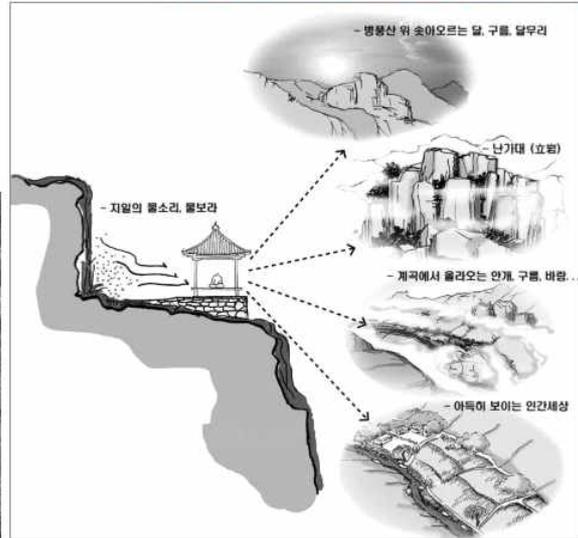
2중 단계 중간 좁은 지점

→ 인간 육체적 한계 초월 영역



휘수정의 입지 - 선계 금쇄동의 마지막 관문

금쇄동 휘수정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강진 백운동 白雲洞

땅 찾기와 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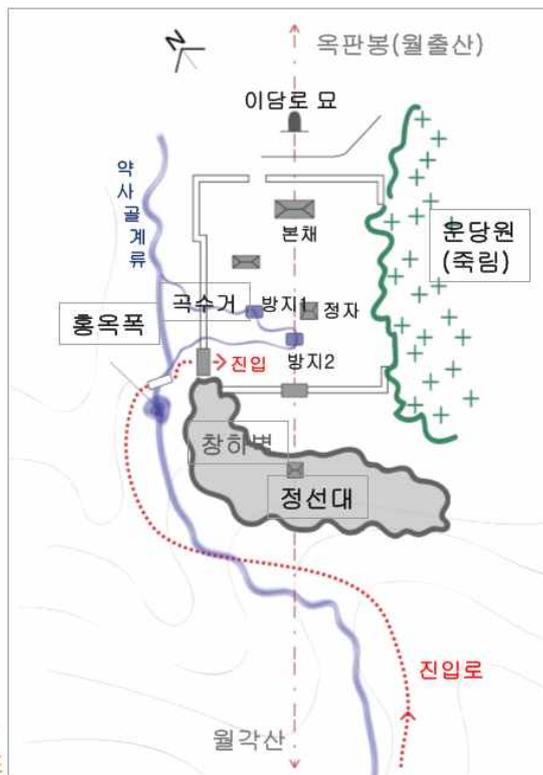
바위와 물 구비

- 창하벽(은병)
- 약사골계류, 흥옥폭, 곡수거

원경 조망

- 옥판봉(월출산)
- 월각산

백운동 정원 입지와 공간구도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원리 입지 종합 - 권역별 상지

원리 입지의 세 권역

수시 이용권 : 기존 주거처 유지한 상태로 원리 조성, 수시 이용
가까운 거리(500m 기준) 원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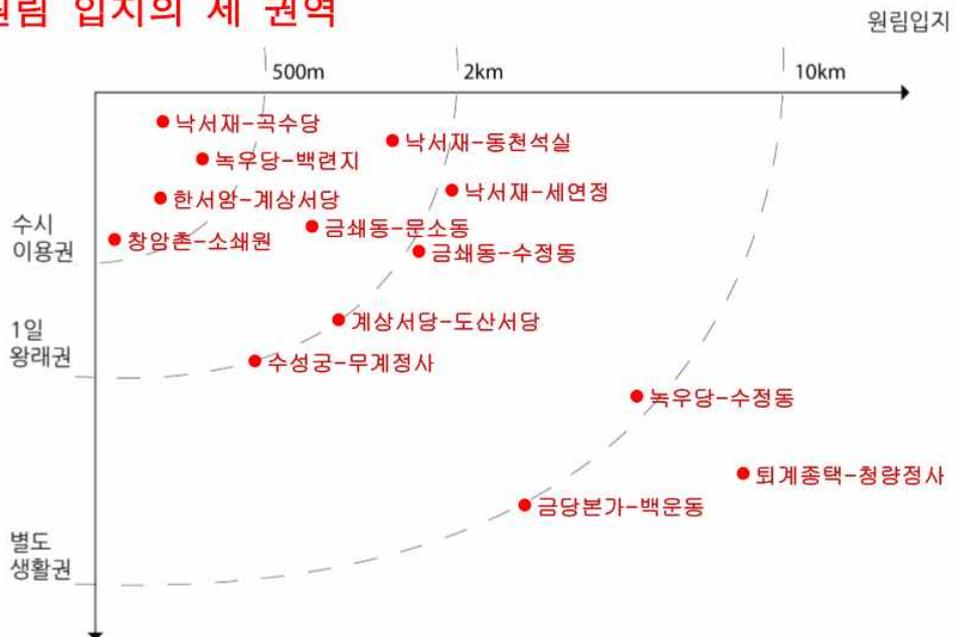
일일 이용권 : 기존 주거처 유지한 상태로 원리 조성, 당일 이용
하루 중에 오갈 수 있는 거리(2km 기준)에 조성

별도 생활권 : 기존 주거처에서 별도 거쳐 마련
1일 완래 불가, 특정일에만 완래 가능거리(10km 기준)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원리 입지 종합 - 권역별 상지

원리 입지의 세 권역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원림 입지 종합 - 권역별 상지

수시 이용권

(윤선도) 녹우당-백련지 : 거리 약 300m, 왕복 10분 이내

낙서재-곡수당 : 거리 약 200m, 왕복 5분 이내

(이 황) 한서암-계상서당 : 거리 약 250m, 왕복 5분 내외

(양산보) 창암촌 - 소쇄원 : 거리 약 200m, 왕복 5분 이내

주요 원림별 땅 읽기의 실제

원림 입지 종합 - 권역별 상지

일일 이용권

(윤선도) 낙서재-동천석실: 거리 약 1100m(산길 350), 왕복 1시간 내외

낙서재-세연정 : 거리 약 2100m, 왕복 1시간 이내

금쇄동-수정동 : 거리 약 2600m(산길 700), 왕복 약 2시간 여

금쇄동-문소동 : 거리 약 900m(산길 600m), 왕복 약 1시간

(이 황) 계상서당- 도산서당 : 거리 약 2500m(산길 1300), 왕복 약 2시간

(안평대군) 수성궁 - 무계정사: 거리 약 2000m, 왕복 1시간 이내

주요 원리별 땅 읽기의 실제

원리 입지 종합 - 권역별 상지

별도 생활권

(윤선도) 녹우당-수정동: 거리 9.6km(산길 400), 왕복 4시간 내외

(이 황) 퇴계종택-청량정사: 거리 16km(산길 1300), 왕복 약 7시간 이상

(이담로) 금당리 본가 - 백운동: 거리 10km, 왕복 4시간 이상

사대부 원리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공간 구도상의 효용

안정된 공간구도 설정 및 그로 인한 안정감

풍수상 원리에의 부합 에서 얻는 안정감

- 혈처, 수구, 안산 등지의 확보, 점거

-삼광조림의 길지

지형구조상 미기후 조절 효과

- 섬중산중(부용동)

- 분지형 산꼭대기(금쇄동)

사대부 원림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공간 구도상의 효용

세상과의 관계정리로 얻는 탈속감

세상과의 거리 두기

- 동양적 이상향의 전형적 공간구도
: 길고 찾기 어려운 진입구, 수구, 너른 골짜기(동)
- 일상과의 분리를 위한 적정 거리에 원림 입지
수직적 공간 구도로서 선계
- 금쇄동 휘수정의 심상구조 : 선계로의 마지막 관문
- 부용동 동천석실 : 2중 단애 위 선계로서

사대부 원림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공학과 미학의 만남

공학, 수문학과 공감각적 연출

안정적 수면 유지를 통한 선계 연출 효과

- 세연지 S자수로, 돌출수제와 거울효과 (옥소대의 무희)

절성토 균형으로 확보된 정원 영역감

- 세연지 언덕과 숲

2 Ponds System에 의한 다양한 수경 연출

- 세연지(계담, 방지); 곡수당(상지, 하지); 동천석실(석담, 석천, 석폭)
- 금쇄동(상연지, 하연지), 수정동(상지, 하지)

사대부 원림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비가시성의 미학

최소한의 인위와 마음으로 즐기기

인지제의 因地制宜

- 최소한의 단, 대; 비구 飛溝

“...침들은 지형에 맞추어 높낮이가 일컬지 않다...”

- 윤위 <보길도지> 곡수당편

은유와 상징에 의한 심상구조

- 석문 石門 : 탈속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위한 상징으로서
- 수정동의 수정령

사대부 원림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비가시성의 미학

최소한의 인위와 마음으로 즐기기

명명제영 (命名 題詠)

- 선계지향의 명명 : 집선대, 난가대, 흠월, 연화, 휘수(금쇄동)
동천석실, 수정암, 수정령, 요석암 등
- 유학적 덕목 명명 : 유희, 추원, 인빈; 혁희대 등
- 도교적 명명 : 소은병, 석문 등

사대부 원림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열린 관계구도와 소통

최소한의 경계물과 개방적 구도

일체의 담장 없는 정원 ; 최소한의 벽체

- 수정동, 금쇄동; 세연정, 동천석실 등
- 벽체 없이 기둥만 있는 정자

바깥 자연을 정원으로 적극 포용

- 금쇄동의 외원 : 입구 기슭에서부터 휘수정까지
- 소쇄원의 외원 : 뒷산 웅정봉으로 연결
- 부용동 : 최소한 지점 만을 조성한 후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즐김

물적 자원을 넘어 선계, 천계와의 소통 지향

- 명명제영에 의하여
- 다양한 공감각적 연출을 통해

사대부 원림 땅 읽기에 드러난 생태미학

열린 관계구도와 소통

물적 자원을 넘어 선계, 천계와의 소통 지향

명명제영을 통해

- 수정동, 금쇄동; 세연정, 동천석실 등
- 벽체 없이 기둥만 있는 정자

다양한 공감각적 연출 효과를 통해

- 휘수정의 폭포소리
- 수정동의 폭포 수정령
- 세연정의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
- 세연지 수면에 비치는 옥소대의 무희

옥소대



마무리를 대신하여

한국정원이 산으로 간 까닭은?

누구든 고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라면 마땅히 인간세상을 벗어나 산이나 물가에 살아야.... (유만주 1755-1788)



<삼승정>
겸재 정선 18C

마무리를 대신하여

한국정원이 산으로 간 까닭은?

누구든 고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라면 마땅히 인간세상을 벗어나 산이나 물가에 살아야.... (유만주 1755-1788)



<삼승조망>
겸재 정선 18C

禪佛敎와 山水, 그리고 風水

- 마음과 자연의 만남의 미학 -

최원석(경상대학교 명산문화연구센터)

1. 들어가는 말

한자문화권에서 山水라는 말의 함의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어휘로도 山과 水가 ‘山水’라는 한 단어로 일체화되어 있다. 동아시아에서 산과 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산수미학은 자연(산수), 사람(마음), 문화(예술)가 연계, 통합되어 있는 속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마음과 자연이 만나서 빚어낸 아름다움의 창출이 동아시아 자연미학의 본령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수는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압도적인 심미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산수미의 탐구에 있어서 미술의 산수화나 문학의 산수시 창작 전통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수미학’이라는 학문적 분야와 위상은 아직까지 정교 미학분야에서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듯하다. 서구의 학문 분야에서 자연미학, 환경미학, 경관미학, 생태미학은 있어도 산수미학은 찾기 어렵다. 이는 서구의 미학대상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산수가 가지는 미적 가치의 지역적인 차이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서구와 동아시아에서 미학적 위상과 가치를 지닌 산수의 함의가 다르듯이, 같은 동아시아라고 하더라도 한중일에서 나타나는 지형조건으로서의 산수는 같지 않고, 산수가 차지하는 각 나라의 문화역사적 비중도 다르다. 한국에서 ‘산수’의 미학적 조합을 이루는 지형적 조건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두드러진다. 땅을 산수로 등치시켜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 산수미학의 형식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연미학에서 산수미학이 차지하는 논의의 중요성은 일차적으로 여기에 있다.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산수는 단지 자연 그대로의 산수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고 느끼는 산수의 심미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식과 관점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산수미학에서 산수는 사람, 사회 및 문화, 역사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미적 산수는 동시에 사회문화역사적인 맥락이 반영된 산수미학이 된다. 산수미학을 구성하는 요소는 중요한 논제가 되는 이유이다. 최근의 서구 환경미학도 자연, 인간, 문화라는 통합적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띤다.⁶⁷⁾

따라서 사상적 시선에 투영된 산수의 모습도 차별적이다. 선불교, 유교, 풍수의 프리즘으로 보는 산수관과 산수인식, 산수미학은 공통분모도 있지만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선불교의 山水成佛論, 유교의 山水比德論, 풍수의 山川裨補論은 각 사상을 반영하는 논제가 될 수 있다.

산수미학을 연구하는 주 학문 분야는 미학과 예술철학일 것이다. 지리학 분야에서도 자연에 대한 심미적 시선과 연구가 근대에 대두하여 논의가 전개되었고, 지리학적인 경관미학의 연구 성과가 자연미학 및 환경미학 연구사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미학의 카테고리로서 보자면 지리학계의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67) 강미정 외, 2007,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서 산수가 차지하는 지형적, 문화역사적, 예술적 비중에 비추어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도 산수미학의 연구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산수미학의 자연미학적 위상과 과제

미국의 인류학자 Ellen Dissanayake는 『미학적 인간』(Homo Aestheticus)이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예술은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인간 본성의 한 요소”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⁶⁸⁾, 특히 동아시아에서 산수미학은 미학사상과 미학전통의 큰 줄기가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서구미학에서 자연미학은 근대 학문의 여정에서 생태미학, 자연생태미학, 경관미학, 환경미학 등 여러 갈래의 스펙트럼으로 분기되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자연미학 혹은 환경미학이 흥기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는,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 및 환경사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미적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 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구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도 기인한다.⁶⁹⁾

1960년대에 등장한 학문적 신생 분야로서 환경미학의 접근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미학(철학) 분야의 환경미학, 지리학 및 도시·지역계획학 분야의 경관미학(landscape aesthetics), 환경심리학 분야의 계량적 환경미학이 그것이다.

지리학 분야의 경관미학에서 영국의 지리학자 Jay Appleton(1919-2015)은 ‘조망-은신이론’(prospect-refuge theory)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이론에서 그는 경관에 대한 미적 반응은 선천적인 것이며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논증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도시·지역계획학자인 Steven C. Bourassa는 경관의 미적 경험은 생물학적·문화적·개인적 모드의 틀로 구성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⁷⁰⁾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산수미학은 경관의 심미적 경험을 구성함에 있어 통합적 연계성을 띤다.

산수에 대한 심미적 친연성을 담보한 동아시아 사상은, 산수를 보는 사람의 시선 및 관계에 따라 몇 가지의 지리적 방향으로 도출된다. 하나는 ‘승고한 산수’로서, 禪佛敎의 ‘山水成佛論’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산수’로서, 풍수사상의 산수론은 이에 바탕하고 있다. “산등성이와 물길은 땅의 근골과 혈맥(山脊水波地面之筋骨血脈)”이라고 설파한 古山子 김정호의 표현도 유기체적 산수의 대표적인 언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과 상보하는 산수’로서, 道說의 ‘山川裨補說’이 있다. ‘사람과 합일하는 산수’라는 명제는 유교를 위시한 동아시아사상의 중요한 문화전통이기도 하다.⁷¹⁾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지형환경에서 나타나는 산수의 위상은 남다른다고 평가된다. 한국에서 ‘山水(山川)’는 ‘땅(地)’ 혹은 ‘자연(Nature)’과 등치되는 개념이다. 우리 문화 형성의 터전으로서의 자연환경으로는 거의 단일적으로 산수 그것이였으며, ‘山水錯綜’으로 일컬을 수 있다.⁷²⁾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자연미는 산수미이며, 자연미학은 산수미학에 다름 아니다.

68) Ellen Dissanayake, 1995, *Homo Aestheticus: Where Art Comes from and Wh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69) 김광명, 1995, “서구의 자연관에 대한 반성과 환경미학의 모색”, 예술문화연구 5, 25.

70) 배정한, 1996, “환경미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60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연구 6, 105-107.

71) 李澤厚는 중국의 미학사상 특성을 “자연의 인간화, 인간의 자연화”로 요약한 바 있고(李澤厚, 1988, 華夏美學, 香港: 三聯書店), 이동환은 한국의 미학사상 특성을 “順自然과 感通”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이동환, 1997, “한국미학사상의 탐구(1)”, 민족문화연구 30, 46-65). 최원석은 한국 산관념의 문화전통을 “산의 인간화”라고 요약했다(최원석,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한길사.).

이렇듯 '산수'는 동아시아에서 오래고 일반적인 심미적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학('산수 미학')으로서는 학문적 신생 분야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된다. 산수미학은 산수를 미학적 대상으로 삼고 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근년에 학문분야로 등장한 중국의 산수미학은 산수시 및 산수시론, 산수화 및 산수화론, 원림예술을 포괄적으로 다룬다.⁷³⁾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산수미학 관련 연구성과도 희소하다.⁷⁴⁾

이에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심미적 산수인식과 산수미학을 구성하는 역사적 시선과 논제에 대해 우선적인 조명이 필요한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시선의 측면에서, 숭고한 산수, 유기체적 생명으로서의 산수, 인간과의 상보적 관계성을 지니는 산수, 사람과 합일하는 존재로서의 산수 등의 시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논제에 대해서는 선불교와 풍수에서 드러나는 특정 인물의 저술 및 언설과 관련지어, '道元의 산수성불론'과 '道詵의 산천비보설'을 중심으로 산수미학을 논의하고자 한다.

3. 道元의 산수성불설

동아시아 불교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은 특히 강조된다.⁷⁵⁾ 이러한 친연성으로 말미암아 '불교생태학(Buddhist Ecology)' 분야의 연구성과를 이루었고, 그 중 선불교 사상의 친환경성은 '禪生態學'(Seon Ecology)으로도 호칭되고 있다.⁷⁶⁾ 동아시아의 자연관과 자연미학적 문화 전통은 선불교의 마음에 투영되어 그 만남의 미학을 펼쳐놓았다.

선불교의 산수미학 분야에서 도출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논제가 道元(1200-1253)의 山水成佛論이다. 이 논의는 그의 저술인 『山水經』에 집약되어 있다. 이 글에는 중국과 일본 선불교의 시선으로 본 산수의 實相과 자연미학이 잘 드러났다.

선불교의 산수성불론 혹은 국토성불론 인식은 이미 중국에서 7세기부터 나타난다. “초목국토가 모두 부처를 이룬다(草木國土悉皆成佛)”는 法藏(643-712)의 견해가 그것이다. 초목 등 無情의 자연물에게도 불성이 두루 있어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히는 학설은 이미 6세기에 중국에서 시작된 바 있다. 이후에도 澄觀(?~839)과, 도신, 흥인, 혜충, 회해 등의 선사상에서 ‘無情成佛說’이 밝혀지고 있어 이러한 무정물의 성불설은 중국불교사상이 주류를 차지한다고 평가되고도 있다.⁷⁷⁾

그런데 道元의 『山水經』은 저술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산수’라는 언명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서두에 산수에 대한 저자의 깨달음을 총론 형식으로 간략히 언급하였다. “세간에서 산을 볼 때와 깨달은 경지에서 산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道元의 첫마디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지금의 산수는 옛 부처의 도가 現성한 것이다.”

이어서 각론에 해당하는 첫째 부분으로서 산과 수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산의 가치와 功德, 산의 實相과 그것을 보는 시선과 방법, 그리고 물의 가치와 功德, 물의 實相과 그것을 보는 시선과 방법이 그것이다. 각론에 해당하는 둘째 부분은 산과 수 각각과 사람, 특히 聖賢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논하였다. “산은 큰 성현(大聖)이 머무는 곳”으로 “聖賢은

72) 이동환, 1999, “한국 미학사상의 탐구2”, 민족문화연구 32, 14-16.

73) 이종호, 2007, “퇴계 이황의 자연미 수용과 산수미학”, 퇴계학과 유교문화 41, 231.

74) 관련 연구는 진종헌, 2016, “제주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과 오름 ‘경관’의 형성”, 문화역사지리 28(4).

75) 피터 하비 저, 허남결 역, 2010, 불교윤리학 입문, 도서출판 씨아이알, 287.

76) 서재영, 2004, “선의 생태철학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33-49.

77) 김인덕, 1985, “길장의 초목성불론”, 불교학보 5, 22.

산을 집으로 여겼고, 몸과 마음으로 여겼다”고 했다. 그런데 그 “성현으로 말미암아 산은 現成한다”고 산과 성현의 상보적 관계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뿐 만 아니라 “성현이 산에 살면 그 산에 있는 樹石은 鬱茂하게 되며, 동물은 靈秀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성현의 덕을 입기 때문”이라고 산의 초목생물이라는 생태계가 산에 사는 성현으로 말미암아 입는 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물과 聖賢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마무리로는 산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과 그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산수와 성현의 만남과 하나됨으로 다음과 같이 글을 끝맺었다. “산을 參究해야 한다. 산을 參窮하면 산을 공부하게 된다. 그럴 때 산수는 그 자체로 賢과 聖이 된다.”

일본 조종종의 開祖로 알려지는 道元은 1224년에 중국 송나라로 유학하여 天童山 景德寺에서 天童如淨(1163-1228)에게 깨달음의 禪旨를 전수받았다. 이윽고 1227년에 귀국하여 필생의 『正法眼藏』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山水經』은 1240년에 興聖寺에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다.

道元이 맥을 이은 조동종은 중국 선종의 한 일파로서 洞山良价(807-869)와 제자 曹山本寂(840-901)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 특색은 산천초목도 설법한다는 無情說法이며⁷⁸⁾과 산천초목의 法身論이다. 예컨대 洞山은, “청정한 푸른 대나무가 모두 진여(靑靑翠竹盡是真如)”라고 초목의 법신을 인정하였던 것이다.⁷⁹⁾ 물론 중국 선종의 이러한 무정불성의 견해는 『華嚴經』 등 대승경전에 그 단초가 드러나는 바. “보살이 도량에 앉을 때는 일체 세계의 초목과 숲, 모든 무정물들이 모두 몸을 굽혀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도량을 향한다. 이것이 네 번째 미증유한 일이다.”⁸⁰⁾라고 『화엄경』은 적고 있는 것이다.

4. 道說의 산천비보설

도선(827-898)은 신라 왕조가 몰락하고 고려가 건국하는 태동기에 불교와 풍수라는 두 사상을 결합하여 산천비보설이라는 새로운 사회사상을 창안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한 전환기의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불교와 풍수의 만남에 있어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도선의 산천비보설은 사탑비보설로도 흔히 알려져 있다. 산천비보설은 비보하는 대상(산천)을, 사탑비보설은 비보하는 수단(사탑)을 지칭한 접두사가 붙어 형성된 용어이다. 고려시대에 비보라는 말은 산천비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⁸¹⁾, 비보의 문헌적 용례는 『고려사』와 조선 왕조실록 등 고려 및 조선시대 관련 문헌에 다수 나타난다. 산천비보의 개념에 대해 「고려국사도선전」에서, “사람이 만약 병이 들어 위급할 경우 곧장 혈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병이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병도 역시 그러하니 절을 짓거나 불상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부도를 세우면 이것은 사람이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과 같은지라 비보라고 한다.”고 언명하였다.⁸²⁾ 산천비보는 최씨 무신정권 때 국토정책으로 시행 되기도 했다. 『고려사』에, “神宗 원년(1198)에 幸樞 및 重房·崔忠獻 등이 術士를 모아놓고, 나라 안의 산천의 보호를 받아 國基를 연장할 것을 의논하고 마침내 山川裨補都監을 설치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78) 『시공불교사전』, 2003, 시공사

79) 『祖堂集』 6卷(서재영, 2004, “선의 생태철학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43쪽에서 재인용)

80) 『大方廣佛華嚴經』 59卷(서재영, 2004, “선의 생태철학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43쪽에서 재인용)

81) 『高麗史』 卷 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成宗實錄』 3年 3月 10日. 16年 1月 5日.

82) 『조선사찰사료』 하, 「고려국사도선전」.

산천비보설이라는 개념은 도선의 저술에서 유래되지는 않고, 선불교와 풍수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으로 실천된 이념 혹은 담론으로서 일종의 역사적 구성체로서의 개념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산천비보설은 선불교와 풍수가 결합한 산수미학으로서의 사상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산수성불설이 ‘숭고한 산수’라는 인식의 지평이 있다면, 산천비보설은 ‘유기체적 생명으로서의 산수’가 바탕이 되어 ‘인간과의 상보적 관계성을 지니는 산수’라는 인식의 지평이 있다. 산천비보설의 가치는 내용적으로, 마음가치(禪)와 수단(佛敎)의 보완을 통한 자연가치와의 통합적 증진이라고 할 만하며, 사상적으로, 불교사상과의 융합을 통한 기존 풍수 패러다임(地決定論)의 중도적 균형 달성으로 평가된다. 관계적으로는, 산수와 사람의 相補相生的 관계 설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비보설이 갖는 사상적 의미를 풍수설과 대비해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에서 풍수는 운명론(Fatalism)의 지리적 변형이자 결정론(Determinism)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운명론 혹은 숙명론은 세상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언설이다.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나타나는 천명론은 운명론의 일종이라고 할 만하다. 중국에서 천명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사람에 의한 인사의 덕(德) 혹은 자유의지(Free Will)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의한 풍수의 지기를 매개로 한 천명의 극복이었다. 이러한 풍수의 改天命 사상은 하늘이 정한 운명에 규정되는 順天的 사상성에서 벗어나 “신의 공력을 빼앗고 천명을 바꾼다(奪神功 改天命, 『金囊經』)”는 변혁적 사상성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풍수를 수단으로 계급과 신분상승을 추동하는 이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개명론은 풍수(땅)의 결정적인 영향과 법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운명론의 카테고리 벗어나지 못하였다. 미완의 탈운명론이자 결정론인 셈이다. 그런데 비보론에 이르면 운명론과 결정론을 탈피하는 즈음에 이른다.

또한, 결정론은 세상만사가 이미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때에 결정되어 있다는 사상이다. 그 반대가 자유론(libertarianism) 혹은 자유의지론이다. 자유론은 자유의지를 전제한다. 결정론의 지리적 표출은 서양에서 환경결정론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풍수로 나타났다. 서구에서 환경결정론은 정지 및 진행 결정론(Stop-and-Go Determinism), 환경확률론(Probablism), 환경가능론(Posibilism)으로 지양, 전개되었고, 전근대 한국에서 풍수론은 비보론으로 지양,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보설은 풍수의 산·수·방위에 사람, 문화요소를 더하여 다섯 가지의 상호조합으로 구성된다. 기존 (중국)풍수의 산·수·방위로 대별되는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보하는 주체로서 사람 그리고 신앙, 상징, 조경, 놀이 등의 문화적 요소가 복합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시계열적인 풍수연구사의 도상에서 볼 때, 한국풍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무라야마 지준의 산·수·방위자연라는 1차적 구성에서 최창조의 산·수·방위자연/사람이라는 2차적 상대 구성에 이어, 산·수·방위자연/사람/문화로 전개되는 3차의 복합 구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보사상의 풍수사상적 의의는 풍수적 입지관과 태도의 인문적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보사상의 인간관은 ‘자연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인자(agent)로서의 인간’이라는 적극적·능동적 의미를 부여한 지리적 태도다. 풍수적 입지론의 자연편향적 추구 경향을 상보적인 잣대로 가늠하여 자연-인간의 조화적 상태로 조정하고 인간의 문화와 상징요소를 자연요소와 등가치적으로 포함한 풍수사상의 새로운 전환이다. 따라서 비보론은 기존에 풍수적 가치와 태도가 지향하는 자연의존적 무게중심을 인간주체적으로 조정하는 넓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인간이 주체가 된 풍수적인 자연-인간관계의 설정방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보라는

사상과 지식체계는 기존 풍수의 공간사상이 지녔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초한 공간관계를 제시해줌으로써 기술과 문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부합할 수 있는 진보된 지리사상이자 실천형태로서도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山水成佛說	山川裨補說
인물道元	道詵
시기	-13C(가마쿠라鎌倉시대)	9C(나말여초)-
저술	山水經	不傳
개념의 성격	선불교의 숭고한 산수관	역사적 구성체-선불교와 풍수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으로 실천된 이념 (담론)
산 지형의 배경 인식	神山, 聖山 (Sacred Mountains)	인간적인 산 (Humanistic Mountains)
산수미학사상의 정체성	禪佛敎의 산수미학	선불교와 풍수가 결합된 산수미학
사람의 역할	聖賢과 산수의 일체화	산수를 보완하는 사람의 역할 중시
산수-사람 관계	산수 본래의 자연가치 극대화 聖賢의 역할 중시	산수와 사람의 相補와 大同
방법	覺性	상징적(寺·塔 등), 물질적 양식
현대적 의미	환경인식(보존)	환경관리(보전)

5. 선불교와 풍수의 만남

선불교와 풍수의 만남으로 빚어진 ‘자연미학’ 혹은 ‘산천미학’은, 옛 가람의 입지와 배치, 그리고 건축과 조경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대다수 명산고찰은 풍수의 명당에 터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람의 배치와 건축 및 조경 또한 풍수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불교와 풍수가 결합하여 형성된 담론인 도선의 사탑 비보설은 고려시대를 걸쳐 사찰입지 및 사원경영의 원리로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시대에 민간에서는 불교와 풍수의 접합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秘訣書에서 도선, 원효, 의상, 무학, 서산대사 등의 고승이 등장하고, 설화나 민담에서 많은 스님들이 풍수를 잘 알아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선불교와 풍수의 만남’이라는 거시적인 명제는 달리 표현하면 불교의 ‘마음 가치’와 풍수의 ‘자연 가치’가 만나 빚어진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가치를 밝혔던 불교사상과 자연 가치를 해석한 풍수사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마음과 자연의 만남’이라는 미학을 우리 국토공간 속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선불교와 풍수의 만남을 역사상에서 살펴보면, 문헌상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육조 혜능(638~713)과 마조 도일(709~788) 법맥의 선찰 입지에서 풍수가 개입되어 있다. 특히 마조 법맥의 사찰이 집중되어 있는 강서 지방에는 당시 풍수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다.⁸³⁾ 당대의 승려인 一行(673~727), 浮屠泓(또는 泓師)은 유명한 풍수사로도 알려져 있

83) 강서 지방의 선종 사찰인 마조 도일의 우민사.보봉사, 서당 지장의 보화사, 백장 회해의 백장사, 황벽 회운의 황벽사, 운거 도응의 진여사, 조산 본적의 조산사, 소산 광인의 소산사 등이 풍수적인 입지

며, 사마두타는 강서 지방의 유명 풍수사로서 백장 회해 및 운거 도응과 풍수를 논의하였다.

중국의 사정이 이러하니 중국의 선종을 받아들인 신라 말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흔히 구산선문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선종사찰들의 입지는 대부분 풍수적인 입지를 하고 있다. 이는 전래의 사찰 입지 관념도 있었겠지만 구산선문을 개창한 조사들 대부분이 강서지방의 마조선 법맥을 이었다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가 된다. 지리산의 실상사를 개창한 흥적, 가지산 보림사의 도의, 동리산 태안사의 혜철은 서당 지장의 법을 받아 왔는데, 서당 지장은 당시 강서지방의 보화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굴산사를 개창한 범일, 성주사의 무염, 봉림사의 현옥, 흥녕사의 도운 역시 모두 마조 계통의 법을 이은 선사들이다. 이들 사찰을 답사해본 결과 모두 풍수적인 입지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상으로 보아도 최치원의 「대송복사비문」에 의하면, 798년에 곡사가 풍수적으로 명당지에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아무리 늦어도 신라 말에는 이미 사찰 입지에 풍수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는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했던 승려가 중국의 사찰 풍수를 도입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풍수사를 겸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이 후대에 들어서는 地理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양성하였으며, 전문풍수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불교와 풍수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한국풍수설의 시조가 신라 말의 도선이었고, 고려조에서도 국가의 중요한 입지결정에 승려가 風水師로 활약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도선의 국토사상 및 공간이론은 비보설로 요약되는데, 그는 절과 탑이라는 불교적인 수단을 통해 풍수적인 비보를 꾀하는 소위 비보사탑설을 실현한 인물로 역사에 알려져 있다. 이 비보설은 고려조 오백여 년 동안 사찰의 입지 및 배치 원리로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의 인물사에서 불교와 풍수의 만남은 신라 하대 구산선문의 선승들에서 비롯하여 도선이라는 역사적 인물에서 정점을 이루고, 한국의 문화사와 사상사에 독특한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와 고려 말의 태고 보우(1301~1382)에 이어 조선 초기의 무학 자초(1327~1405)에게 계승된다.

한국에서 불교와 풍수의 만남과 그 영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구분	시대	부문	영향
성립기	신라 하대 ~고려 초	선종과 풍수	선종의 유입으로 인한 풍수와의 교섭
		사회사상	비보설의 사회, 공간적 이데올로기 형성
		사찰 입지 및 택지법	사찰의 풍수적 택지 및 입지
흥성기	고려	국토 계획	비보사찰의 배치 혹은 국토비보
		사.탑 양식	비보사찰, 비보탑 생성
		신앙사상	지력사상과 불력신앙의 결합
		의례	지리연기비보의 실행
쇠퇴기	조선	전문가	풍수전문 승려집단의 형성 및 관직부여
		민간 문학	풍수승 관련 설화 및 비기류 형성

를 하고 있음을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조가 직접 자리 잡아 입적지로 삼은 석문산 보봉사는 ‘아홉 마리의 용이 모여드는(九龍聚會) 터’라고 사찰에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6. 요약 및 맺음말

이 글은 선불교와 풍수의 산수미학 논의를 道元의 山水成佛論과 道誥의 山川裨補說을 논제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사상의 활용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선불교와 풍수의 역사적 만남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한국의 문화에서 풍수의 자연과 불교의 마음은 한자리에서 무르녹아 새로운 아름다움을 빚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수와 불교는 ‘자연과 마음의 만남의 미학’이다. 한국인에게서 자연과 마음은 간격 없이 넘나들어 하나가 된다. 풍수의 자연은 다름 아닌 마음이고 불교의 마음은 다름 아닌 자연이다 우리는 마음이 편하면 어디라도 명당이라고 하고 마음을 깨치면 어디든 극락정토라고 한다. 사람과 자연은 한자리에 있다.

풍수와 불교, 풍수와 유교는 마치 양팔저울처럼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도우며 조화롭게 운용되었다. 땅의 여하에 따라 인사[人事]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풍수적 인식들과 지리결정론적인 사유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어디라도 정도일 수 있고 정도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선불교적 인식들과 유심주의적 사유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풍수는 유교라는 인문사상과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섞이면서 사람의 역할을 중시하는 실천적인 전통을 견지할 수 있었다. 천여 년 동안 이 땅에서 불교의 마음과 유교의 사람은 풍수의 자연과 만나 독특한 한국의 풍수미학을 빚어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과 자연의 만남의 미학’이라고도 정의한다.

한국에서 불교의 마음과 풍수의 자연이 만나서 꽃피운 사상과 문화전통의 흐름은 도도한 물줄기를 이루어, 국토공간의 곳곳마다 큰 자취를 남기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오름미학의 형성 -

진종헌(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배경)

1970년대 이후 제주경관의 변화: 내셔널 담론과 실천의 작용

- ㉠)국립공원화: 자연과 인간의 분리
 - 환경보전
 - 상산방목문화의 소멸
- ㉡)녹화사업: 오름 경관의 변화
 - 화입/벌목의 금지
- ㉢)국토개발: 중산간지대의 개발
 - 공동목장의 해체: 토지에서 주민을 분리
- 결과
 - 자연환경-주민-생업(목축/농경)'을 잇는 생태적 순환고리의 해체
 - '육지' '發' '국토개발-보전'의 내셔널 담론 속으로 로컬생태 담론/실천이 포섭/용해됨: 개발/보전의 이분법은 지리적 분절로
 - 외부에서 부과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통해 고정된 이미지 생산

1960~70s 자연보호(自然保護)와 관광개발

< 1965. 04. 12 > 경향신문 - 이동

맥스트 보기

濟州道(제주도)를 國際觀光地(국제관광지)로
 特殊位置(특수위치) 自然(자연)관광利用(이용)
 開發計劃(개발계획)을 編制中(편제중) 소요外資(외자) 1,200萬佛計上(만불계상)

該府(정부)는 濟州道(제주도)에 국제적규모의 유흥시설을 설치, 濟州道(제주도) 일원을 국제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濟州國際觀光地開發計劃(제주국제관광지개발)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濟州道(제주도)의 특수한 위치와 자연환경, 고유민속들이 울,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갖춘 이계혁의 대강은文(通部(교통부)가 작성, 建設部(건설부)에서 濟州道(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産業廳(산업청)로서의 개발보다도 관광지로서의 개발에 중점을 둔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오는 196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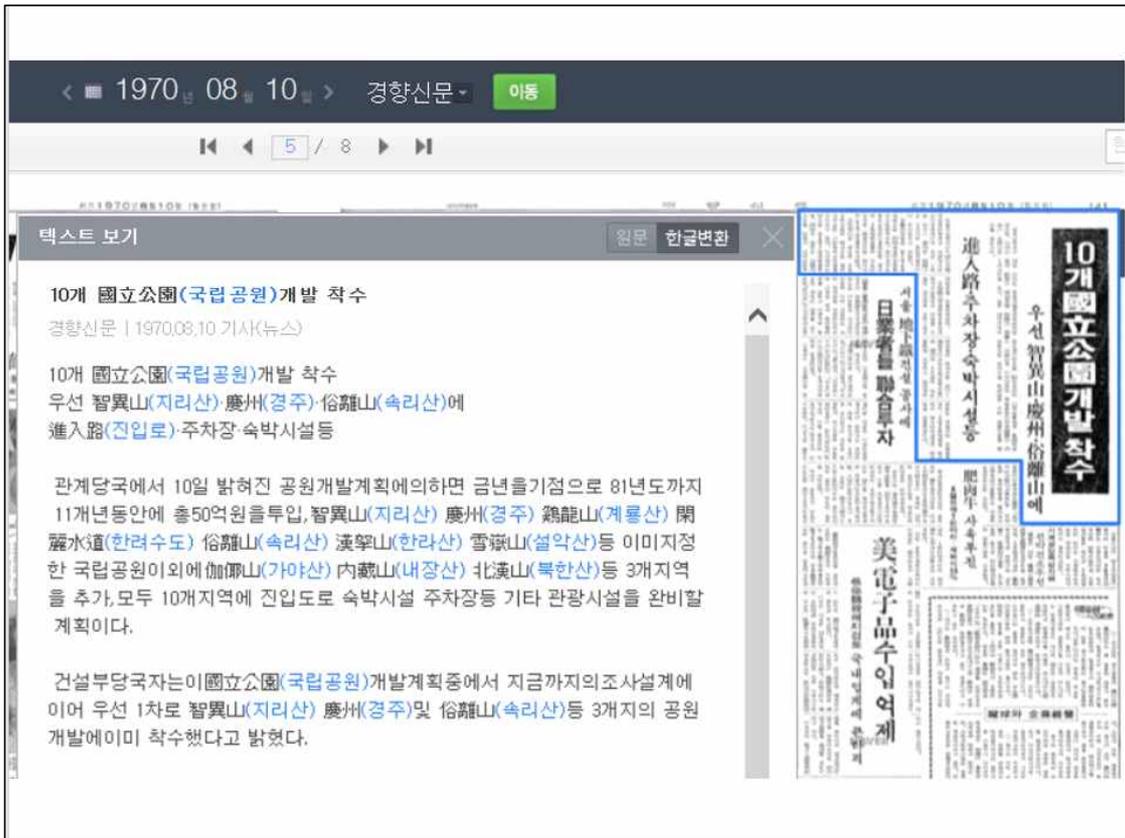
濟州道(제주도)전역중 특히 西歸浦(서귀포), 漢拿山(한라산), 濟州(제주) 및 우도(우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며 漢拿山(한라산) 일원은 국립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濟州道(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외국인 1천만 명을 포함 연 12만 명으로 예상, 1천8백만 「달러」의 외화외 6억 6천만 원의 원화를 획득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의 소요外資(외화)를 1천2백만 「달러」로 계상하고 있는 정부는 특히 在日(재일)교포의 재산을 반환하는데 중점적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電源(전

濟州道를 國際觀光地로
 特殊位置 自然環境利用
 開發計劃 1,200萬佛計上

行政力介入 제한

의結核劑 / 에속실



1970s~80s 제주관광과 경관재현

- 여행안내책자의 경관이미지 분석
- ㉠ 瀛州十景의 재구성
 -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 ㉡ 20세기 지질학적 경관의 발견
 - 특정지점 중심의 지형, 지질학적 자연경관위주의 관광
 - 폭포, 주상절리, 자연동굴, 한라산 등
- ㉢ 문화경관
 - 돌하르방
 - 민속마을(성읍)
 - 유채꽃, 감귤밭
 - 제주민의 삶과 유리된 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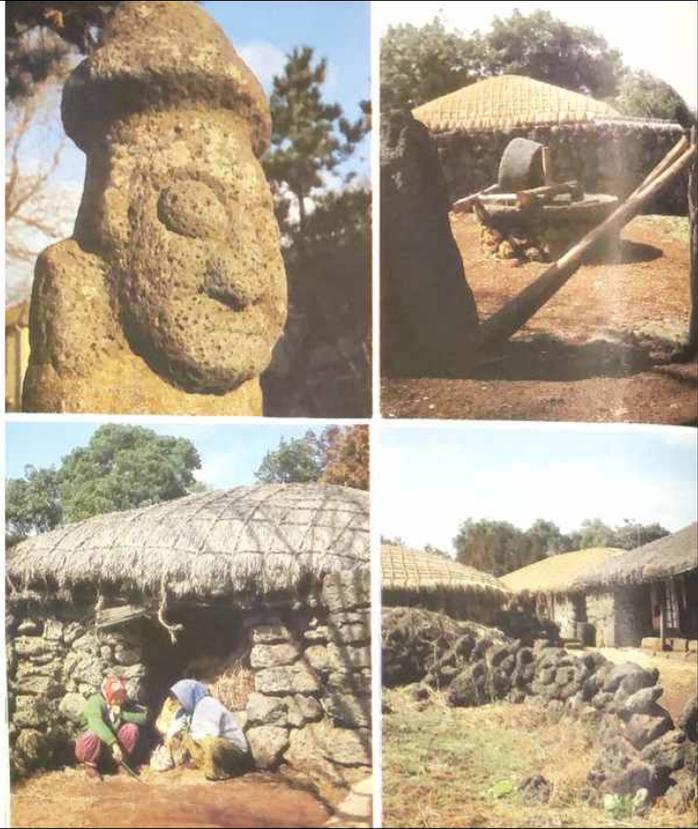


영주십경(瀛州十景)

- 제주사람들은 과거 한라산을 "산신이 사는 신비한 산" 이라는 뜻으로 영주산이라고 불렀다.
- 20세기 후반 제주도관광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하락했다. 그러나, 성산일출봉이나 정방폭포와 같은 어떤 장소들은 여전히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 '영주'라는 단어의 기원은 제주의 유학자 이한우(1818~1881)가 시적이미지로서 제주의 10개의 풍경을 선택한 것에서 시작된다.

- | | |
|----------------------------|-----------------------|
| • 城山日出 : 성산일출봉에서 보는 일출 | • 鹿潭晚雪 : 늦겨울 백록담의 눈 |
| • 紗峯落照 : 사라봉에서 보는 노을 | • 靈室奇岩 : 한라산 영실의 기암괴석 |
| • 瀛邱春花 : 영구(산신이 사는 언덕)의 봄꽃 | • 山房窟寺 : 산방산의 굴의 절 |
| • 正房夏瀑 : 정방폭포에서의 여름 | • 山浦釣魚 : 산지포구의 고기잡이 |
| • 橘林秋色 : 귤이 익어가는 가을빛 | • 古藪牧馬 : 풀밭에서 기르는 말 |

문화경관:
성읍민속마을



지질학적 경관: 용두암



'오름'(craters)의 이미지와 해설



기생화산 분화구 寄生火山噴火口 Craters of Parasitic Volcanoes

제주도(濟州島)의 파산활동(火山活動)이 계속(繼續)되고 있는 동안 이루어졌다는 기생화산(寄生火山)들이 도내(道内) 곳곳에 360여 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분화구(噴火口)로 형성(形成)되어 있고, 이러한 산들을 제주(濟州)에서는 '오름'이라 부르기도 한다.

濟州島の火山活動が続いて居た時に出来あがった寄生火山が道内の到る所に 360余りもあり、そこにはほとんど噴火口が形成されています。この様な山を濟州島では「オ름」と呼んでいる。

In Jeju Province, there are more than 360 parasitic volcanoes which are said to have been formed while volcanic action, and most of them now have craters on top.

瀛州十景의 현대적 재구성

- 표면적으로 볼 때 영주십경은 19세기와 큰 차이 없이 1970~80년대 대중관광에서 폭넓게 활용됨
- 그러나, 자연-문화경관 통합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
- 瀛州十景(19세기)
 -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균형/통합
 - 제주민의 일상적 삶의 경관: 목축, 어업, 굴농사
 - 제주민의 관점을 반영: 제주토착 유학자(이한우)
- 1970~80년대 제주관광경관
 - 영주십경+지질학적 경관+문화경관
 - 제주민의 일상적 삶과 遊離된 문화경관
 - 자연경관(지질학적 경관)에 초점
 - 외부의 관광객을 의식한 경관: Tourist Gaze
- 귀결: 영주십경의 의미변화
 - 외부자 관점의 경관이미지 속에 포섭

- 제주에 부과된 '개발-보전'의 개발정치학(politics of development)은 자연스레 내셔널스케일의 관광담론과 실천, 그 속에서 작동하는 제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출현을 동반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제주관광개발과정에서 민족의 자랑거리로 충분한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미지가 생산되었고 이는 외화획득을 위한 한국의 대표관광자원으로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이 고정된 이미지는 제주의 전통생태 및 제주인의 일상과는 유리된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순수자연/원초적 자연(intrinsic nature)'(Castree 2001, p.7)의 경관이었으며, 이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하고 이국적인 자연풍경들로 제주사람과 제주의 문화는 그 '지질학적 자연' 속에서 배제되었다. 자연 뿐만이 아니었다. 제주의 문화는 살아 있는 제주인의 일상 속에서도 아니라 박제화된 경관요소나 인공물(artefacts)로 환원되었다. 지역사 및 생활사와 분리된 돌담, 돌하르방, 해녀의 물질이나 성읍민속촌같은 문화경관이 그러하다. 일종의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이 작동하는 장소였다.

1970s~80s 제주관광과 경관미학

-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경관이미지
 - 지점(points and areas) 위주의 관광
 - 지리적 맥락과 환경, 주민들의 일상과 분리: 이국적 경관
 -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관광
- 제주의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재현에서 배제
 - 특히, 중산간 지대 (오름경관)의 배제
 - 중산간(오름)은 제주관광에서 무존재
 - uncalled/unseen
 - 개발-보전 이분법(분단의 공간정치)의 효과
- 문화 vs. 자연, 내부자 vs. 외부자(관광객, 개발자, 정부 등), 의 분리와 함께 새로운 경관미학의 출현
 - 관광을 위한 경관이미지는 제주민들이 고유한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방식과 충돌

- 새로운 관광제주의 경관이미지 속에 오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오름과 별개로 상징적 민족경관national landscape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오랜 시간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의 터전이었던 오름은, 일상에서 멀어지고 관광매력지로서 관심을 얻지도 못했다. 원형적 오름경관의 미덕은 김종철을 비롯한 몇몇 선구자들이 90년대 중반에 언급하기 시작할 때까지 한동안 잊혀졌다. 제주의 토박이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진작가들이 오름능선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김영갑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문학인들과 영화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문학과 예술적 재현 속에서, 물결치는 듯한 오름의 선이 만들어내는 제주고유의 경관미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주요장면과 중첩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철학적 단상의 모티브이기도 했다.

오름, 노동의 공간에서 심미적 경관으로

- 오름경관의 과거일상경관에서 심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관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경관의 내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 일상적 노동의 경관 내부에 있으면서 그 노동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속에 얽매어 있을 때, 경관을 '순수하고 추상적인' 형태와 관념으로-일종의 픽처레스크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경관을 픽처레스크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풍경 속의 모든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요소들을 제거해서 경관의 진실하고 추상적인 속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Nash 2005, p.159)

오름낭만주의1: 김중철의 <오름나그네>

- 김중철은 1988년에 『제주도지』에 '제주도 기생화산소묘'를 연재한 이후 1990년 『제민일보』의 창간과 함께 오름기행을 인기리에 연재.
- 그리고 1995년에는 연재의 결과물들을 모아서 『오름나그네』(전3권)을 출간
- 최초의 오름등반동호회라 할 수 있는 '오름오름회'('오름나그네'로 출발)는 1995년 2월 타계한 김중철을 추모하는데서 출발한 모임
- 『오름나그네』에서 오름은 일상적 삶과 노동의 공간에서 벗어나 '여인의 나신처럼 아름다운' 심미적 피사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나비학자 석주명이 '한라공원'이라 비유했던 들판의 풍경은 "진달래, 깽깽나무 군락에 철따라 들꽃 산꽃이 수놓아지고 갖가지 나비며 산새소리, 방목 우마가 어우러지는 평화경(1권 p.181)"이었다.
- "한라산 위에서도 수해속에 담황색으로 뚜렷이 내려다 보이는, 한라산의 자랑거리의 하나이던 산중 고원이 산림녹화라는 이름아래 20여년 전부터는 온통 거무칙칙한 인공림으로 화하고 말았다.(제1권 p.182)"

김중철의 오름관

- 1) 미학적 시선: 여성의 신체로 인식
 - 저자는 제주의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다랑쉬오름에 대해 '비단 치마에 몸을 감싼 여인처럼 우아한 몸매시'라고 묘사하고 있다.(<오름나그네1>, p.34).
 - 또한 돌오름의 첫인상을 '육감적이랄 만큼의 풍만한 몸매'라고 표현했다(<오름나그네1>, p.43).
 - 이달오름은 볼록하게 솟아 올라 쌍봉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대지에 솟아오른 (미인의) 아름다운 젖가슴' 이라고 묘사되고 있다(<오름나그네2>, p.266).
 - 풀밭오름이면서 분화구가 없는 숫오름(雄岳)에 대해서는 '비단결 아름다운 몸매에 소복이 눈이 쌓이면 또 얼마나 청아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오름나그네 1>, p.186)'
- 2) 환경주의적 시선
 - 주체오름은 "철따라 예쁜 꽃이 피어나고 마소들을 살찌우던, 아담하고 곱다란" 비운의 오름은 "1년 남짓의 시한부 수명" 에 곧 "사라져 갈 운명"이다.
 - 살오름 북쪽 해발 약700m 난대림은 우리나라 유일의 극상상태 보유림으로 '식물군락이 환경에 종국적으로 적응한 상태'이며, '식물생태계에 있어 보배로운 존재'라고 표현해 인공림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천연림에 대한 상찬이 이어진다(<오름나그네1>, p.289).
- 3) 풍수적 시선

오름낭만주의2: 김영갑의 경관미학

(1957-2005)

• Profile

- 1957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82 제주도에서 사진 작업 시작
- 1985 제주 중산간 지역에 정착
- 2002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개관
- 2005 제주에서 루게릭 병으로 사망



<그 섬에 내가 있었네>

- 나에게 중산간 마을이야말로 낙원이다. 아직까지 이곳처럼 나를 매혹시킨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행복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낙원도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산간 마을은 내 영혼의 고향이다.
-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 형상도 없는데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그 무엇이 중산간 광활한 초원에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것은,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나는 중산간을 떠나지 못한다.
-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것을 이곳에서 깨달으려 한다...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며 마음을 씻고 닦아 모두를 사랑하려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 초원에도, 오름에도, 바다에도 영원의 생명이 존재한다. 대자연의 신비와 경외감을 느낌으로서 나는 신명과 아름다움을 얻는다.

“들판이 펼쳐놓은 축제의 무대를 즐기다 보면 다시 기운이 납니다. 그런 들판으로부터 받기만 할 뿐, 나는 단 한번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나의 모습은 들판으로 나오기 전까지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들판을 만나고 오는 날에는 잠자리가 편안합니다.”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 풀과 나무들은 온갖 시련을 홀로 견디며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의 친구 들판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 줍니다.”

• **김영갑이 추구했던 순수자연:**

- 영속적이며 순환적이고 eternal and cyclical
- 전체론적이고 holistic
- 인간 세상과 무관한 innocent

• **역설**

-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성의 중산간 경관은 오랜 역사시기 동안 제주민들의 고된 노동의 산물이자, 지속적인 인간-환경 상호작용의 유산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제주경관의 경험(미학과 실천 see/practice)
 - 점(points): 새로운 관광지의 발견
 - 선(lines): 올레길
 - 면(surfaces): 오름트레킹
- 제주를 '보는 새로운 방식'의 출현
 - 제주민들 사이에 오름 트레킹의 대중화
 - 관광객들로 확대
 - 제주의 새로운 상징경관으로 부상
 - a way of seeing -> a way of "doing" landscape
- 실천(practice) 과 수행(performance)의 경관
 - 외부의 시선에서 생산된 고정된 경관재현의 극복

환경사 주제발표

사회 정치영(부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류가 만드는 인류세(The man-made Anthropocene)**

남옥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소나무를 보는 지리적인 눈**

공우석(경희대학교)

□ **일제강점기 가축 질병의 분포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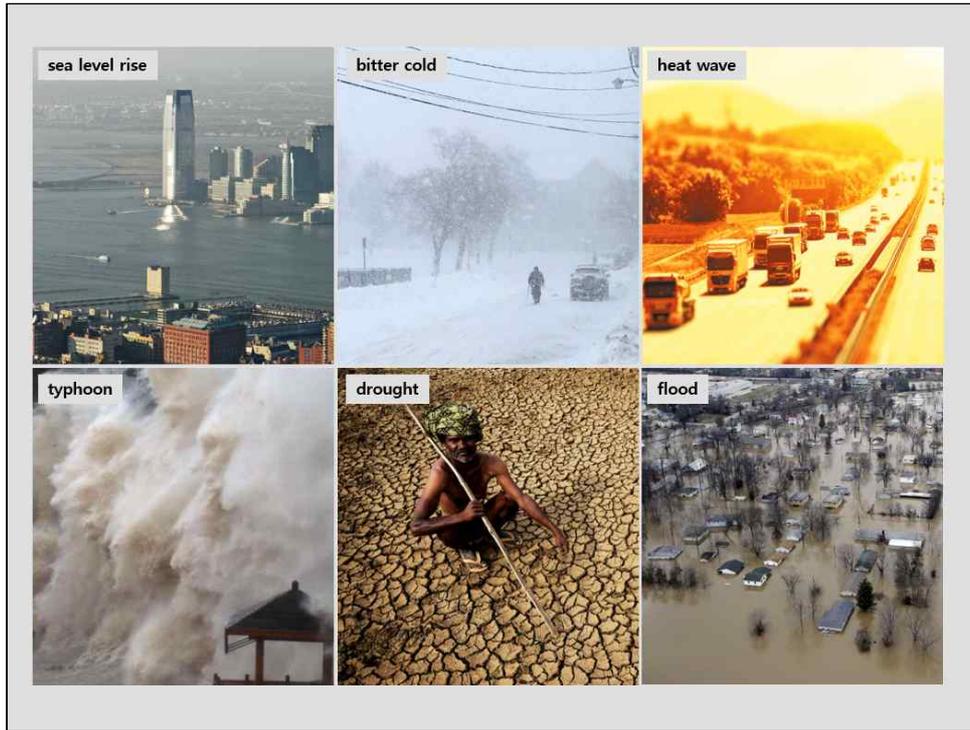
천명선(서울대학교)

□ **도시, 자연, 환경 - 유럽 환경사의 도시환경사적 진화 -**

박혜정(경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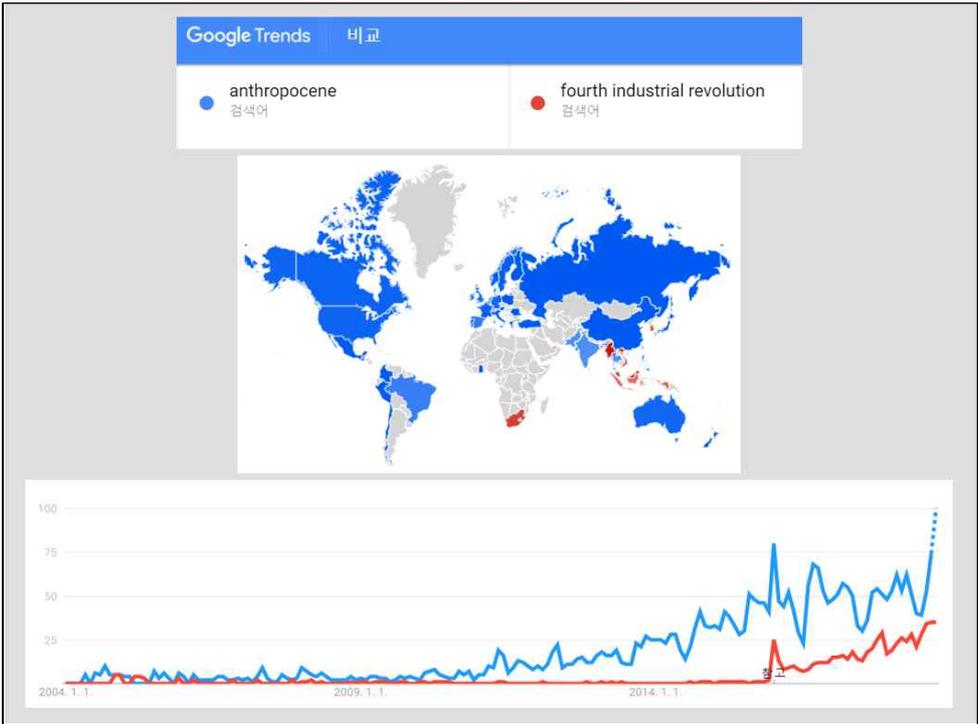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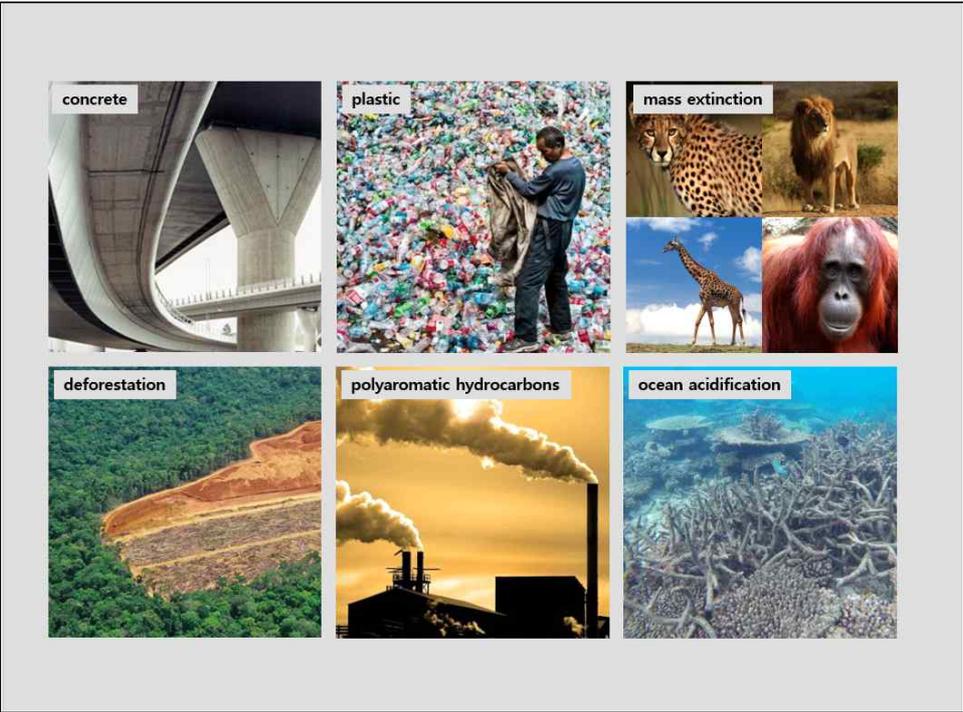
인류가 만드는 인류세 (The man-made Anthropocene)

남옥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연구실)



**We can alter natural processes,
eco-systems,
climatology,
chemistry,
snow cover,
sea ice extent,
hydrological cycles.**





인간 활동과 지구

The Earth as Modified by Human Action

George Perkins Marsh (1864)

Anthropozoic era

Antonio Stoppani (1873)

Noosphere

Vladimir Ivanovich Vernadsky (1945)

Gaia

James Ephraim Lovelock (1978)

Anthropocene

Eugene Filmore Stoermer (1980)

Paul Jozef Crutzen (2000)

Gaia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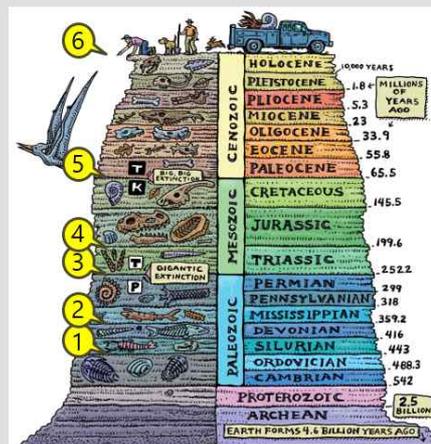
Timothy Michael Lenton & Bruno Latour (2018)

지질 시대의 경계

GSSP (Global Boundary Stratotype Section and Point) : **Golden Spike**

GSSA (Global Standard Stratigraphic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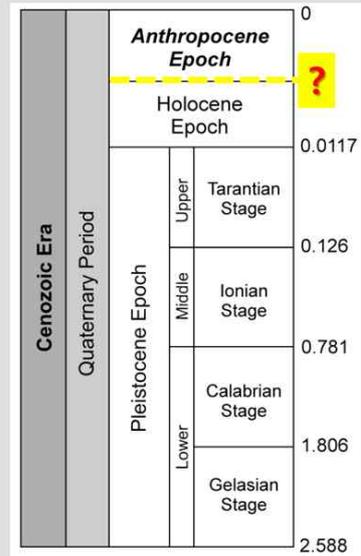
- (1) 전지구적 사건의 표식 (marker)이 있을 것
- (2) 모식층 (stratotypes)이 있을 것
- (3) 지역적, 지구적 대비가 가능할 것
- (4) 표식 상하부로 연속적 퇴적층이 있을 것
- (5)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 (6) 접근성이 용이할 것
- (7) 보전성이 좋을 것



인류세의 시작은 언제인가

인간 활동의 흔적은

- (1) 지질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특징적인가
 - 암층서, 지화학층서, 생물층서 측면의 접근
- (2) 언제부터 남아 있는가
 - 시층서 측면의 접근
- (3) 전지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
 - 퇴적층서 대비 측면의 접근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1)

Neolithic Revolution

자연 식생의 변화, 생물종 멸종을 증가, 생지구화학적 순환의 변화
 서남아시아 BC 8500, 중국 BC 7500, 이집트 BC 6000 등 시기 불일치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2)

1492 Christopher Columbus (1451-1506), Columbian Exchange

가축, 농작물, 병원균 등 생물군의 이동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발상으로서 지역적 제한



가축 : 말, 양, 돼지, 칠면조

농작물 : 호박, 옥수수, 토마토, 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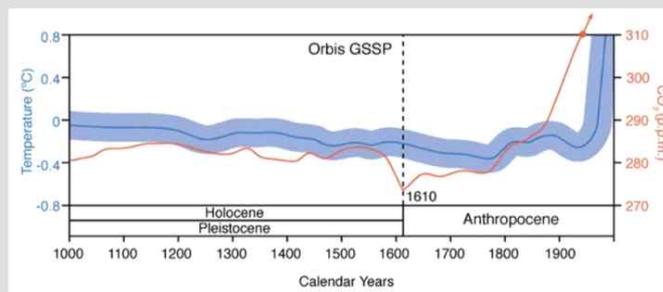
병원균 : 수두, 장티푸스, 매독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3)

1610 Orbis Spike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구 감소, 경작지 방치, 산림화,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발상으로서 지역적 제한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4)

1760-1830 Industrial Revolution

1776 James Watt (1736-1819), steam engine

대기중 이산화탄소량의 증가

급격한 환경변화, 생물상 변화 등의 전지구적 증거 부족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5)

1945.07.16. Trinity Nuclear Test

1963.08.05.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LTBT)

대기중 핵 실험, 방사능 낙진

Cs-137, Sr-90 등의 반감기로 인한 증거 소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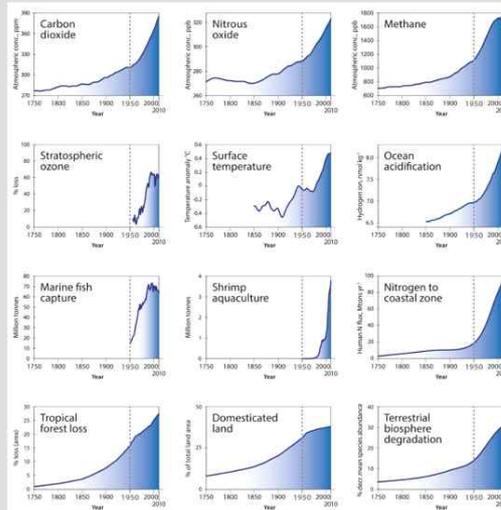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6)

1950 Great Acceleration

인구 증가, 산업화, 에너지 대량 소비, 공해 증가

증거 보전 여부 불확실



Anthropocene Working Group

국제 지질과학 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국제 층서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ICS)

제4기 층서 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Quaternary Stratigraphy)

인류세 워킹그룹 (Anthropocene Working Group, AWG)

2016.08.29. 영국 University of Leicester, Jan Zalasiewicz 교수의 권고

방사성 물질 : 1945 첫 핵 실험, 1963 대기중 핵 실험, 198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플라스틱 : 2015 유엔환경계획 (UNEP), 플라스틱 쓰레기 3억톤

닭 배 : 1945 미국 A&P, '내일의 닭 대회', 아버 에이커 (Arbor Acres) 품종, 연간 600억 마리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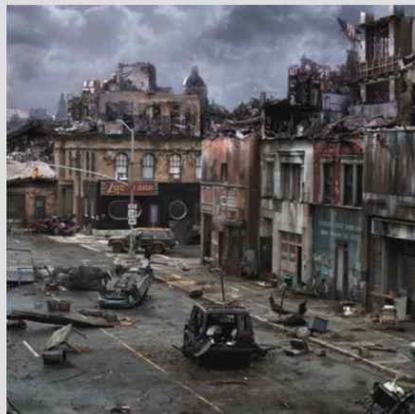
Anthropocene

이상기후, 대량 멸종, 해양 산성화, 환경 오염, 해수면 상승 등
인간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새로운 형태의 환경 캠페인을 시작하는 의미
- 인간의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미
- 아포칼립스적, 디스토피아적, 종말론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의미



인류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적 담론을 요구하는 의미
-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의미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Thomas Kuhn, 1962)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 해결을 모색
'기계론적, 인간중심적, 지배적 패러다임'
'시스템적, 생명중심적, 대안적 패러다임'



Gaia 2.0

(Timothy Michael Lenton & Bruno Latou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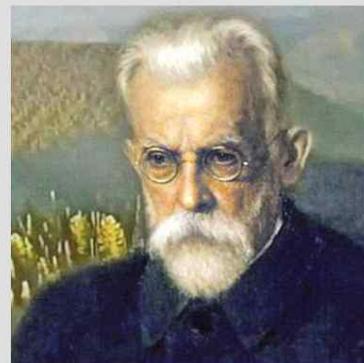
지구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 과학, 인간의 조합
가이아의 자기조정 기능 + 인간의 자기인식과 조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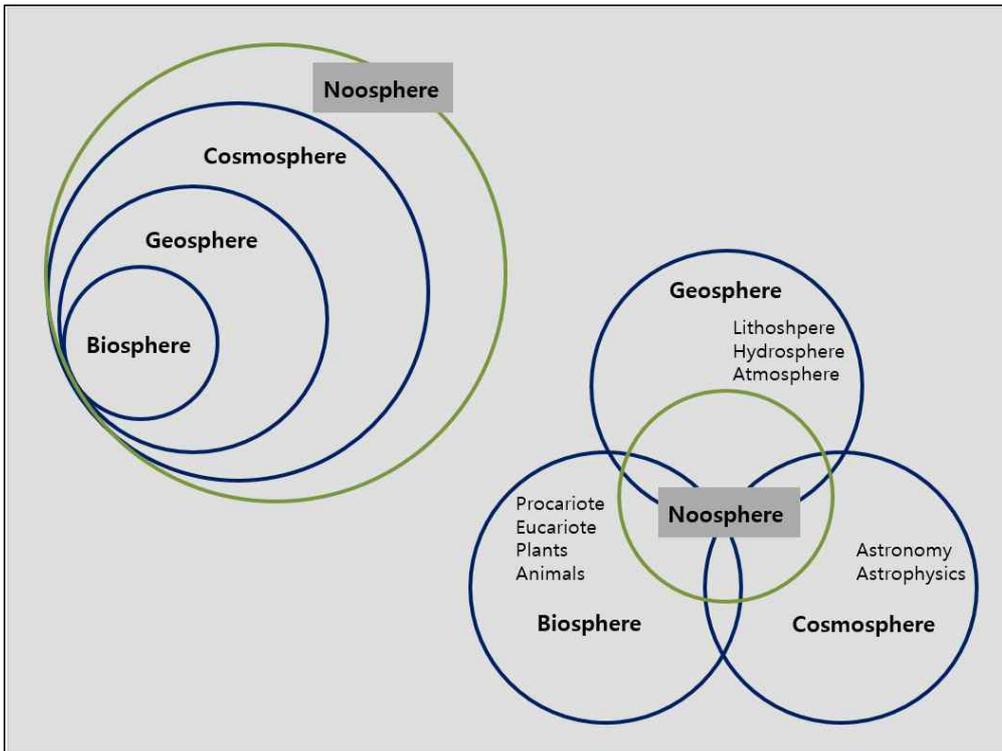


Noosphere - cybersphere infosphere technosphere

(Vladimir Ivanovich Vernadsky, 1945)

지구환경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지적 활동
'지성권'의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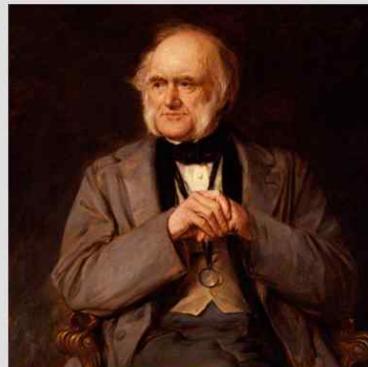
Holocene

영국 지질학자 **Charles Lyell** (1797-1875)

1833, '최근 (Recent)' 개념 제시

1867, '현세 (Holocene)' 용어 제시

2009, '현세 (Holocene)' 시점 확정 (11,650±699 yrBP)



Holocene & Anthropocene

Holocene (concepts)

- (1) 마지막 빙하기 종료 시기
- (2) 인류 출현 시기
- (3) 인류 문명 발달 시기

Anthropocene (keywords)

- 인류 문명
- 인위적 환경 변화
- 인류-지구 관계

The beginning of the Anthropocene (7)

Future

-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 인간 지성의 올바른 자리매김
- 인간과 지구의 새로운 관계 정립



- ex) 이산화탄소 농도 곡선이 감소세를 보이는 때
- ex) 플라스틱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때

소나무를 보는 지리적인 눈

공우석(경희대학교 지리학과)

1. 들어가는 글

지리학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현상이 어떠한 공간적인 질서를 가지고 분포하는지를 살피고, 어떤 시간적 형성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복원하고 그 구조를 분석한다. 동시에 사물과 현상의 시공간적인 분포와 변화를 가져온 환경요인과의 상호관계와 기작을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지역성을 파악한다(공우석 2007).

왜 소나무(松)인가? 그 이유는 소나무만큼 널리 분포하며 우리 민족과 함께 오랫동안 가까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살아온 나무가 드물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우리 국토와 민족, 생태계, 환경,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나무이다. 소나무는 우리 風土 가장 오랫동안 효과적 적응한 나무 전체 산림 면적의 23%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 삼림은 침엽수림이 2,339천ha(36.9%), 혼합림이 1,706천ha(26.9%)를 차지하는데(산림청, 2016), 소나무는 숲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수종이다. 침엽수 면적 2,339천ha 가운데 1,563천ha(67%)를 소나무가 차지(산림청, 2017)해 침엽수 가운데 우점하는 수종이었다.

마을 앞에 용트림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북 남원 운봉의 소나무로 이루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 당산나무(그림 1)와 뒷산의 뒤틀린 소나무도 백두대간의 깊은 산속인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자라는 긴 가지가 축축 늘어진 키 큰 落落長松의 소나무(그림 2)도 모두 이 땅의 진정한 지킴이 나무이다. 그러나 소나무의 분포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미래는 기후변화, 병해충, 개발, 자연적인 천이 등으로 불확실하다.



그림 1. 전북 남원시 운봉면 삼산리 당산나무인 소나무



그림 2.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소나무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과 삶을 함께 해온 소나무의 식물지리, 문화, 생태 등을 소나무를 기존의 연구(공우석 1995; 2003; 2004; 2006; 2016 Kong *et al.* ; 1993; 2014; 2016 신문현 등; 2014)를 바탕으로 지리적인 눈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2. 우리 민족과 소나무

소나무와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소나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엿볼 수 있다.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왕릉동의 옛 지명인 평남 중화군 동두면 진파리에 있는 진파리1호분은 고구려의 고분이다. 진파리 1호분 북벽의 한가운데에는 현무가 있고, 현무의 좌우로는 바위산과 바람에 날리는 큰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그림 3). 진파리 벽화는 소나무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가장 오래된 그림의 하나로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우리 민족이 1천 5백년 이전부터 늘 푸른 소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진파리1호분의 소나무 벽화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三國史記 卷8 列傳에는 신라시대 소나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의 승려로 그림을 잘 그렸던 率居가 皇龍寺의 벽에 老松圖를 그렸는데, 해묵은 소나무의 가지와 줄기에 까마귀와 솔개 같은 새가 가끔 날아들어 부딪쳐 땅에 떨어지곤 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지나 색깔이 바래지자 한 승려가 단청하여 이를 보수한 뒤 까마귀와 솔개들이 다시는 날아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도 소나무를 특별한 나무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4세기 고려불화인 水月觀音圖가 이탈리아 제노바의 미술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것이 2017년에 확인되었다. 수월관음도 왼쪽 위에 그려져 있는 소나무는 수월관음도에 소나무가 그려진 유일한 사례로 늘 푸른 생명력을 고려시대 불교와 결합한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의 수목화에도 소나무가 자주 등장한다. 眞景山水의 화풍을 이룩한 검제 鄭敼(1676~1759)의 老松大雪과 社稷老松圖, 李麟祥(1710~1760)의 雪松圖와 송하관폭도 등은 소나무를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다. 秋史 또는 阮堂 金正禧(1786~1856)의 1844년 그림으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歲寒圖는 소나무를 그린 수작이다. 추사는 제자인 역관 李尙迪의 변함 없는 의리를 날씨가 추워진 뒤 제일 늦게 낙엽이 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하여 1844년 추사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답례로 그려준 것이다. 그림 끝에 그림을 그린 배경을 설명하는 발문에서 추사는 論語의 子罕편에 나오는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추운 겨울이 돼서야 잣나무와 소나무가 푸름을 알 수 있다)라는 글귀를 통해 소나무를 빌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세한도는 조선 말기를 풍미했던 김정희의 문인화 이념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소나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여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소나무를 소재로 삼은 대표적인 조선시대 화가와 그림은 조선 전기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17세기 조지운의 송학, 18세기 강세황의 초옥한담도, 신윤복의 송정야회, 김홍도의 송하취생도, 송하유록도, 18세기 정수영의 고송산계도, 19세기 장승업의 송하노승도, 김수철의 송하한담도, 이재관의 송하처사도, 이인문의 송하한담도 등이 있다.

日月五峯圖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 붉은 해, 하얀 달, 두 줄기의 폭포수, 산봉우리 아래 넘실거리는 물결, 좌우 언덕의 소나무 등이 일정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는 그림이다(그림 4). 일월오봉도는 조선 왕실 회화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의 그림으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고 왕조가 이어지라는 뜻을 가지며, 御座 뒤에는 일월오봉도를 배치했다.



그림 4. 일월오봉도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민간신앙과 도교에서 不老長生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인 十長生은 해, 달, 산, 내, 대나무,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 또는 해, 돌, 물,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산을 이른다. 소나무는 어느 경우에도 십장생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2014년에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솔섬을 촬영한 마이클 케나(Kenna, Michael)의 사진을 모방한 사진이 저작권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다. 케나가 찍은 솔섬과 북한산 소나무 사진은 소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정서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미지임을 나타낸다.

소나무 전문 사진가로 알려진 배병우 작가의 소나무 사진이 2005년에 영국 런던에서 팝가수 엘튼 존에게 2,700만원에 팔린 바 있었고, 2006년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소나무 사진이 4,800만원에 팔렸다. 그 뒤 인화한 5장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진은 약 7,750만원으로 값이 올랐다. 벨기에 왕실뿐만 아니라 루이뷔통, 시슬리, 자라 등 패션기업들도 배병우의 소나무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배병우의 소나무 사진이 서양의 미술시장에서 주목 받는 것은 자연이 황폐해지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소나무를 다룬 동양적인 수목화 분위기의 사진 작품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대중가수 바비 김이 부른 소나무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선택되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걸 그룹의 이름이 SONAMOO라니 시간, 공간과 세대를 넘어 소나무가 문화 코드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소나무는 애국가에도 등장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국립수목원에서 식목일 행사에 기념식수한 대표적인 나무이다. 식목일에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는 박정희(은행나무), 전두환(독일가문비나무), 노태우(분비나무), 김영삼(반송), 김대중(금강소나무), 노무현(주목), 이명박(주목 종류), 박근혜(구상나무) 등이다.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중앙식물원에 기념식수한 나무도 소나무의 품종인 반송(*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이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은 판문점에 반송을 심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분의 1이 소나무 종류를 기념식수 나무로 선택할 정도로 소나무는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수종이다.

산림청이 2010년에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66.1%)로 1991, 1997, 2001년에 이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우리나라 대표 수종임을 확인시켜주었고 은행나무(9.1%)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소나무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어 소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와 문화 그리고 생태에 대한 생물지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소나무의 공간적 분포

지구상에서 침엽수는 북반구의 동아시아, 유럽 남부 내륙과 지중해 일대, 북아메리카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며, 남반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http://herbaria.plants.ox.ac.uk/bol/conifers>).

한반도에 분포하는 침엽수는 4과(개비자나무과, 측백나무과, 소나무과, 주목과) 10속(개비자나무속, 노간주나무속, 눈측백속, 전나무속, 잎갈나무속, 가문비나무속, 소나무속, 솔송나무속, 주목속, 비자나무속) 28종이다. 소나무속(*Pinus*)에는 2개의 바늘잎을 가지며 온난기후에 번성하는 소나무류(二葉松, Diploxylon)인 소나무(*Pinus densiflora*), 곰솔(*Pinus thunbergii*)과 한랭한 기후를 선호하는 5개의 바늘잎을 가진 소나무류(五葉松, Haploxylon)인 잣나무(*Pinus*

koraiensis), 섬잣나무(*Pinus parviflora*), 눈잣나무(*Pinus pumila*) 등 모두 5종이 자생한다(공우석 2004; 2016).

소나무속 나무들의 지리적 분포역을 보면 소나무는 한반도 전역의 해발고도 1,300m 이하에 주로 분포하며, 곰솔은 중부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자란다. 눈잣나무는 한반도 아고산대 북부와 중부 해발고도 900~2,540m 일대에 자라는 종이고, 잣나무는 한반도 전역의 산지 차유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1,900m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섬잣나무는 울릉도 성인봉 500~800m 사이에 자란다(공우석 2006). 소나무는 적송, 육송, 강송으로도 부르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소나무이다.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일부 지역과 일본열도에 자라는 소나무는 한반도가 분포의 중심지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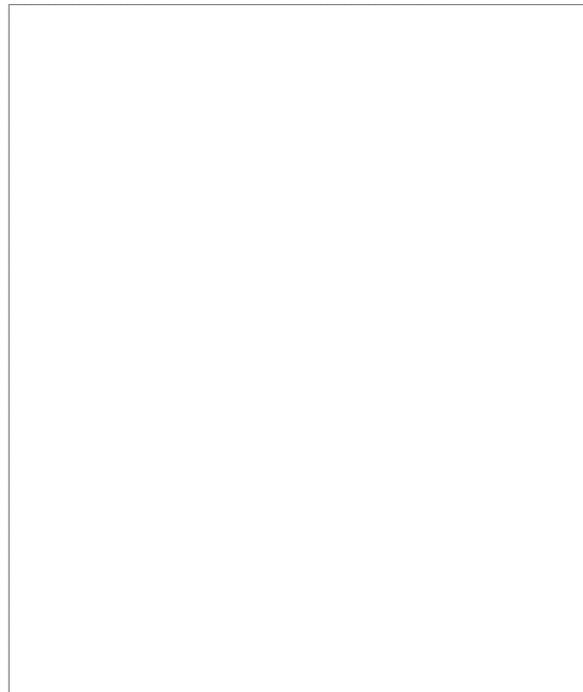


그림 5. 동아시아 소나무 분포도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L-33_Pinus_densiflora_range_map.png)

한반도에서 해발고도 1,300m 이하에 주로 분포하는 소나무는 주요한 식생경관요소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지에는 논이 하천 사이에 펼쳐져 있고, 마을 어귀에는 마을숲이 위치하고, 마을 뒷산에는 대숲(竹林), 밭, 과수원, 묘지가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이어서 소나무숲(松林) 또는 솔밭(松田)이 나타나고 그 보다 높은 곳에 낙엽활엽수림, 한대성 침엽수림, 아고산대와 고산대가 발달한다.

마을이나 경작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들에는 솔숲이 울창하게 발달하는 것은 사람들의 산지의 이용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과거에 오랫동안 땔감이나 퇴비용으로 사용될 낙엽과 잔가지를 민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채취하면서 마을 주변의 산지의 토양은 척박해졌다. 생활재료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부산물까지 거두어가면서 숲 속에 비치는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지면 온도와 토양 온도가 높아지면서 증발산량이 많아져 토양은 전체적으로 건조하

고 척박해졌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많고, 온도가 높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질을 나타내는 곳에서 소나무는 경쟁력을 갖고 잘 자란다.

4. 소나무의 시간적 형성과정

소나무속(*Pinus*) 나무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 3,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 사이인 중생대 백악기 때부터다. 소나무는 이 땅에 등장한 이래 강인한 생명력으로 6,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신생대의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이 땅을 지킨 토종 나무이다(Kong *et al.* 2014; 공우석 2016)(그림 6). 소나무가 이처럼 지질시대 때부터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진화를 거듭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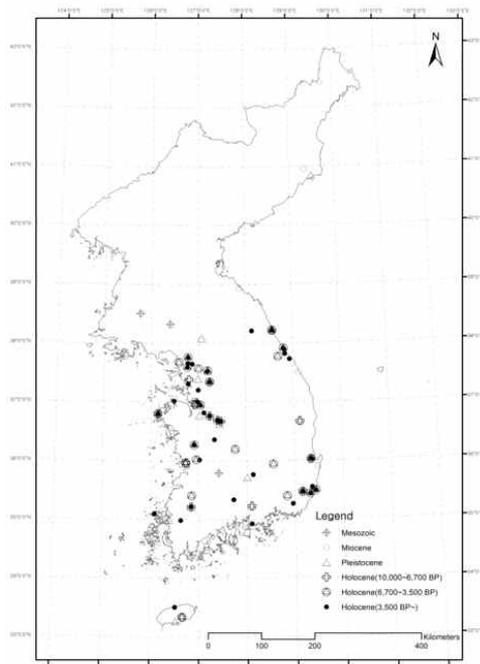


그림 6. 지질시대 이래 소나무의 분포역

(자료: Kong *et al.* 2014)

신생대 제4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8만 년 전에 시작된 지질시대이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관과 생태계의 틀을 만든 시기이다. 제4기는 약 258만~1만 2천 년 전까지의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홀로세(Holocene)로 나눈다.

플라이스토세 동안 지구는 여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氷河期(glacial period) 또는 氷期와 빙하기 사이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간인 間氷期(inter-glacial period)가 교차하였다. 플라이스토세의 마지막 빙하기인 最後氷期 가운데 가장 추웠던 때인 最盛期(last glacial maximum, LGM)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000년 전에 시작되어 약 26,000~18,000년 전에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약 12,500년 전에 끝났다. 최후빙기는 1950년을 기준으로 탄소연대측정을 하면 24,000~12,500년 전이다. 특히 약 18,000년 전을 전후가 기후가 가장 한랭했다.

오늘날에는 지구 육지 면적의 약 10% 정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으나, 최후빙기 최성기에는 육지 면적의 33% 정도인 약 2,600만km² 규모의 대지가 대규모 빙하로 뒤덮였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한 북서유럽에서 시베리아에는 대륙빙하의 두께는 3,000~4,000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아시아대륙에도 히말라야부터 러시아 동북부에 이르는 산맥을 따라서 빙하가 대규모로 발달했다. 북아메리카에도 대규모 빙하가 미국의 동부에서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을 대륙빙하가 뒤덮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한랭한 기후에 견디는 식물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거나 밀려났다. 소나무도 최후빙기 최성기에는 한반도 최남단이나 오늘날 해저의 대륙붕 지역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본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후기부터 홀로세에 이르는 시기를 연속적으로 포함하는 퇴적층의 꽃가루분석(安田喜憲 등 1980)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7,000년 전에 강원도 속초 일대에는 가문비나무속, 잎갈나무속, 전나무속, 소나무속(오엽송) 등 한대성 침엽수가 우점했으나 온대성인 소나무속(이엽송)은 드물었다. 약 15,000~10,000년 전에는 충북 내륙에는 소나무속이 많았고, 전나무속, 가문비나무속 등 아고산성 침엽수림이 자랐다. 약 12,140년 전에 충남 내륙에도 소나무속과 함께 오리나무속, 참나무속 등이 자랐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최후빙기가 끝나고 오늘날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난 지난 1만 2천년 동안의 시기는 홀로세로 한반도 주변의 기후도 온난 습윤해졌다. 홀로세에는 온대성인 소나무속(이엽송)이 많아졌다. 약 10,000~6,700년 전에 강원도 동해안에는 참나무속이 우점하였고, 잎이 두 개인 소나무속과 전나무속도 나타났다. 약 10,000년 전쯤에 충북 내륙에는 소나무속, 개암나무속, 참나무속, 느릅나무속, 느티나무속, 자작나무속 등 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의 혼합림이 나타났다.

약 7,000년 전에 경북 동해안에는 소나무속이 우점하였다. 약 7,500~4,000년 전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참나무속, 소나무속(이엽송), 서어나무속이 증가하였고 낙엽활엽수가 다양해졌다. 따라서 이 시기를 후빙기 최온난기(hypsi-thermal 또는 climatic optimum period)로 보기도 한다(장정희·김준민 1982).

약 6,700~4,500년 전에 강원도 동해안에는 소나무속(이엽송)이 30~50%를 차지하며 소나무 숲이 널리 분포했다. 약 6,000~2,500년 전에 전북 서해안에는 소나무속이 증가하였다. 약 5,000년 전에 전북 서부 내륙에는 오리나무속, 참나무속, 소나무속 등이 흔했다. 약 4,820년 전후에 충북 내륙에는 소나무속, 가문비나무속, 전나무속 등이 나타났다. 약 4,060년 전에 충남 서해안에는 참나무속, 소나무속, 서어나무속이 많았다. 약 3,250년 전후에 충남 서해안에는 참나무속, 소나무속 등이 나타났다. 약 2,700년부터는 소나무속이 급증하고, 참나무속이 흔했다. 약 2,200년 전에는 오리나무속은 급속히 감소하고 참나무속, 소나무속, 버드나무속, 밤나무속, 느릅나무속, 느티나무속 등이 증가하였다. 약 3,000년 전부터 경남 남부내륙에는 소나무속, 참나무속, 오리나무속 등이 나타났다. 약 2,500년 전부터 경남 남해안에는 소나무속, 참나무속이 흔하였고, 낙엽활엽수 등이 많았다.

약 2,770~1,100년 전에 전남 서해안에는 소나무속, 전나무속, 가문비나무속, 낙우송과, 측백과, 주목과 등 나자식물과 참나무속 등 낙엽활엽수가 많았다. 약 2,250년 전후에 충남 내륙에는 참나무속, 소나무속, 오리나무속 등이 나타났다. 약 2,000년 전에는 소나무속이 급증하여 침엽수림을 이루었다. 약 2,350년 전에는 충남 서해안에서는 참나무속, 소나무속, 서어나무속

등이 나타났다. 약 1,840년부터는 오리나무속, 참나무속, 소나무속이 많았고, 약 1,645년부터는 소나무속, 참나무속, 서어나무속 등이 나타났다. 약 2,000년 전부터는 경기도 서해안은 소나무속의 우점기로 오리나무속 등은 크게 줄었고, 벼과, 메밀속 등 경작식물이 증가하여 정착 생활 시작으로 농경지 확대와 자연림 파괴가 시작되어 자연림이 인공림으로 바뀌었다(이상헌 등 1999).

우리나라 내륙에서 꽃가루가 출토된 곳들은 주로 고고학적 유적지이고, 소나무속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지형과 기후 특성과 함께 사람에 의한 선택적인 식생의 간섭이 관련됨을 나타낸다. 소나무가 번성한 것은 나무를 벌채한 뒤 토지가 건조해지고 척박해진 조건에 경쟁력이 있는 소나무가 경쟁력을 갖는 생태적 특징과도 관련된다. 같은 시기에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내륙 등 지역에 따라 우점하는 식생이 다른 것은 지역별 지형과 기후와 함께 인위적인 식생의 간섭 역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Kong 1994).

약 2,000년 전부터 소나무속이 급증한 것은 기후가 온난해진 것과 함께 인간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작지를 만들기 위한 숲에 불을 놓고, 산림을 개간하면서 자연식생은 사라졌다. 숲이 사라지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많아져 지면 온도가 오르면서 증발산량의 많아져 지표가 고온 건조해졌다. 그 결과 주변 식생이 사라지면서 유기물 공급이 줄어들어 토질이 척박해지면서 이런 환경에서 적응력이 높은 소나무속은 영역을 넓혀 나갔던 것으로 본다.

특히 소나무속 화분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식생이 파괴된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쭉쭉, 명아주속, 메밀속, 벼과 초본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영향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시기의 퇴적층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숯도 인간에 의해 화전과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식생을 지속적으로 간섭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역사시대 고문헌은 시대별 인문사회적인 상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후, 식생, 자연재해 등 자연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 고문헌에 기초하여 당시의 소나무 분포도를 복원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가운데 世宗莊憲實錄地理志(1454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東國輿地志(1660년대), 輿地圖書(1760년), 林園經濟志 또는 林園十六志(1842~1845년), 大東地志(1864년) 등과 일제시대 문헌인 朝鮮一覽(1931년)에는 시대별 식생 정보가 여러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330여개에 이르는 군과 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운데 나무에 대한 기록을 선 발하여 당시의 수종별 분포 범위를 복원하였다. 고문헌에서 수집된 자료 가운데 식생을 복원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食餌, 果實, 藥材 등으로 府, 牧, 都護府, 郡, 縣 별로 物産, 土産, 土宜, 土貢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공우석 2003; Kong *et al.* 2014; 2016).

조선시대 시대별 고문헌에 소나무(*Pinus densiflora*)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107곳), 신증동국여지승람(133곳), 동국여지(139곳), 여지도서(148곳), 임원십육지(162곳), 대동지지(125곳), 조선일람(27곳) 등 모두 841개소 정도이다.

조선시대 소나무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순으로 분포지가 넓었고,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경기도가 뒤를 이었다. 시대별로는 1800년대 초반까지 소나무가 자라던 지역이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1660년대에는 경상도의 소나무 분포지가 늘고, 1840년대에는 충청도와 전북에 소나무가 많아졌다. 소나무의 분포지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지방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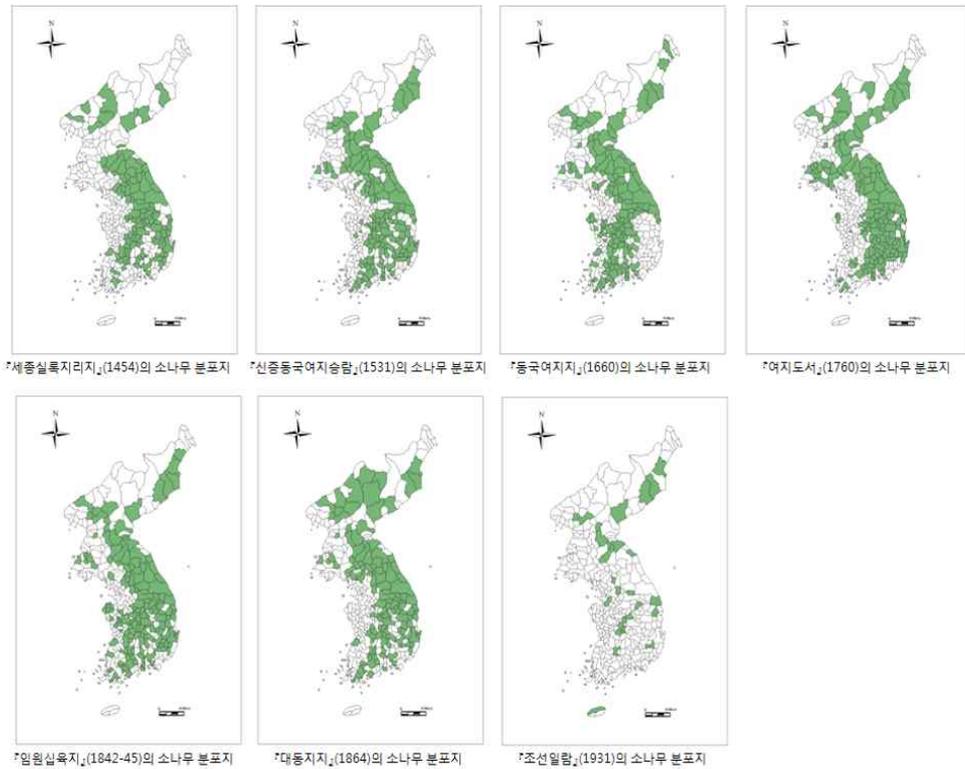


그림 7. 조선시대 시대별 소나무 분포역

(자료: Kong *et al.* 2016)

조선시대 시기별 소나무 출현빈도를 보면 조선 후기인 1842~1845년에 가장 많은 출현하였고, 1760년, 1660년, 1531년, 1452년 순으로 조선 중기에 소나무와 관련된 기록이 많았다. 1864년, 1930년에는 소나무 기록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에 수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포 현황을 누락시킨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19세기까지는 소나무의 분포지가 증가하다가 후기로 가면서 분포지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자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당시 혼란기와 일제 강점기를 사정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나무 외에도 소나무의 분포와 관련된 정보로는 송이버섯, 복령과 같은 한약재의 생산지에 대한 기록도 소나무의 분포지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정보이다(공우석 2016; Kong *et al.* 2016).

5. 소나무의 문화

소나무와 백성들의 사계절을 살펴보면 소나무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봄철 보릿고개에 소나무의 어린 솔잎, 속살인 松肌와 송홧가루는 굶주림을 넘기게 하는 救荒植物이었다. 솔솔에 나는 봄나물은 배고픈 삶들에게는 귀한 먹을거리였다. 소나무의 어린순은 생식하거나 松酒를 만드는데 쓰이고, 소나무 꽃가루는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소나무의 속껍질인 深皮는 다량의 녹말 또는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봄과 여름철에 벗겨 아이들이 생식하고, 종자는 껍질을 벗겨 곡물들과 섞어 먹었다.

여름에 마을 뒤 솔숲은 무더위를 피할 수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었고, 가축을 기르는 공간이었다. 솔밭은 태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에 피해가 나는 것을 막아주었다.

가을철 깊은 산 소나무 숲에서 거두는 송이버섯과 복령 등은 귀한 소득원이었고, 한가위에 송편을 찰 때면 솔잎을 깔아 음식이 상하지 않게 피톤치드의 살균력을 활용했다. 소나무 송진은 종이, 비누, 칠을 만드는 자원이었다. 소나무의 송진은 강력한 항균력을 가진 방어 물질로 수피나 줄기의 상처로 부패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낸다.

겨우내 뒷산의 솔숲은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 주었고, 소나무가 주는 솔잎, 솔가지, 솔방울, 소나무 장작은 추위를 이기는 데 필수적인 땀감이었다. 소나무 재목은 생활에 긴요한 건축재, 도구를 만드는 재료였다.

소나무는 자연생태와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까이에서 의식주와 역사를 함께 했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길 빌기 위해 친 대문 위 금줄에는 늘 푸른 솔가지를 꽂았다. 또한 태어난 아기가 사내이면 소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기도 했다. 자식이 태어날 때 심은 소나무가 40년 정도 자라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소나무로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 달라는 소망이 있었다. 오동나무는 20년 정도 기르면 가구, 악기 등 딸아이 혼수를 장만할 때 활용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솔밭 아래서 뛰어 놀고 글을 읽으며 자랐다. 소나무는 변치 않는 정절을 상징으로 四君子인 梅蘭菊竹과 함께 시와 그림의 소재였다. 결혼을 하면 소나무로 집을 지어 분가하였고, 생활에 필요한 농기구나 도구 그리고 가구도 소나무로 만들었다. 부모가 사망하면 소나무 목재인 송판으로 亡者의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고, 묘지 주변에는 소나무를 둘러 심어 산사태와 다른 식물들의 천이로부터 무덤을 보호하고 가꾸면서 영생을 기도하였다.

나라에서도 소나무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高麗史에도 왕건의 선조 강충에게 부소군 남쪽으로 옮겨가 소나무를 심으면 삼한을 통일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하여 이사한 뒤 산에 소나무를 심어 지금의 개성이 된 松岳이라 했다. 푸른 소나무는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다(신준환 2018).

소나무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궁궐을 건축하고 외적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거북선과 같은 전함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전략자원이었다. 민가나 사찰을 짓거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양의 소나무는 필요하였다. 丁若鏞은 牧民心書(1818)의 工典六條의 山林條에서 소나무를 기르고 벌채를 금하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목조 유물이나 목조 건축물의 고목재를 분석한 바(이광희·박원규 2010)에 따르면 선사시대에는 참나무류, 삼국시대에는 참나무와 굴피나무, 고려시대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조선시대 전기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류에서 후기에 들어 소나무, 전나무로 건축재로 사용된 주요 수종이 바뀌었다.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에는 활엽수가 건축 구조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고려시대에 소나무(72%), 느티나무(22%)로 소나무 중심으로 바뀌었다. 소나무가 주로 건축재로 사용된 비율은 조선 전기(73%)에서 후기(89%)로 갈수록 높아졌다.

소나무 숲은 신라시대부터 보호하였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와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였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소나무를 벌목하여 활용하다 보니 소나무 숲은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벌채되고 간섭을 받으면서, 산사태, 지력 쇠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소나무로 집을 짓고, 관을 만들고, 배로 만들기 때문에 조선왕조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松木禁伐 또는 松禁이라는 소나무 보호정책을 펼쳤으며, 나머지 수종은 雜木으로 취급해 벌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따라서 민가 주변에서는 선택적으로 보호 받은 소나무의 면적이

넓어졌다. 그러나 송목금벌 정책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군대의 병선 건조, 산에서의 불을 이용한 수렵, 화전을 위한 산불, 산지에 밭의 개간, 집짓기 등으로 소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이었다(이승녕 1994).

封山이란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왕실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 및 터를 배타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강원도 이남의 우량한 산림을 왕실의 권위로 지정하여 지방민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산림이다. 봉산은 왕실의 재궁감이나 건축용재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민의 벌채 및 이용을 금지하여 관리한 황장봉산, 왜구와의 싸움을 대비하거나 물길을 이용한 물품 운송을 하기 위해 특별히 조선용 소나무를 금양한 봉산, 유고국가인 조선에서 제사용 용기를 만들기 위하여 만든 밤나무봉산(栗木封山), 왕실 자손의 태를 地氣가 좋은 곳에 묻어 관리했던 胎封山 그리고 아직 설정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참나무봉산(眞木封山) 등이 있다(박봉우 1993).

조선시대에 陵 주변에 소나무를 많은 심은 이유는 형태적으로 늘 푸르고, 곧게 자라고 뿌리를 깊게 내려 지반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생리생태적으로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 잘 견디며 오래 살아 십장생의 하나로 번영을 뜻하며, 주변의 깨끗하게 해주고 묘사스러운 귀신을 막아 주는 辟邪 기능을 한다. 소나무는 건축, 가구, 선박, 왕실의 관을 만드는 棺槨材로 사용되면서 선택적으로 보호했다(이선 2006).

6. 소나무의 생태

역사시대 때부터 산림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산은 헐벗었지만 그나마 남은 숲이 해충의 공격으로 수난을 겪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 우리 소나무 숲은 송충이의 피해로 그나마 남은 솔숲도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이후 산에서 나무를 베고 낙엽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숲이 울창해지자 소나무 숲의 바닥에 햇빛이 덜 비치면서 숲속의 온도가 내려가고 습해지면서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에 의한 소나무 해충 피해가 컸다.

1990년대부터는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를 죽게 하는 소나무 材線蟲病에 의한 소나무의 피해가 심각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내에서 빠르게 증식하여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한 이유는 병이 발생하면 건강하고 튼실한 소나무부터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김외정 2016).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에 일본으로부터 부산 금정산에 도입되어 처음 발생한 이래 부산, 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매년 발생지역과 피해 면적이 넓어지고 피해 숲도 쉽게 줄지 않는 추세이다. 소나무재선충을 퍼지게 하는 주요 원인은 감염된 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8개 동북아 국가도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었으며, 일본에서 1905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홋카이도를 뺀 지역의 소나무를 모두 사라지게 할 위기에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가 0.6~1mm 정도로 주로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솔수염하늘소이나 주로 중북부지방에 사는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의 수액을 빨아먹는 과정에 소나무로 옮겨가며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말라 죽게 한다.

재선충의 매개곤충인 솔수염하늘소는 100m 정도는 스스로 이동하며, 때로는 태풍에 실려 멀리 퍼지기도 하고,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에는 다른 병해충과 함께 퍼져나간다. 재선충병을

일으키는 재선충과 숙주인 솔수염하늘소는 공생하는 사이이다.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는 건강한 소나무에 기생할 수 없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성충은 쇠약한 소나무에 알을 낳는다. 그 뒤에는 건강한 소나무에 재선충을 옮겨 죽음에 이르게 한다. 솔수염하늘소가 솔잎의 수액을 빨아 먹을 때 옮겨가는 재선충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 해송 등을 말라죽게 한다.

재선충이 침입하면 소나무는 6일째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에 잎이 시들어 30일 뒤에는 잎이 빠르게 붉은 색으로 바뀌고 말라죽는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년 내에 90%가 죽고, 2년 내에 나머지가 죽게 되어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천적도 없어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죽는다. 그러나 최근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가시고치벌(*Spathius verustus*)이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어린 애벌레 시기의 천적임을 밝혔다. 가시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 애벌레 표피에 알을 낳아 기생한다. 가시고치벌 애벌레는 솔수염하늘소 애벌레의 체액을 빨아먹고 자라며 결국 솔수염하늘소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을 기술이 개발되어 소나무가 말라죽은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말라죽은 나무를 베어서 1~2m³ 크기로 쌓아놓고 燻蒸劑를 뿌리고 비닐을 씌운 후 훈증제 연기를 이용하여 목질내부에 있는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성충으로 나오기 전에 죽인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남한의 백두대간의 소나무 숲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지역에 확산되면 견잡을 수 없는 생태적 재앙이 되므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한 때 우리 산림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소나무는 국토개발, 소나무재선충병, 산불과 수종갱신 등으로 그 면적이 23% 정도로 줄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은 다른 생물의 생활과 분포에 도움을 주지만 해충과 병균은 식생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7. 나오는 글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한 나무이며, 이 땅에 살아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랜 전에 출현하여 지금도 가장 넓은 분포역과 비중을 가지고 산림을 구성하는 이 땅의 토종이자 대표종이다. 한반도의 풍토에 적응해온 소나무는 장대한 모습부터 뒤틀리고 왜소한 모습까지 지역의 풍토에 알맞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소나무의 분포와 형태적인 특성은 지역의 환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살아있는 식물학적 지표이기도 하다.

소나무속(*Pinus*)은 현존하는 나무 가운데 화석으로 출현한 시기가 빠른 종류로 오늘날에도 분포지가 넓고 종다양성이 높다. 한반도의 침엽수는 고생대 페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소나무속은 중생대 백악기에 한반도에 등장하여 화석으로 남아있다. 소나무속은 신생대 제3기와 제4기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를 거쳐 현재까지 한반도의 토종으로 생존하고 있다.

홀로세 후기에 소나무속 꽃가루가 증가한 것은 산불이나 벌채 등 인간의 간섭이 활발해지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토양이 척박해진 것과 관련된다. 특히 햇빛이 잘 들고 건조하며 척박한 토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陽樹인 소나무속 가운데 2개의 바늘잎을 가진 재래종 소나무가 널리 분포하게 되었다.

소나무는 분류학적으로 침엽문 침엽강 소나무아강 소나무목 소나무과 소나무속에 속하는 5가지 자생종 가운데 하나이다.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비교적 온난하고 척박한 곳에서 우점한다.

소나무는 고구려 진파리 벽화와 신라 황룡사 담장, 고려시대 불화인 수월관음도에도 등장하

였고, 조선시대 화공들이 즐겨 그렸던 대상이었으며 왕의 집무공간에도 함께한 일월오봉도에도 소나무는 함께 하였다. 소나무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 조선시대 고문헌들에 따르면 소나무는 지역의 중요한 물산으로 조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었다.

조선시대 동안 소나무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지방까지 분포지가 확대되었다. 소나무가 널리 분포하는데에는 자연생태적인 요인과 함께 다른 낙엽활엽수는 접목으로 취급하여 벌목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고려시대 이후 소나무를 보호하는 松政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선택적인 산림정책과도 관련된다.

소나무는 시, 그림의 소재로 오래 전부터 선택되었고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로 시, 음악, 사진 등 예술세계의 모티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의식주에 필요한 재료를 계절에 따라 산속의 소나무와 솔숲에서 구하면서 삶을 이어왔다. 사람의 일생도 태어나서부터 죽은 뒤까지도 소나무를 이용하고 솔숲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소나무는 산림이 헐벗었던 1970년대까지는 송충이 피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숲이 우거지면서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했다. 1988년에 일본을 거쳐 도입된 소나무재선충은 빠른 속도로 전국의 소나무에 매우 큰 피해를 주면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함께해 온 소나무의 미래가 병해충, 산불, 기후변화, 개발, 숲의 천이, 수종 개량 등으로 밝지 않다. 소나무를 식물지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과거 식생 환경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우석, 1995, “한반도 송백류의 시공간적 분포역 복원,” 대한지리학회지 30(1), 1-15.
- 공우석, 2003, 한반도 식생사, 대우학술총서 556, 아카넷.
- 공우석, 2004, “한반도에 자생하는 침엽수의 종 구성과 분포,” 대한지리학회지 39(4), 528-543.
- 공우석, 2006, “한반도에 자생하는 소나무과 나무의 생물지리,” 대한지리학회지 41(1), 73-93.
- 공우석, 2007, 생물지리학으로 본 우리 식물의 지리와 생태, 지오북.
- 공우석, 2016, 침엽수 사이언스 I: 한반도 소나무과의 식물지리, 생태, 자연사, 지오북.
- 김외정, 2016, 천년도서관 숲, 메디치.
- 박봉우, 1993, 황장목과 황장봉산, (전영우 편), 소나무와 우리 문화, 116-122, 두솔.
- 산림청, 2016,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 산림청, 2017, 임업통계연보 제47호, 산림청.
- 신문현 · 임주훈 · 공우석, 2014, “산불 후 입지에 따른 소나무 분포와 환경 요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7(2), 49-60.
- 신준환, 2018, 행복한 나무, 지오북.
- 이광희 · 박원규, 2010,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건축물에 사용된 목재수종의 변천,” 느티나무와 우리 문화, 숲과 문화 총서 18, 3-27, 도서출판 숲과 문화.
- 이상현 · 전희영 · 윤혜수, 1999, “화분분석에 의한 한국 중서부 저지대의 4,000년 전 이후 고환경,” 한국제4기학회지 13(1), 1-23.
- 이선, 2006,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수류산방.
- 이승녕, 1994,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정희 · 김준민, 1982, “영랑호, 월함지, 방어진의 제4기 이후의 식피의 변천,” 식물학회지 25(1), 37-53.
- 安田喜憲, 塚田松雄, 金遵敏, 李相泰, 1980, 韓國における環境變遷史と農耕の起源, 文部省學術調査報告, 1-19.
- Kong, W.S. & Watts, D., 1993, *The Plant Geography of Korea*, Kluwer Academic Publishers, The Netherlands.
- Kong, W.S., 1994b, “The vegetational history of Korea during the Holocene period,” *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8(1), 9-22.
- Kong, W.S., Lee, S.G., Park, H.N., Lee, Y.M., Oh, S.H., 2014, “Time-spatial distribution of *Pinus* in the Korean Peninsula,” *Quaternary International* 344(1), 43-52.
- Kong, W.S., Koo, K.A., Choi, K., Yang, J.C., Shin, C.H., Lee, S.G., 2016, “Historic veget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s since the 15th century in the Korean Peninsula,” *Quaternary International* 392, 25-36.
- <http://herbaria.plants.ox.ac.uk/bol/conifers>

일제강점기 가축 질병의 분포와 확산

천명선(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 서론

동물의 질병은 병원체와 동물과 인간 행위 및 환경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질병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다중적인 현상이며 지리학은 질병의 병원체 요소(pathogens)와 지리학적 요소(geogens)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May 1950). 또한, 인간 사회에 소속된 가축의 전염병은 특정한 병원체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현상임과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이에 반응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다(Woods 2011). 따라서 한 사회가 특정 질병을 어떤 맥락에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은 질병의 공간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인류에게 가장 익숙한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인 탄저(anthrax)는 오랜 시간 동안 “저주받은 땅의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모공장의 선별자들의 전염병으로 공장과 무역에서 중요한 질병이 된다. 19세기 말 미생물 발견의 시대에는 실험실에서는 병인론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되었고 예방 백신과 살처분 정책으로 곧 인류에게 제압당했다. 그러나 21세기 다시 도시 한 복판에서 “백색 가루”의 공포로 나타난 이 질병은 생물학적 무기로 새로운 인식의 틀에 담긴다(Jones 2010).

가축은 인간의 의도와 필요에 의해 특정 지역에 배치된 것이다. 어떤 가축종이 특정 지역에 특정 시기에 도입되고 사육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구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야우드와 에반스(Yarwood and Evans 1999)는 영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주의(productivism)의 틀에서 자본집약적인 농장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 새로운 가축 품종들이 도입되고 원래 지역별로 특화된 원래의 사육종(재래종)들이 급격히 사라져 갔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스트 생산주의의 영향 아래 지역 재래종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농장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관광 산업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은 질병 발생과 전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18세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소를 몰살시켰던 우역(rinderpest)은 19세기 말 유럽으로부터의 군대 이동과 인도로부터의 소 반입을 통해 아프리카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후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일부 지역에서는 사육 중이던 소의 약 90%에 이르는 폐사율을 기록했다(山内一也 2009, 31-7).

또한, 인간과 가축이 함께 하는 공간인 농촌 환경은 사람의 관리를 철저하게 받는 가축의 공간과 느슨한 관리의 영역인 야생의 공간 그리고 인간의 생활공간이 함께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에서 동물의 공간은 동물의 습성과 거주지는 인간의 것에 맞도록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공간은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과 진화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은 “라이프스케이프(Lifescape)”, 즉, 이들이 자신이 사는 환경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방식이 파괴되는 고통에 처하게 된다(Mort 외 2005). 그뿐만 아니라 사회와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축과 인간의 공간은 기존에 없던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우즈(Woods 2007)는 농업 생산력 향상이 강조되던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국가의 공권력 아래에 수의사라는 전문가가 생산의학

(reproductiv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전문 영역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 관리에 개입하면서 축산업의 프레임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른바 ‘농장의 병원화’로 비유한 바 있다. 이처럼 가축의 질병이 가지는 지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질병을 분류함에 가축과 질병 분포의 지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단지 병원체의 전파나 방역을 위한 행정구역의 구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20세기 초반 사회와 산업의 격변 속에서 축산과 동물 질병의 변화는 큰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에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소, 돼지, 닭의 생산량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그 사이 돼지와 닭은 재래종 사육의 급격히 감소하고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수입한 개량종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소의 전염병(牛疫),’ ‘돼지의 전염병(豚疫)’ 등으로 각각의 질병을 감별하지 않던 가축의 질병은 우역(rinderpest), 탄저(anthrax),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등 근대적 이름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朝鮮獸疫豫防令(1915)’ 등 가축의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예방 접종과 살처분을 강제화할 수 있는 법체계가 도입되어 검역과 방역이라는 가축 질병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축산 또는 가축위생 통계가 시작되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반도 내 가축 질병 분포의 지역별 특성과 각 질병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 사회적 대응 방식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조선수역예방령’이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10개의 가축 질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군사용인 말과 소수로 사육된 양, 당나귀 등을 제외한 소, 돼지, 닭 그리고 개의 질병을 다룰 것이다. 각 질병은 지리적 분포에 따라 1) 국경형 질병(우역, 구제역, 우폐역), 2) 토착형 질병(탄저, 기종저, 광견병), 3) 유입형 질병(돈역, 계역)으로 구분하였고, 당시 통계가 구분한 행정구역 상 13개 도의 가축 분포, 질병 분포(발생), 주요 발생 시기, 가축 질병 제어 방식(정책, 사회적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가축전염병의 지리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한반도 가축종의 개량화와 가축의 분포

1883년 報聘使로 미국을 다녀온 온 최경석은 농업개량을 목적으로 월콧 모범농장(Walcott Model Farm)을 모델로 하여 농무목축시험장을 설치했다. 망우리 부근 東籍田 부근에 미국에서 들여온 말 세 마리, 저지(Jersey)종 젖소 세 마리, 돼지 여덟 마리 등을 키운 것이 그 시작이다. 조선은 갑오개혁 이후에는 종목국을 농상아문의 외청으로 두고 가축 시험장의 역할을 지속해 나갔으며 조직은 궁내부의 종목과로 변경하고 내장원의 전생과를 포함시켜 가축시험농장을 지속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1902년에는 프랑스인 기사 쇼트(M. Schott)를 고용하여 신촌에 사육장을 설립하고 젖소, 돼지, 면양 등을 키웠으나 우역과 돈역으로 실패하고 만다. 당시 사육 규모는 각 축종 당 수십 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영진·홍은미 2006). 이후 일제가 주도하는 勸業模範場이 수원에 창설되면서(1906) 일제의 농업 및 축산 정책의 이식이 진행된다. 일본은 식민 지배 이전부터 한국 내 축산 상황과 가축 전염병 상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時重初態 1907). 이 정보는 식민지의 축산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권업모범장은 종금과 종돈의 배부를 비롯해 한국 농업을 일본식으로 개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김도형 2010). 1907년에는 권업모범장은 버크셔 종과 재래종 돼지, 메리노 및 사우스다운 면양, 와이안도트, 프리머스룩, 담황색 코친, 안달루시안, 나오야 코친 종의 닭 그리고 거위와 집오리, 꿀벌 등을 갖추었다. 일본은 조선 재래종 돼지가 비육이 잘되지 않아 육용 동물로서 경제 가치가 없다고 보고 개량을 시도하였고, 닭의 경우 개량종으로 오픈톤, 나고야 코

친, 프리마스 록, 와이안 도트, 실버 스파쿠르도, 햄버그, 량산, 흑생 미노르카 종을 등을 수입하여 시험 육성하고 부화하여,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서 사육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의 경우 이전에 수입된 에어서 종과 1909년 새롭게 수입한 심멘탈종을 시험 사육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2005, 11-40). 1911년 권업모범장 대구지장에서 시작된 種牛所는 각 지역에서 우량한 재래종 수소를 사육하고 이를 일반 농가의 암소와 교배하거나 각 도에서 종모우를 구입하도록 하여 지역 축우의 개량을 시도했다. 돼지의 경우 버크셔와 재래종을 교배한 개량종을 지역별로 모범 부락을 설치하여 이 부락에서 생산 한 돼지를 일반에게 보급하도록 하였다 (강면희 1994, 266-276). 닭의 경우, 이미 1909년 경기도의 용산, 인천, 개성, 경성, 평안북도의 의주, 평안남도의 평양, 황해도 해주, 충청북도 청주, 전라북도 익산, 전라남도 목포, 경상남도 진주, 부산, 삼랑진, 경상북도 대구에 일본에서 수입한 플리모스 록, 나고야 코친 종을 배부했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백색 레그혼, 플리모스 록, 나고야 코친, 로드 아일랜드 종을 장려품종으로 지정했다(강면희 1994, 276-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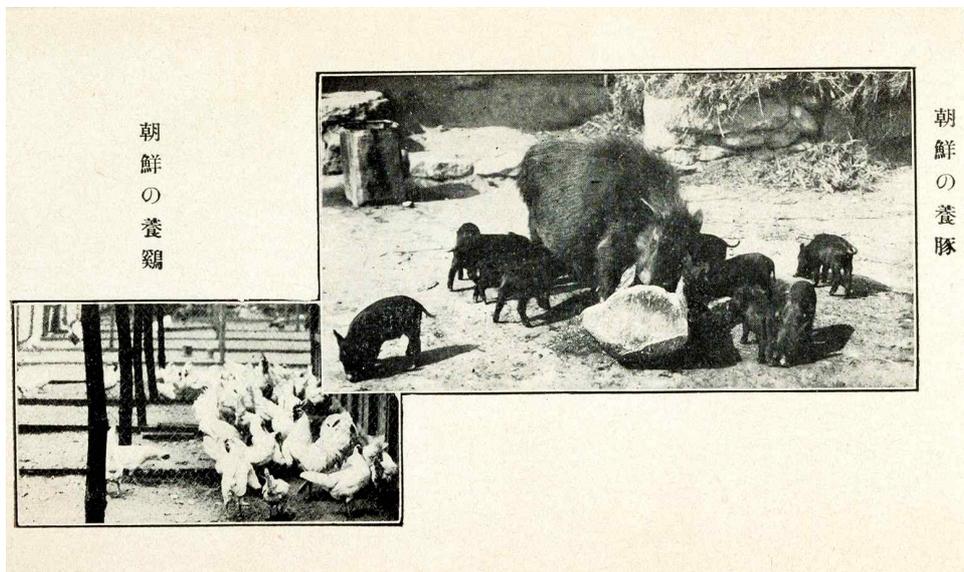


그림 110. 조선의 양돈과 양계의 모습(朝鮮畜産協會, 1927, 내지 화보)

축산의 근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가축 전염병의 제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고, 1930년대에는 일제가 농가 수입의 15~50%까지를 축산이 담당하는 이른바 유축농업을 장려하면서(三浦洋子 2008) 가축의 사육두수는 일제 강점기 말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돼지와 닭은 재래종 사육이 줄고 개량종(또는 수입종)의 수가 재래종을 넘어서게 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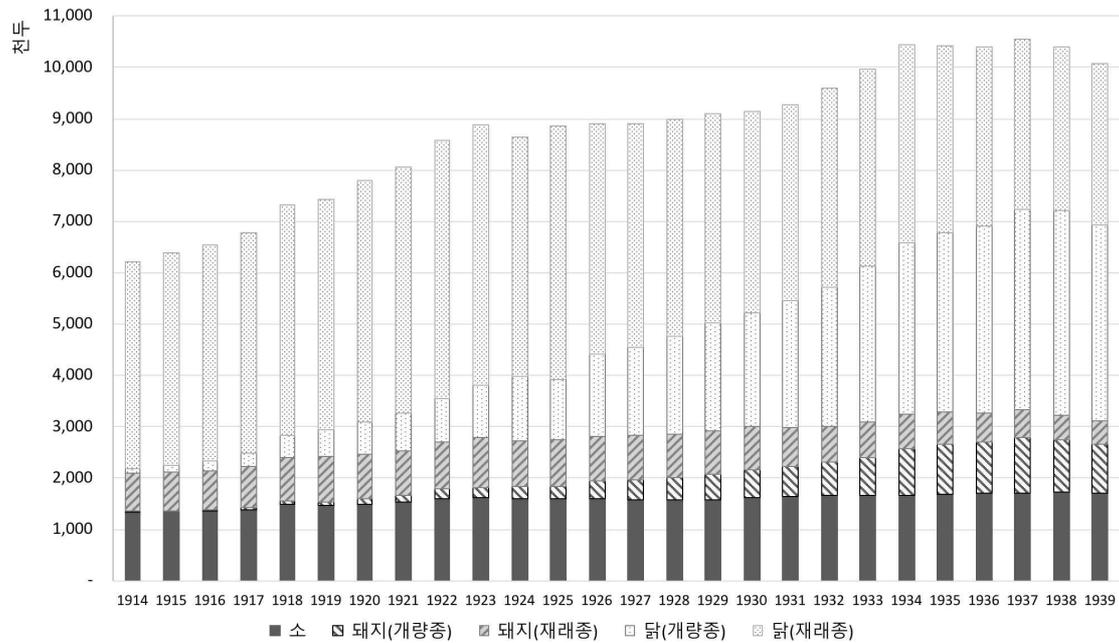


그림 111. 한반도 내 가축(소, 돼지, 닭) 사육수의 변화(1910 -1939;朝鮮總督府 1943)

조선축산협회가 발간한 조선축산의 개요(1927)에 따르면 소는 본래 조선 각지에서 고루 사육되고 있었으며, 농가의 부업으로 여겨지는 돼지는 경성, 인천 부근, 평양, 대구, 마산, 원산, 의주 부근에서 사육이 활발했다. 조선총독부 관보와 축산통계를 참고하여 1909년, 1925년, 1941년 각 시기의 소, 돼지, 닭의 수를 비교해보면 축종별 지역 내 사육 수 변화 차이를 볼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 사육되는 소의 수는 약 30년 동안 세 배가 되었으며 돼지와 닭도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했다(표 1).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보다 가축의 수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소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크게 증가했다. 돼지는 충청북도, 경상남도, 평안북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율이 컸다. 또한, 닭은 함경북도와 전라남도, 경기도, 평안남북도에서 사육수가 증가했다. 각 지역별 인구대비 가축의 수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전라도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6. 일제 강점기 지역별 가축 수의 변화

축종	소				돼지				닭			
	1909*	1925**	1941***	증감	1909	1925	1941	증감	1909	1925	1941	증감
경기도	63,075	109,132	128,536	104%	41,780	80,478	58,246	39%	177,763	608,860	556,247	213%
충청북도	17,030	55,975	72,599	326%	12,554	34,329	58,706	368%	183,811	149,331	145,160	-21%
충청남도	19,874	52,387	77,204	288%	33,060	43,072	70,269	113%	142,650	306,784	307,014	115%
전라북도	18,492	49,164	69,472	276%	31,216	106,709	80,986	159%	110,600	429,493	270,516	145%
전라남도	35,398	127,006	147,393	316%	79,701	142,920	218,475	174%	171,817	651,719	804,707	368%
경상북도	77,517	179,311	196,674	154%	27,042	48,654	80,225	197%	311,508	663,811	456,039	46%
경상남도	64,974	163,083	170,225	162%	22,329	61,959	97,896	338%	122,309	385,076	326,488	167%
황해도	49,988	126,885	143,125	186%	77,835	100,750	121,480	56%	301,737	644,649	750,551	149%
평안남도	59,598	100,112	125,791	111%	40,924	77,966	109,453	167%	168,897	555,353	639,920	279%
평안북도	39,321	191,765	184,793	370%	48,724	153,656	163,850	236%	264,931	726,245	843,476	218%
강원도	67,515	179,289	198,188	194%	58,224	80,410	76,923	32%	280,439	409,315	410,827	46%
함경남도	83,661	172,126	157,727	89%	73,369	114,638	107,582	47%	188,519	376,702	433,830	130%
함경북도	31,699	84,771	82,817	161%	29,670	104,486	82,951	180%	36,443	213,239	240,217	559%
합계	628,142	1,591,006	1,754,544	279%	576,428	1,150,027	1,327,042	230%	2,461,424	6,120,577	6,184,992	251%

주: *1909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86호(1910.12.10.), p.44; **1925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4139호 (1926.10.7.), pp.70-72; ***1941년: 조선총독부농림국 축산통계(1943), p.95

3. 한반도 내 가축 질병의 분포와 방역

1907년 일본인 수의사 도시지계(時重初雄)는 한반도의 “소 질병은 우역, 탄저, 기종저, 유행성아구창(구제역) 등이 있으며... 당시 수역 치료 및 도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인 의료의 소양이 없는 자로서 이들의 진단에 의하면 우역이라 칭하나 모두가 같지 않으며, 때로는 탄저가 있고, 때로는 기종저가 있으며, 어떤 것은 고창증도 있는 상태이다. 단지 병증에 의하여 전염하는 것을 우역이라 하여 타와 변별하였다”라고 하였다(時重初雄 1907). 근대적 병인론이 자리를 잡은 19세기 이후 수의학에서 질병을 감별하는 것은 특정 병원체에 대한 이해가 해당 질병을 제어 또는 제거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당시의 질병 감별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병인체를 감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질병 제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질병의 발생과 전파에는 다양한 산업적 이해관계와 농촌 환경과 인간 행위라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의 지리적 분포에 따른 구분은 병원체의 특성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

1) 국경형 질병(우역, 구제역, 우폐역)

우역, 구제역, 우폐역은 국경 주위의 가축 이동이나 교역을 통해 외부(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국경형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치사율이 높거나

전파가 빨라서 농업과 교역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전염병이 시작되는 지점과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가 유리하다. 가축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경과 항만 지역에서는 근대적 검역 행정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관련 전문가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질병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천명선·심유정 2015).

전통 수의학에서 “牛疫”은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우역(rinderpest)과는 다르다. 그러나 17~18세기 지속해서 한반도에 발생했던 소의 전염병(牛疫)은 그 전파 양상과 폐사율로 볼 때 우역(rinderpest)이 유력하다(이항·천명선 2015, 62-67). 당시 우역은 대개 중국과의 국경인 함경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다(이항·천명선 2015, 32-41). 20세기 초반에도 우역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역이라 불리는 질병 중에 구제역(유행성 아구창)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질병의 주요 발생 지역은 한반도 북쪽 지역이었다. 16세기 유럽에서 처음 발견된 우폐역은 1920년대에 한반도로 유입된 새로운 종류의 질병으로 동양 최초로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만주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폐역은 평안남도에서 처음 진단되었고 2년여 동안 평안남북도에서 지속되었다(山脇圭吉 2008, 2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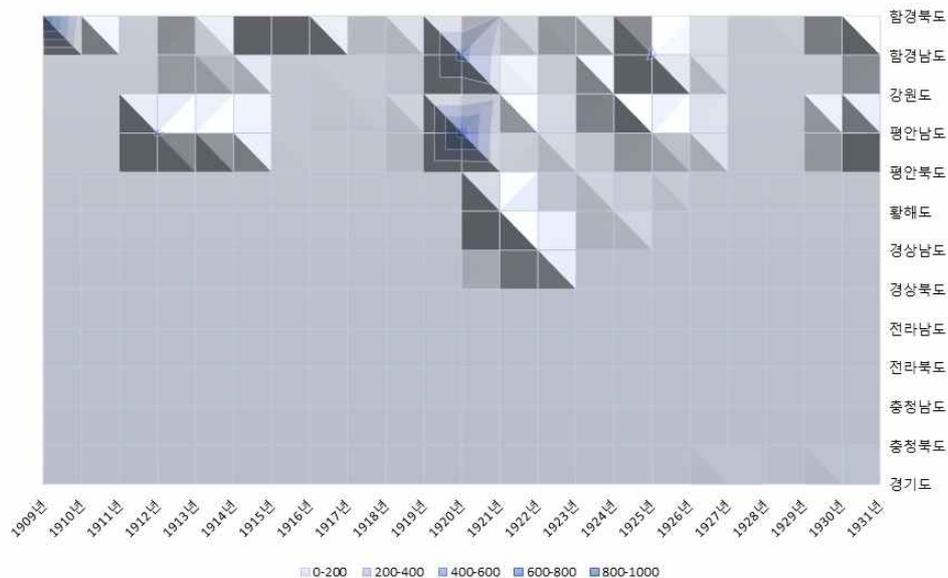


그림 112. 우역의 지역적 발생(1909-1931; 朝鮮總督府 1942)

“최근 조선 우역유행은 1870년이다. 조선에서는 북부를 통해 남부까지 만연한 것이 2,3년 재기 4,5년마다 유행하였다. 대유행이 심했던 것은 1892년, 1894년, 1895년과 1902년, 1903년, 1908년이다. 1892년 및 1895년에는 전 도에서 만연되었으며, 1902년에는 경상도에서 유행했고, 1903년에는 전 도에서 유행했다. 평양 부근에서는 100 마리 중 살아남은 것이 불과 4, 5마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1920년에는 1,100마리, 1921년에는 700마리에서 발생하였다(山脇圭吉 2008, 262).”

일본 수역조사소장이었던 야마와키(山脇圭吉)가 정리한 바와 같이 일제는 한반도 내 우역의 유행 양상을 연도별로 파악하고자 했고 식민지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역은 일제가 파악한 바와 같이 함경, 평안, 황해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때로는 경상도 지역까지 퍼졌다(그림 3). 일제는 일본의 우역은 “북부를 거쳐 남부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유입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한반도는 일본으로 우역의 유입을 막는 “만리장성”의 구실을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방역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대한제국 최초의 검역법인 “수출우검역법(1909)”을 제정하고 우역 면역 혈청을 조선에서 직접 제조하는 전략을 취했다. 일제는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5만여 마리의 소에 동시에 우역 면역 혈청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우역면역시대”를 형성했다. 1912년 함경도청 경성읍 이북의 무산, 회령, 온성, 경흥, 경원 등 모든 군의 소에 3, 4월, 6월, 7,8월, 10, 11월 총 4차에 걸쳐 공동주사를 시험했다. 접종 후에는 소들을 격리하고 말, 돼지, 개 등의 가축과 사람의 통행도 금했다.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던 우역은 1920년의 다시 평양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에 불활성화 백신을 제조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1200km의 면역지대를 구축하고 매년 1회 모든 소에게 접종했다(朝鮮總督府 2008, 48-80). 면역시대 형성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이후 급격히 발생이 감소하였고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에서는 발생하였으나 충청 및 전라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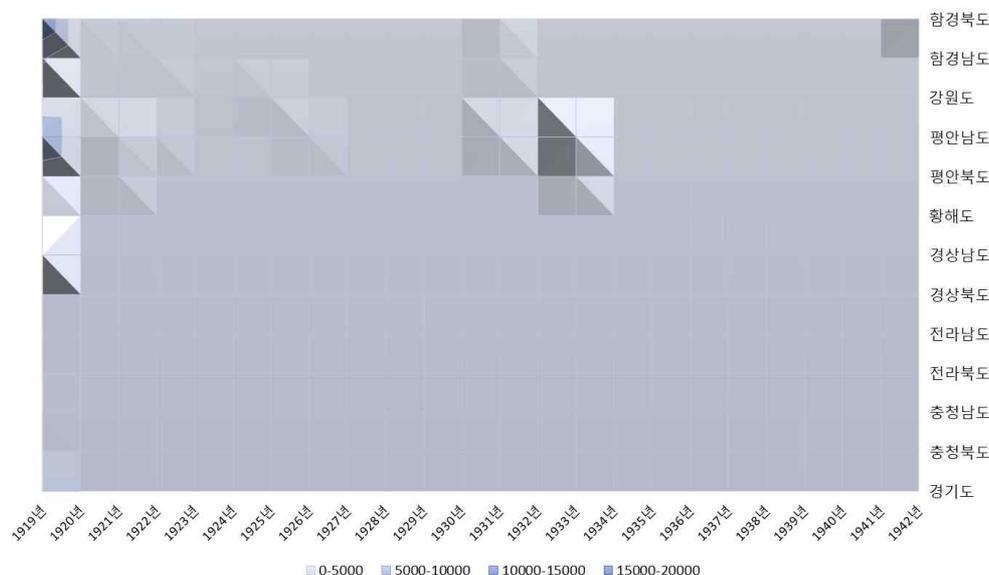


그림 113. 구제역 지역별 발생(1919-1942: 朝鮮總督府 1942)

구제역의 발생과 방역도 우역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4). 1914~1919년까지의 발생은 전국적 규모로 경기, 충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까지 발생하였지만, 1931~1933년 구제역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에 국한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만주를 통해 조선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했다. 한반도 내에서 발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1933년의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한 조선 이출우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일본의 검역기관을 긴장시켰다. 소가 도착하기 전 이미 평안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전해졌고, 입항 시부터 경

계를 강화하고 있었던 일본은 항구에 3개월 간 이출우를 계류하면서 109일간 경과를 기록했는데 계류된 소들 사이에서 구제역 감염은 10일 이내로 매우 급속하게 일어났지만 30%는 30일 내에, 다른 30%는 50일 내에 회복했고 만성 경과를 보인 소는 37%, 병세가 심해져 폐사하거나 살처분 한 소는 1.6%였다. 해당 지역에서 교통 차단과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한 결과 크게 전파되지 않았고 회복한 소들은 각 지역으로 방출되었다(山脇圭吉 2008, 169-202).

우폐역은 한반도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에서 북도로 통하는 안만도로에서 우편발송을 위해 상실된 짐을 끄는 소”에서 처음 발생한 우폐역은 이후 평안남북도로 퍼져나갔다. 국경과는 거리가 있는 평안남북도의 경계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침입경로를 알기 어려웠으나 러시아와 만주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의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1922년 평안북도의 회천군, 강계군, 영변군, 후창군, 평안남도의 안주군, 개천군, 덕천군, 대동군, 강동군으로 퍼진 우폐역은 400마리의 소를 감염시켰다(山脇圭吉 2008, 220-223). 가축위생통계는 1923년에 397두, 1924년 269두, 1925년 26두 이후 1927년 85두 감염 이후에는 발생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가 1941년 53두가 감염되었다(朝鮮總督府 1942). 1930년 개정된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에는 우폐역이 법정전염병으로 포함되었고, 치료나 예방하지 않고 발생 시 살처분하는 강력한 방역 방식이 적용되었다. 당시 우폐역은 “동양 최초”로 발생한 것이고 “무서운 병, 가공할 우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제는 우시장을 폐장하고 소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국경 지역의 우차 왕래가 차단되어 교역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동아일보, 1926년 2월 1일 2면 기사).

2) 토착형 질병(탄저, 기종저, 광견병)

우역 등 국경 지역과 교역로를 중심으로 전파된 질병과는 달리, 그 시작을 알 수 없지만 오랜 동안 토착화된 가축 질병도 축산의 규모가 커지고 방역제도가 근대화 되는 시기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수역예방령이 지정한 가축질병 중 탄저와 기종저는 전국 지역에 퍼져있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폐사율이 높아 축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 예방접종이 중요했다. 토착형 질병은 일제 강점기 동안 꾸준한 감소를 보였다. 다만, 일제 강점기 초기 축견등록과 ‘野犬撲殺’법을 적용했던 광견병은 발생이 크게 줄지 않았고, 축견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에야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려사에 “병든 소를 도살한 사람의 손이 불에 덴 것처럼 벗겨져서 죽었다”라고 표현된 탄저는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1920년대 이전까지 연간 천 두 이상의 가축을 감염시켰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서 1930년대에는 이전의 10% 수준으로 그 발생이 감소했다. 당시 탄저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였지만, 특히 황해도, 경기도, 평안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발생 규모가 비교적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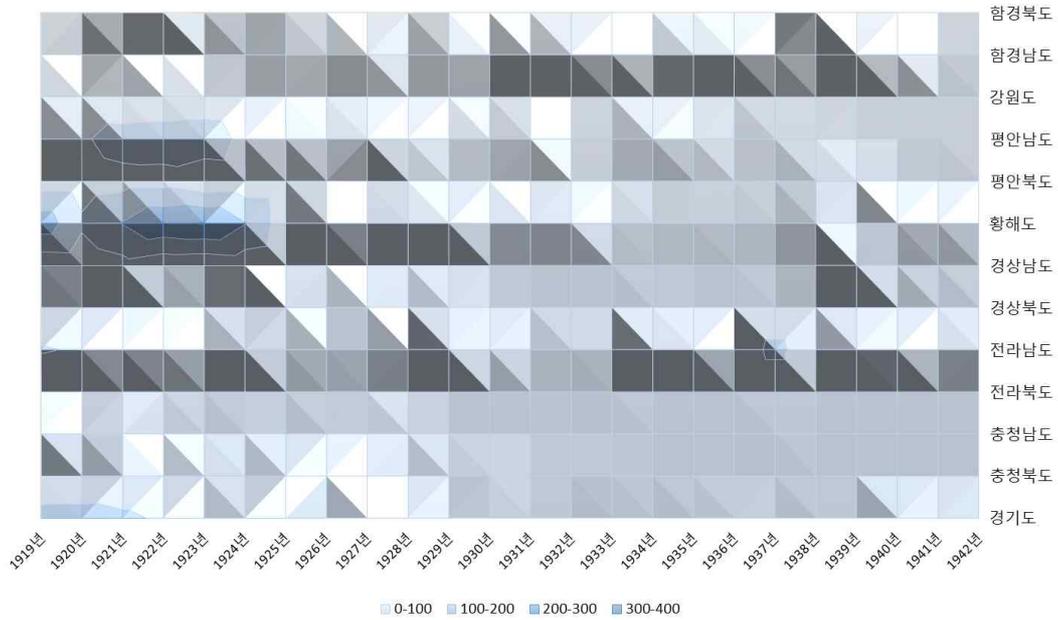


그림 114 탄저의 지역적 발생(1919-1942; 朝鮮總督府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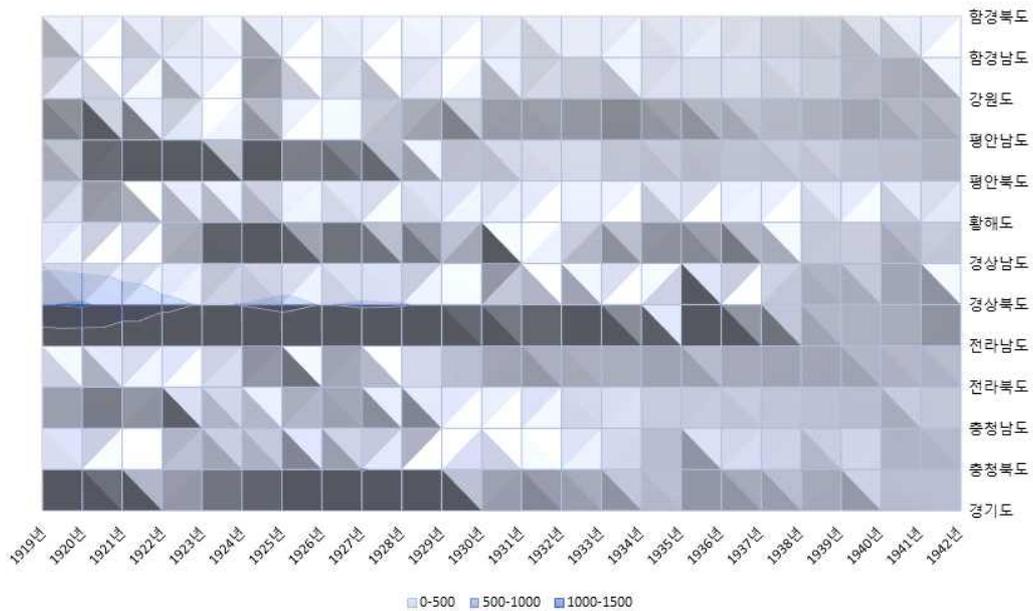


그림 115. 기종저의 지역별 발생(1919-1942; 朝鮮總督府 1942)

근대 세균학의 발전과 함께 병원체의 특성과 백신 제조법이 이미 알려져 있던 탄저의 면역 혈청이 개발되어 있었다. 1907년 대한제국 정부에 촉탁으로 임명된 하라지마 젠노스케(原島善之助)가 대구에서 시험적으로 탄저 발생 지역 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한반도의 첫 예방

접종으로,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1908년부터 공식적으로 예방 접종이 시행되었다. 이후 충남, 전남, 경상, 평안도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접종 후에는 발생두수가 80% 이상 감소한다. 또 다른 세균성 질병인 기종저는 감염된 동물이 고열과 감염 부위의 근육에서 나는 머리카락 비비는 소리로 특징된다. 탄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반도 전역에 상재한 질병으로 1930년대 이후로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

광견병은 탄저나 기종저와는 다르게 주요 감염 동물이 개다. 개는 사람과 활동반경이 동일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광견병의 위협은 개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인식된다. 광견병의 지역적 분포는 다른 가축 질병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전통 사회에서 개는 묶여있거나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주요 역할이었다. 사람을 위협하는 개, 사람을 무는 개는 '미친개'로 인식되고 이는 광견병에 걸린 개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외지인에 대한 공격, 도시화 된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제어되지 않은 개는 위협이었고 이들은 "야견"으로 취급되어 도살의 대상이 되었다. 광견병에 대해서는 매개 동물인 개를 살처분 하는 정책과 축견 예방 접종이 함께 진행되었지만 다른 가축 질병과 비교할 때 발생 규모가 급격히 줄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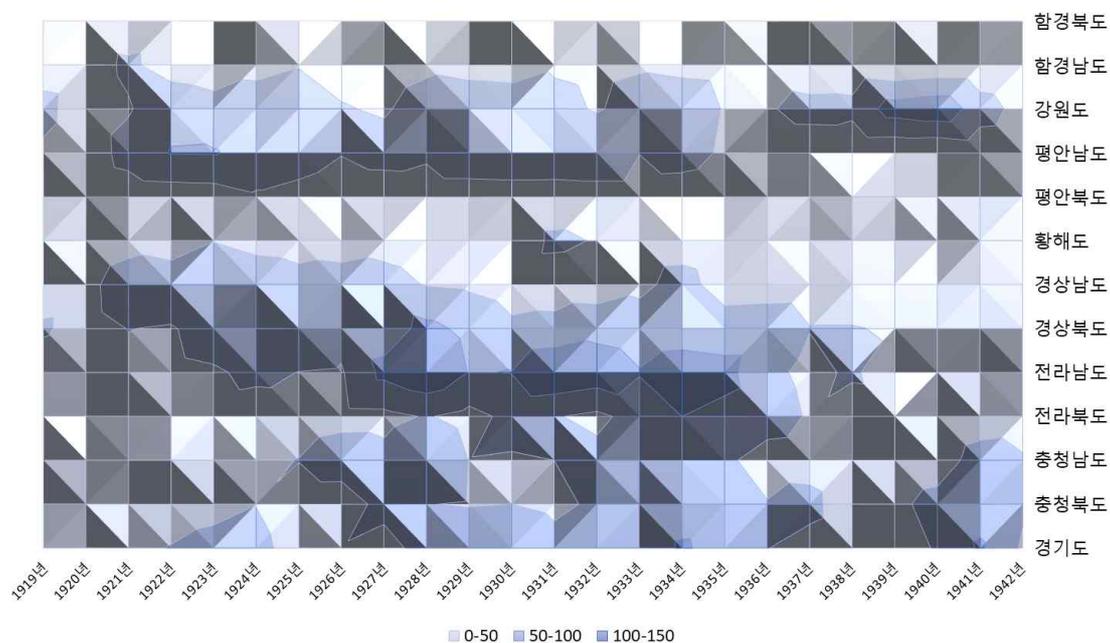


그림 116. 광견병의 지역적 분포(1919-1942; 朝鮮總督府 1942)

3) 유입형 질병(돈역, 계역)

전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돼지와 닭은 대대적인 품종 개량이 진행된 축종이다. 개량종은 이미 사육 규모가 큰 곳으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배치되기도 한다. 대개의 개량종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축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돼지에서 1888년 돈코레라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山脇圭吉 2008, 92-94). 이 경우 개량종이 배치된 지

역에서 새로운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돼지의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돈역”으로 일컫고 돼지호열자(돈코레라, 돼지열병)를 제외하고는 감별하기 어려웠다. 1908년 경 순천에서 발생한 돈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돼지열병으로 의심되지만 이후에도 세균성 질병인 돈라사역(돈단독), 돈역(돼지 출혈성 패혈증)과 구분되지 않은 돈역, 돈호열자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돈역은 황해도, 평안, 함경, 강원 지역에서 집중적인 발생을 보였다. 1925년의 예를 보면, 버크셔종이 주를 이룬 개량종은 경기, 황해, 평안남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사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돈콜레라의 발생과 대개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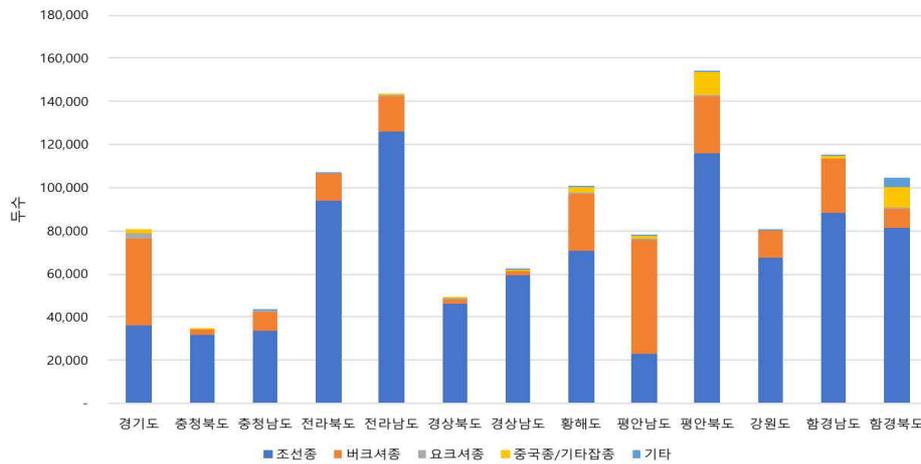


그림 117. 돼지 품종별 지역분포(1925; 朝鮮總督府 官報 第4139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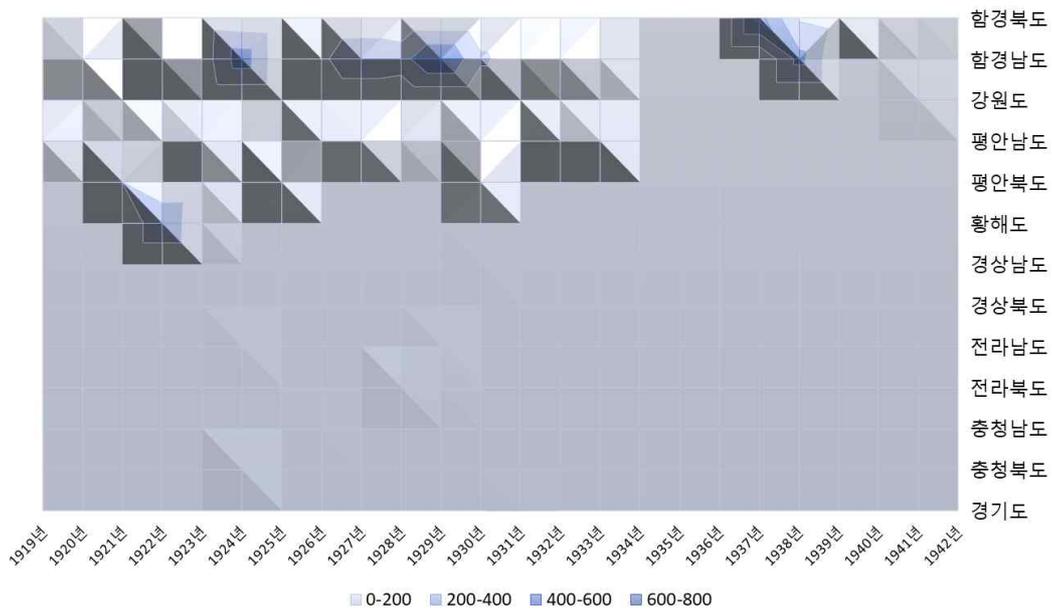


그림 118. 돈코레라(돼지열병)의 지역적 발생(1919-1942; 朝鮮總督府 1942)

계역 즉, 닭의 전염병은 수역예방법(1930)에서야 법정전염병을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전 통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계역이 특별히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25년 평양지방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간 유행병부터이다. “닭들이 먹지 않고 누르고 흰 똥을 싸며, 남색으로 변해 이들 안에 죽는”이 병은 1926년 7월 중국에서 함남지역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긴 했으나 1925년경 일본에도 ‘가금 호열자’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후를 정하기는 어렵다. 부산의 우역혈청제조소는 1925년 평양의 계역부터 표본을 채취하여 연구에 들어갔다. 이후 계역은 평양, 함경남도, 충청북도를 거쳐 한반도 전역에 퍼졌다. 1926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계역은 폐사율이 100%인 강력한 전염병이며 3만수 이상의 닭이 죽었다. 피해는 경기도에서 가장 컸다. 조사를 맡은 우역혈청제조소는 질병이 뉴캐슬병이라고 의심했다(朝鮮總督府 2008, 103-118). 1926년 함남지방에서의 7월경 발생한 계역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경기도와 평안도 지역의 개량종 분포가 높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계역에 대한 항혈청은 조선총독부의 지시 하에 우역혈청제조소에서 제작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새롭게 유입된 질병에 대한 진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명명함에 있어 기존의 질병명에서 “호열자”, “疫” 등을 차용한 것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병에 대한 항혈청 예방접종과 더불어, 계사를 우사의 일부에 설치하던 관습을 버리고 별도의 계사를 짓는 작업이 시도되는 등 축산 환경과 위생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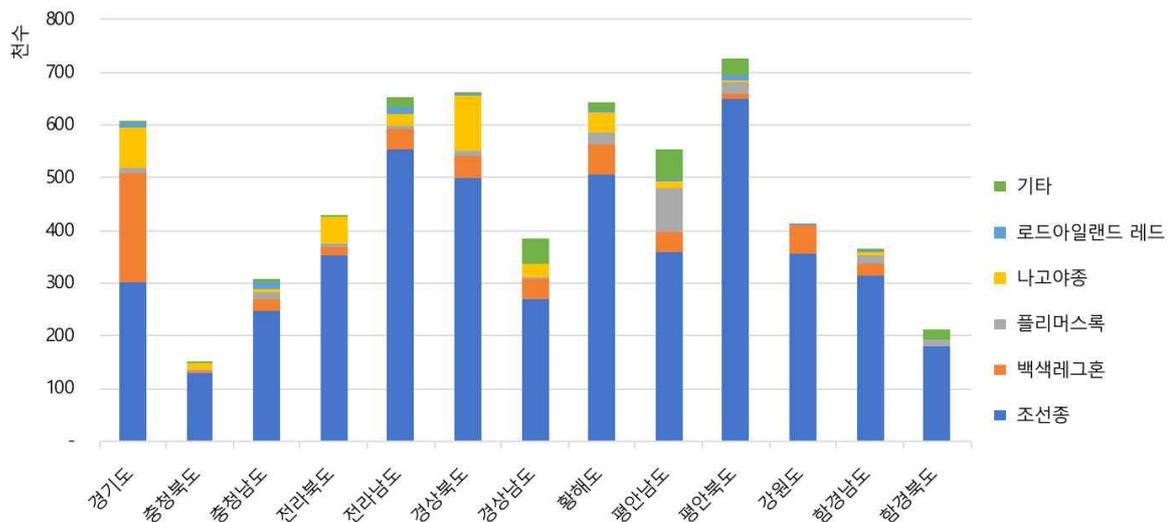


그림 119. 닭의 품종별 지역 분포(1925; 朝鮮總督府 官報 第4139號)

5. 결론

현대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 발생은 인간과 동물 집단의 밀도, 인간과 동물의 근접도, 축산물 소비의 변화, 도시화, 이동성의 증가, 질병 방역의 제도와 조직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World Bank 2010). 특히 축산에서 가축의 밀집도와 이동, 인간에 의한 토지 사용 양상의 변화는 질병의 양상을 변화시킨다. 일제 강점기 동안 주요 가축의 증가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대상은 증가했고, 국제 교역으로 인한 가축의 이동이 빈번해졌으며, 이전과는 다른

품종의 가축과 다른 양식의 사양 방식이 시도되었다. 또한 가축 질병 방역의 제도와 조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표 7. 일제 강점기 가축 질병의 지리적 분류

지리적 구분	국경형 질병			토착형 질병			유입형 질병	
	우역	구제역	우폐역	탄저	기종저	광견병	돈역	계역
주요 동물	소	소	소	소	소	개	돼지	닭
병원체	바이러스 (Rinderpest virus)	바이러스 (FMD virus)	세균 (Mycoplasma mycoides)	세균 (Bacillus anthrax)	세균 (Clostridium chauvoei)	바이러스 (Rabies virus)	돈콜레라/바이러스 (CSF virus) 돈단독/세균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돈역/세균 (Pasteurella multocida)	가금콜레라/세균 (Pasteurella multocida) 뉴캐슬/바이러스 (NC virus)
주요 분포	국경	국경	국경	산재	산재	산재	개량종 배포지	개량종 배포지
도별 분포	함경 평안 황해	강원 평안	평남	평안 황해 전남 경기	경기, 경상, 전라, 평안	경기 황해 평안	함경 평안 강원 (충청)	평남(평양) 함남
발생 양상	주기적	간헐적	최초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간헐적	최초
주요 발생 시기	1907-8 1920-22 1930-31	1915 1919 1933	1922(최초) 1923-24 1927	1907-1929	1909-1941	1911-1933 까지 증가	1922-31 1936-8	1926(최초) 1932-37
질병에 대한 익숙함	익숙	익숙	새로움	익숙	익숙	익숙	새로움	새로움
방역 방식	면역대	검역	살처분	예방접종	예방접종	야견박살 예방접종	축사 위생 항혈청	축사 위생 항혈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 가축의 분포와 가축 질병 발생의 분포를 연계하여 가축질병을 국경형 질병, 토착형 질병, 유입형 질병으로 구분하였다. 국경형 질병과 토착형 질병의 주요 관심 축종은 소로, 소는 재래종을 중심으로 사양 두수가 증가했다. 국경형 질병에 대한 방역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만주), 조선, 일본을 연계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그 빈도가 줄었다. 반면에 토착형 질병은 지속적인 예방접종으로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토착형 질병 중 개가 주요 매개 동물인 광견병의 경우 방역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데, 이는 개와 광견병이 타 질병들과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입형 질병은 그 발생 중심지가 개량종 배포지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돼지와 닭 축산에서 개량종(수입종)으로 재래종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질병으로 볼 수 있으며, 가축 사

양 수 증가에 따라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 가축 질병 발생의 지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편적이고 생물학적인 현대 방역 정책과 제도에 사회문화적 요소를 적용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면희, 1994, 한국 축산수의사연구, 향문사.
- 김도형, 2010,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 9(1), 35-54.
- 김영진·홍은미, 2006, “농무목축시험장 (農務牧畜試驗場 1884-1906) 의 기구변동과 운영,” 농업사연구 5(2), 71-85.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2005, 축산연구 사업보고서 -권업모범장 (1906-1915)(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事業報告書)
- 山脇圭吉, 2008, 수의과학국역총서 6. 일본 가축전염병 예방사 대정·소화 제1편(1912~193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山脇圭吉, 2008, 수의과학국역총서 7. 일본 가축전염병 예방사 대정·소화 제2-3편 (1912~193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山脇圭吉, 2008, 수의과학국역총서 5. 일본 가축전염병 예방사 명치편(1868~191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三浦洋子, 2008, “일제 강점기 조선 난곡기계농장의 대규모 농장제 유축전작 농업경영 실태,” 농업사연구 7(1), 153-176.
- 朝鮮總督府, 2008, 수의과학국역총서 1. 우역혈청제조소 연보 제 1~4차 (1913~1917). 제11차 연보 19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천명선·심유정, 2015, “근대 우역 개념 및 방역제도의 변화,” 농업사연구 14(1), 17-35.
- 천명선·이항, 2015, 조선시대 가축전염병 발생과 양상,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 山内一也, 2009, 史上最大の伝染病牛疫-根絶までの 4000 年, 岩波書店.
- 時重初雄, 1907, 韓國牛疫其他獸疫ニ關スル事項調査復命書. 農商務省農務局.
- 朝鮮畜産協會, 1927, 朝鮮畜産の概要.
- 朝鮮總督府 官報 第86號(1910.12.10)
- 朝鮮總督府 官報 第4139號(1926.10.7)
- 朝鮮總督府 農林局 畜産統計 (1943)
- 朝鮮總督府 農林局 家畜衛生統計(1935,1942)
- 韓國農會, 1944, 朝鮮農業發達史 發達篇.
- Bell, J.H., 2002, “Anthrax and the wool trad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5), 754-757.
- Ingold, T., 2005, “Epilogue: Towards a politics of dwelling,” *Conservation and Society* 3(2), 501-508.
- Jones, S.D., 2010, *Death in a small package: a short history of anthrax*. JHU Press.
- May, J.M., 1950, “Medical geography: its methods and objectives,” *Geographical Review* 40(1), 9-41.
- Mort, M., Convery, I., Baxter, J. and Bailey, C., 2005, “Psychosocial effects of the 2001 UK foot and mouth disease epidemic in a rural population: qualitative diary based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31, 1234-1239.
- Spinage, C. A., 2003, *Cattle plague: a histor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Wolch, J. and Emel, J., 1995, “Bringing the animals back,” *Environment and*

Planning D 13(6), 632-636.

Woods, A., 2007, "The farm as clinic: veterinary expertise and the transformation of dairy farming, 1930-1950,"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38(2), 462-487.

Woods, A., 2011, "A historical synopsis of farm animal disease and public policy in twentieth century Brita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66(1573), 1943-1954.

Yarwood, R., and Evans, N., 1999, "The changing geography of rare livestock breeds in Britain," *Geography: Journal of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84(1), 80-91.

도시, 자연, 환경

- 유럽 환경사의 도시환경사적 진화 -

박혜정(경기대학교 사학과)

1. 서론: 유럽 환경사의 주류 역사학계 진입

유럽 환경사 연구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위 1970년대의 '생태학 시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환경운동의 직접적인 산물이 환경사이다. 환경사 연구는 어떤 다른 역사학 분야보다도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론을 포괄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일찍부터 환경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독일에서조차 얼마 전까지도 주류 역사학의 영토 내에 안착하리라고 낙관하기 어려울 만큼 '변두리' 학문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래로 환경운동 세대가 아닌 차세대 연구자가 주도하기 시작한 독일의 환경사 연구는 주제와 방법론 면에서 분화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전통적으로 환경사 연구의 중요한 축이었던 숲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도, 도시나 문화와 같은 새로운 핵심어로 대변되는 새로운 주제들로 연구를 확대하여 수많은 전문연구와 연구논문집 출판의 성과를 낳았다.⁸⁴⁾ 이러한 학문적 성장이 환경사의 제도적 성장으로도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드디어 환경사는 주류 역사학 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사의 현저한 성장세는 유럽적 기준에서 볼 때 다소 늦은 1990년대 초에 환경사가 뚜렷이 독립된 학문 분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영국에서도 관찰된다. 영국에서는 환경사 주제로 생각될만한 주제들이 경관사(history of landscape)나 역사지리학에서 연구되어왔는데, 이 두 분야는 영국에서 매우 강한 전통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영국의 환경사는 양 분야와 많은 주제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의 환경사의 급속한 부상은 대학에서의 연구 지원을 도맡아온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소위 AHRC)가 2000년대 중반 이래로 전략적 차원에서 환경사를 집중 육성한 덕분이다. 영국 환경사학계에서는 기후 변화, 물, 에너지가 특별히 중요한 연구 주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특정 지역, 경관, 혹은 장소에 국한되기보다는 네트워크와 흐름에 주목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⁸⁵⁾

본고는 최근 유럽 환경사 연구의 분화적 성장 가운데 특별히 도시 환경사로 불리는 연구 분야의 성장에 주목하여, 그 부상 과정과 세부적 연구 주제 및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루첸(Paul J. Crutzen)의 '인류세(Anthropocene)' 테제가 얻은 커다란 반향이 증언하듯이 우리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 인간의 집단적 행위에 더욱 주목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환경사의 최근 부상은 인류세 시대 진입과 더불어 일어난 환경사의 자연적 진화에 가깝다. 인간의 집단적 행위자에 다름 아닌 도시가 주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한 확대 중이고 그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하느냐에 인류세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도시환경사라는 새로운 하위분야의 출현 경위와 더불어, 도시 환경사의 가장 오랜 핵

84) Nils Freytag, 2006, "Deutsche Umweltgeschichte - Umweltgeschichte in Deutschland. Erträge und Perspektiven," *Historische Zeitschrift* 283, pp. 383-384

85) Carry van Lieshout, 2016, "British Environmental History," *AREAS. Revista Internacional de Ciencias Sociales* 35, p.29.

심 주제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가장 첨단 주제라 할 만한 기후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2. 도시 환경사(Urban Umvironmental History)란 무엇인가

도시환경사는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먼저 부상했다. 도시환경사가 도시사와 환경사 연구의 주요 하위분야로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학문적 정치적 계기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도시환경사의 부상을 가져온 시원적 계기는 1970년대 이후 도시사적 맥락에서 시작된 도시의 기술적 사회기간시설 관련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도시환경사가 입지를 굳히게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타르(Joel Tarr)나 멜로시(Martin Melosi)와 같은 학자들이 시작한 도시의 수자원 및 하수처리 시스템, 쓰레기 집합과 처리에 관한 연구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같은 도시 시스템이 실행되어왔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립, 확대시켜주었다.⁸⁶⁾ 그 연장선에서 수행된 크로넨(William Cronon)의 시카고에 관한 유명한 장기 연구는 비로소 도시환경사의 태동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크로넨은 시카고의 형성과 성장이 미국 중서부가 목초지에서 경작지로 변화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함으로써, 도시와 배후지를 분리해서 이해하던 전통적인 인식을 넘어서 도시와 시골, 더 나아가서 자연을 기능적으로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인식체계를 낳았다.⁸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사는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학술회의에서의 논쟁과 이후 UN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동으로 고조되기 시작한 환경정치적 관심 속에 태동했다. 특히 환경, 기후 변화,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당시 학술회의에서 미국 환경사가들 사이에 도시의 환경사적 위치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1993년에 미국 환경사 연구의 선구자들 중 하나인 워스터(Donald Worster)의 소위 "농경-생태적(agro-ecological) 시각"에 대한 멜로시의 정면 반박과 여타 학자들의 동참으로 이어졌다. 문제가 된 워스터의 시각은 자연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세계"로 정의하고,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건축된 환경으로서의 도시를 환경사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그는 환경사 연구의 삼대 주제로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자연자원 개발과 같은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 자연에 관한 인간의 이해를 꼽았다. 이에 멜로시는 워스터가 인간이 만든 경작지는 환경사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도시 건설은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시 역시 자연에서 시작되었고 자연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왔으므로, 도시를 환경사의 핵심적 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⁸⁸⁾ 이 같은 멜로시의 주장은 타르를 비롯한 수많은 사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도시환경사가 환경사 내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도시환경사가 환경사 연구의 자연적인 팽창과 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격론을 거쳐 환경사의 하위분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데뷔하게 된 사정은 특히 북미 환경사가들이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설전을 벌여온 쟁점, 즉 환경사에서 인간과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요소에게 어

86) Joel Tarr, 1977, "Decisions on Wastewater Technology, 1800-1932," *Journal of the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Division* 103(1), pp. 47-61.

87) William Cronon, 1991, *Nature's Metropolis, Chicago and the Great West*, New York: W. W. Norton.

88) 워스터의 농경-생태적 시각이 제시된 논문은 Donald Worster, 1990, "Transformation of the Earth. Towards an Agro-Ecological Perspective i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6(4), pp. 1087-1106. 도시환경사의 탄생에 기폭제가 된 멜로시의 1993년 논문은 Martin V. Melosi, 1993, "The Place of the City in Environmental History," *Environmental History Review* 17, pp. 1-23.

편 위치 값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까다로운 질문과 직결되어있다. 북미 환경사의 발전은 인구 밀도가 낮고 야생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미국의 지리적 조건의 강한 영향 하에서 처음부터 자연의 독자적 동인(agency)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⁸⁹⁾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크로스비(Alfred W. Crosby)나 맥닐 부자(William H. McNeill & John R. McNeill)의 연구만 보더라도 자연은 인간사의 상수적 배경이 아니라 인류사의 행방을 좌우한 주체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크로스비는 “인간이란 카톨릭 신자, 자본가, 혹은 그 외의 존재이기 이전에 생물학적 단위이다”는 언명을 통해 인간을 사회적 행위자에 앞서 생물학적 행위자로 정의함으로써, 1970년대 초 ‘새로운’ 환경사의 장을 열었다.⁹⁰⁾ 아버지 맥닐은 크로스비의 환경 결정론적 서술을 회피하면서도 그의 인식을 더욱 심화시켜서, 전염병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서술했다.⁹¹⁾ 그에 반해 유럽의 환경사 연구에는 야생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뿐더러 생물중심적 시각의 전통도 빈약하다. 특히 독일 환경사 연구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라드카우(Joachim Radkau)의 『자연과 권력』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인간과 권력에 의해 매개된 자연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다.⁹²⁾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미국 환경사학계 내의 생물 중심주의적 전통의 우세가 자연과 환경 개념의 확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환경사는 그의 부상 경위와는 별도로, 북미와 유럽을 막론한 전 지구적인 도시화의 현실과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할 때 현주소보다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66억 가운데 절반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가파른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면적의 총합은 지구표면의 3%가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물자, 상품, 인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이 3%의 면적에 집중되어있다. 1900년대까지 전 세계에는 단 16개의 대도시가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있었던 것이 2000년에 들어오면 300개에 육박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19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천만을 넘는 초대형 도시(도쿄와 뉴욕)가 단 두 곳뿐이었지만, 2007년에는 그 수가 19곳으로 늘어났고 그 중 11개가 아시아에 소재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도시화는 환경사적으로 두 가지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삶의 패턴의 변화와 직결되어있는 도시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도시화는 독특한 즉 도시적 방식의 토지사용(land use)을 유발함과 아울러 인간과 물질의 끊임없는 흐름의 방향을 좌우한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 표면이 도시 경관으로 물리적으로 변형되면서 생긴 도시의 형태 및 도시의 지형적(to pographical), 물질적 구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도시의 독특한 토지피복(land cover)을 낳는다.⁹³⁾ 전자가 인간의 도시 활동과 직결된 대사과정이라면, 후자의 과정은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자연과 도시 간의 유동적인 경계에 착목하여 기존의 생물중심의 자연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물론, 양자의 과정

89) Carry van Lieshout, “British Environmental History,” p. 28.

90) Alfred W. Crosby, 1973, *The Columbian Exchange: Biological and Cultural Consequences of 1492*, London, p.XXV.

91) William H. McNeill, *Plagues and Peoples*, 허정 역, 1998,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아들 맥닐 역시 1980년대까지도 야생 자연과 서부를 중시하는 미국의 환경사 연구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John McNeill, 2003, “Observations on the Nature and Culture of Environmental History,” *History and Theory* 42, p. 11.

92) Joachim Radkau, *Nature und Macht*, 이영희 역, 2012, 『자연과 권력. 인간과 자연, 갈등과 개입 그리고 화해의 역사』, 사이언스북스. 그는 “자연 및 환경 보호의 동기가 권력의 메커니즘과 결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분석”하는 것을 주요 환경사 연구 아젠다로 밝혔다. 위의 책, p. 385.

93) G. Mills et al., 2010, “Climate Information for Improved Planning and Management of Mega Cities(Needs Perspective),”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1, pp. 228-229.

은 도시의 토지피복이 종종 특정한 토지사용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밀접히 상호 연루되어있다.

도시화에 대한 이러한 환경사적 이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도시환경사 연구야말로 인간과 자연 간의 변증법적 관계라는 환경사 연구의 대명제를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하위분야라 할 만하다. 타르는 일찍이 도시환경사 연구 주제를 크게 5개로 정리한 바 있는데, 도시 환경과 인간의 도시 활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영향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환경 문제의 완화 노력, 자연 환경이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탐구, 도시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배후지 간의 관계, 환경 문제에 관한 젠더, 계급, 인종의 역할이 그것이다.⁹⁴⁾ 그 중에서도 처음 두 개의 주제 영역은 ‘도시의 네트워크’이란 키워드로 집약될 수 있는 도시환경사 연구의 핵심 분야이다. 북미와 유럽을 막론하고 도시환경사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하에서는 이들 연구 경향과 성과를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네트워크는 단지 물적인 네트워크 뿐 아니라 사람, 에너지, 정보 네트워크까지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범주이지만, 도시환경사 연구를 태동시키고 도시 네트워크란 개념을 부상시킨 것은 산업혁명 이래 가속화된 도시화와 더불어 유럽과 미국에서 확충되기 시작한 사회기반 시설(infrastructure)의 네트워크였다.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고속도로, 상하수 처리장, 댐, 각종 발전소, 광산과 같은, 자원과 서비스의 공급과 처리를 위해 설계된 고도로 복합적인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는 도시사, 기술사, 환경사 연구관심의 새로운 대상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제2의 도시’ 혹은 ‘지하 도시(Undercity)’로 불리는 도시 내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가 어떤 도시적 기능을 갖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전해왔는가 각각 도시사 및 기술사학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면, 환경사학자들의 관심은 도시가 아니라 자연에 쏠려있었다. 즉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란 사람과 상품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데 용이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자원을 추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므로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이 환경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도시환경사라는 새로운 하위분야가 자리 잡으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달라지는데, 도시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를 도시와 자연환경 간의 순환관계를 규명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미 사회과학계에서는 하비(David Harvey)나 카스텔(Manuel Castells)과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이 주장한 유기체적 도시 이해도 이러한 관심의 혁신적 전환을 앞당겼다. 멜로시는 도시환경사의 태동을 가져온 1993년 논문에서 바로 이러한 도시에 대한 유기체적 이해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자연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그에 영향을 미침을 넘어서 자연을 변형시켜온 ‘열린 시스템’ 내지 ‘살아 숨 쉬는 사회적/공간적 시스템’으로서 도시를 이해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⁹⁵⁾

94) Joel Tarr, 2001, “Urban history and environment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complementary and overlapping fields,” Christoph Bernhardt, ed., *Environmental Problems in European Cities in the 19th and 20th Century/Umweltprobleme in europäischen Städten des 19. und 20. Jahrhunderts*. Cottbuser Studien zur Geschichte von Technik, Arbeit und Umwelt, Münster and New York: Waxmann, p. 38.

95) Melosi, “The Place,” pp. 6, 11.

멜로시가 제안한 열린 시스템으로서의 도시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후발 주자인 유럽 도시환경사학계에서 나왔다. 빈 대학의 피셔-코발스키(Marina Fischer-Kowalski) 연구팀은 ‘자연의 식민화’와 결합된 ‘사회적 신진대사(social metabolism)’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 이는 본래 사회생태학자인 피셔-코발스키가 인간 집단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가라는 문화인류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었다. 그는 인류가 구사해온 다양한 ‘식민화’ 전략이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조율되어왔음을 근거로 문화 자체를 재생산, 생산, 자원 간의 개별적인 특수한 균형으로 정의하였다.⁹⁶⁾

피셔-코발스키의 사회적 신진대사와 식민화 개념은 이후 도시환경사학자들의 적극적인 원용에 힘입어 도시가 자연에 대해 행사하는 모든 유의 환경적 개입을 다변적으로 설명하는 데 최적화된 방법론으로 거듭났다. 오스트리아 환경사학자 비니바르터(Verena Winiwarter)는 사회적 신진대사를 “생물권/지구권과 사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유입과 반출의 총합”으로, 자연에 대한 식민적 개입을 “자연을 보다 사회에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 시스템에 가하는 모든 의도적인 변화의 총합”으로서 한층 명확하게 정의했다.⁹⁷⁾ 사회적 신진대사라는 개념의 광범한 활용은 이제 관심의 초점을 상수도관, 가스관, 전기줄, 전화선, 공공운송로와 같은 네트워크의 도시적 기술적 기능의 측면으로부터 그것의 작동이 유발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뚜렷이 옮겨놓았다. 특히 이러한 환경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적한 도시환경사 연구들은 계속 확장되는 배후지로부터의 도시 신진대사를 위한 자원 공급, 도시 영역으로부터 심각한 물질들의 배제, 덜 위해하다고 여겨지는 매체로의 오염 이전, 덜 위해하게 만들기 위한 오염원의 희석, 잠재적 자원의 쓰레기로의 재정의와 같은 도시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가 매개한 사회적 신진대사의 패턴들을 밝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⁹⁸⁾

2000년대에 들어와 유럽의 도시환경사가들의 학제적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격년제 ‘환경사 좌담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비니바르터가 ‘독성-위생학’ 패러다임으로 규정된 유럽 도시환경사 연구의 인식틀의 극복이다.⁹⁹⁾ 2002년 좌담회의 조직위원이었던 독일의 도시환경사가 쇼트(Dieter Schott)는 연구의 초점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매체(물, 공기, 토양 등)의 오염과 이러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 규제, 갈등 해결의 범주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럽 도시환경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결과로 도시가 단순히 오염 발생, 자원 소비, 쓰레기 생산이 일어나는 장소적 혹은 부수적 계기로만 다루어질 뿐, 사회적 행위자이자 환경을 직접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⁰⁾

96) Marina Fischer-Kowalski and Helmut Haberl, 1997, “Stoffwechsel und Kolonialisierung,” Marina Fischer-Kowalski et al., eds., *Gesellschaftlicher Stoffwechsel und Kolonisierung von Natur. Ein Versuch in Sozialer Ökologie*, Amsterdam: G+B Verl. Fakultas, p. 25.

97) Verena Winiwarter, “Where did All the Waters Go? The Introduction of Sewage Systems in Urban Settlements,” Christoph Bernhardt, ed., *Environmental Problems*, pp. 105-119.

98) Dieter Schott, 2004, “Urban environmental history: what lessons are there to be learnt?,” *Boreal Environment Research* 9, p.521, 523.

99) Verena Winiwarter, 2000, “Umweltgeschichte der Stadt,” idem, *Lebensraum Wien. Machbarkeitsstudie für Zwei Bände Landschaft und ökologie und Umweltgeschichte des Wiener Raumes*, unpublished final report, Vienna, pp. 42-70. www.oeaw.ac.at/isr/wien_umwelt/public/texte/winiwarter2000html.

100) Dieter Schott, “Resources of the City: Towards a European Urban Environmental History,” idem, Bill Luckin, Genevieve Massard-Guilbaud, 2005, *Resources of the City: Contributions to an Environmental History of Modern Europe*, Aldershot: Ashgate, p.21.

자원 개발과 활용, 특정 자원의 공급을 조직해내는 기술의 형성을 결정하는 집단적 사회적 행위자로 도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환경사가 부상한 정치적 맥락, 즉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실천적 대의를 상기할 때 종국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청이다. 사회적 신진대사의 개념을 도시환경사 연구에 열심히 적용하더라도 거대하고 전체적인(holistic)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의 규명에만 매몰된다면 그 구조적 과정의 불가항력적인 성격만 강조하면서 환경오염이 도시 산업화의 불가피한 부작용이라는 인식을 재생산하는 데 그치게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진대사가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사결정과 합의를 통해 결정, 조율, 유지된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연구야말로 바로 가까운 미래의 친환경적 도시 개발과 계획에 직접적인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를 단순히 지리적 장소적 계기가 아니라 지형, 자연 자원, 사회경제적, 문화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동시 발생적 과정들 간의 변증법적 관계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환경사를 개척한 타르와 멜로시는 이러한 맥락에서도 유럽의 도시환경사가들에게 전조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와 기술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서 도시의 수자원 오염을 연구해온 타르는 일찍이 기술적 결정들이 기계적으로 불가피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했다. 수자원은 도시 신진대사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이다. 타르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정화시설을 통한 도시 상수원 보호나 하수 처리시설의 건립을 통한 보다 큰 자연 보호나를 놓고 도시 엔지니어와 의사와 보건 관료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논쟁을 연구함으로써, 기술적인 계산만큼이나 전문가들의 사회적 특혜와 권위 보장을 위한 경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규명해냈다. 그는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오염 대책의 방식을 한 장소 혹은 매체로부터 다른 곳이나 매체로 변위시키는, 곧 ‘최종 (ultimate sink)’ 찾기였다고 압축적으로 표현했다.¹⁰¹⁾ 그의 최종 테제는 도시의 네트워크와 그것이 도시적 대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이 입증한 동시에 오염 대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책 결정과정까지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쇼트가 주장한 유럽 도시환경사의 인식 전환을 위한 좋은 준거점을 제공했다.

도시환경사의 아버지 멜로시는 이러한 문제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경제학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경로 종속성(path dependency)’ 이론을 도시환경사 연구에 적극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¹⁰²⁾ 전력화 초기에 교류식이 아닌 직류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처럼, 특정 문제의 상황에서 도입된 특정의 핵심 기술과 시스템은 그것의 향후 발전과 운영의 선택폭을 크게 제한하여 해당 기술을 포기하거나(lock-in) 우월한 기술로 대체하기(lock-out) 어렵게 만든다. 특히 네트워크적 성격을 가진 복합적인 기술과 시스템의 경우, 경로 종속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한 번 선택된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특정 기술과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후대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로 종속적 발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처리 시스템이나 화장실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

101) Harold L. Platt, 1999, “The emergence of urban environmental history,” *Urban History* 26(1), pp. 90-91. 타르는 하수 처리뿐 아니라 비료용 재활용, 소각, 매립과 같은 고품물 쓰레기 처리에서도 오염원의 변위와 배제의 전략이 일반적이었음을 주장했다. Joel Tarr, 1996, *The Search for the Ultimate Sink. Urban Pollu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Ohio: University of Akron Press.

102) Martin Melosi, “Path Dependence and Urban History: Is a Marriage Possible?,” Dieter Schott et al., *Resources of the City*, pp. 203-210.

술 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진화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율, 문화적 인식체계, 일상적 실천과 같은 사회문화적 복합성 역시 기술적 유산 못지않게 강력한 관성의 힘을 발휘한다.¹⁰³⁾ 따라서 경로 종속성 이론의 적용은 역사적 유추를 통해서 현재의 기술적 선택의 장기적인 의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도시정책적 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신속한 해결책이 능사가 아니라 오늘날 내려진 특정한 결정들이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금전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치르고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사례는 차고 넘친다.

결국, 최종 흡입구 테제와 마찬가지로 경로 종속성과 같은 이론적 컨셉을 도시환경사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의 초점은 기술적 종속성이나 네트워크 자체가 아니라, 특정 기술 및 기술적 시스템의 발전과 영향력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다. 네트워크의 구축은 기술 진보를 향한 자연스런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 컨셉, 기술적 전문지식, 기술적 대안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재정적 제약조건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¹⁰⁴⁾ 도시사와 기술사로부터 분화, 발전함으로써 어떤 분야보다도 융합적인 혁신을 추구해온 도시환경사는 이제 일반 역사학적인 주제 및 방법론과의 다양한 융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환경사학계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연구는 사회불평등과 같은 일반 역사학적 주제를 도시환경사와 접목시키기 위한 새로운 확장으로 볼 수 있다.

4. 도시와 기후¹⁰⁵⁾

도시를 환경사적으로 중시하는 맥락에서 최근에 들어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장기적인 기후 변화를 도시와 연관시켜 연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증가와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의 모색이다. 도시환경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도시적 신진대사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온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대기 순환의 문제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기와 기후에 관한 관심의 중심에는 매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일찍이 1980년대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환경사학계 전반에서 기후사 혹은 ‘역사적 기후학(historical climatology)’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일어났는데,¹⁰⁶⁾ 스위스의 사학자 피스터(Christian Pfister)와 독일의 지리학자 글라저(Rüdiger Glaser)의 장기적인 기후사 연구는 유럽 기후사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이다.¹⁰⁷⁾

특히 피스터가 주도한 논문집이 학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참여 연구자들은 스위스의 자연재해 극복사를 통해 무엇이 스위스를 하나의 민족으로 이끌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독창적

103) Melosi, “Path Dependence,” pp. 2-3; Schott, “Resources of the City,” pp. 24-25.

104) Dieter Schott, “Urban environmental history,” p.521.

105) Climate과 Weather의 구분.

106) 이 과정에서 영미 학계에서는 자연재해(natural catastrophe)란 개념이 새삼 문제시되었는데, 자연계의 극단적 사건을 하나의 재해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권 연구자들은 hazard와 catastrophe를 구별하면서 후자를 hazard의 문화적 해석과 변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Freytag, “Deutsche Umweltgeschichte,” p.397 각주 33번.

107) Christian Pfister, 1984, *Klimageschichte der Schweiz, 1525-1860*. 2 Volumes, Bern and Stuttgart: Paul Haupt; 1999, *Wetternachhersage. 500 Jahre Klimavariationen und Naturkatastrophen (1496-1995)*, Bern/Stuttgart/Wien: Paul Haupt; Rüdiger Glaser, 2001, *Klimageschichte Mitteleuropas. 1000 Jahre Wetter, Klima, Katastrophen*, Darmstadt: Primus Verlag.

인 답변을 끌어냈다. 즉, 1868년 테신(Tessin)을 덮친 홍수와 같은 19세기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스위스에서 민족 개념이 본격 부상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도시 중심지에서 시작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 기부금 캠페인이나 19세기의 자연을 ‘내부의 적’으로 둔갑시킨 공론이 분석되었다.¹⁰⁸⁾ 피스터 논문집은 특별히 도시 지역을 통해 가장 또렷이 파악될 수 있는 기후적 재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와 기후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유의미한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도시와 기후를 연관 지어 연구할 수 있는 더욱 폭넓은 토대는 1990년대 초 이래로 환경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영국의 환경사학계에서 준비되었다. 기상학과 기후사에 관한 환경사적 관심은 영국에서 일찍부터 매우 각별했는데, 영국인들 특유의 날씨에 대한 집착과 기후 변화 연구의 국제적 증가세 모두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기후사 연구의 눈에 띄는 특징은 환경사적인 과학 연구에 기초한 과거 기후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문화적 접근과 접목시켜왔다는 것이다. 즉, 기후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지, 어떻게 기후 관련 사건들이 서사나 담론 속에 어떻게 등장하여 틀 지워지는지 혹은 기후 변화나 기상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기후 변화의 문화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탐색되었다.¹⁰⁹⁾

기후사 연구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은 과거 기후의 재구성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위기의식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후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결정주의적인 영향보다는 사회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왔는가의 문제가 기후사 연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적 기후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의 취약성과 탄력적인 회복력 모두를 균형적으로 부각시키는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우선, 기후 변화를 자연 현상이자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 설명하는 보다 복합적인 역사서술을 꼽을 수 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대응 양식과 수준에 따라서 역사상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에게 서로 다른 영향과 타격을 입혀왔다. 영국의 기후사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실천적, 생활양식적, 구조적 차원의 사회 변화의 증거들을 수집, 결합하여 인간의 사회적 적응 내지 대처전략의 패턴들을 정리하고 규명해냈다.¹¹⁰⁾ 더 나아가서, 영국의 최근 연구들은 기후 변화 및 극한 기후의 경험적 차원과 기후와 기상 패턴에 대한 이해와 지식체계의 진화론까지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학자들은 극한 기후가 물질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기록, 재현, 집단기억을 통해 얼마든지 문화적으로 주도되고 굴절될 수 있는 문화적인 구조물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¹¹¹⁾

108) Christian Pfister, ed., *Am Tag danach. Zur Bewältigung von naturkatastrophen in der Schweiz 1500-2000* (Bern/Stuttgart/Wien: Haupt Verlag, 2002).

109) Carry van Lieshout, “British Environmental History,” pp. 31-32. 영국 기후사 연구의 이러한 특징은 Hubert H. Lamb, 1972, *Climate: Present, Past and Future*, London: Methuen; 1977, *Climatic History and the Future*, London: Methuen; 1982, *Climate, History and the 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Jean M. Grove, 1988, *The Little Ice Age*, London: Routledge 같은 초창기 연구부터 Neil MacDonald et al., 2010, “Historical weather accounts from Wales: an assessment of their potential for reconstruction climate,” *Weather* 65; David Nash et al., 2015, “Seasonal rainfall variability in southeast Africa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reconstructed from documentary sources,” *Climatic Change* 134; George Adamson, 2015, “Private diaries as information sources in climate research,”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6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전했다.

110) Endfield 2008; Bankoff 2013; Adamson 2014

111) Geoghehan and Leyshon 2012; Hall 2014; Jones 2014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기후 연구가 사회, 경제, 문화적 동력이 집중되는 도시의 특별한 비중과 위치를 부각시켜놓았다면, 최근에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의식과 논의, 즉 도시 내 형성되는 대기 상황과 기후 자체, 소위 ‘도시 기후’에 대한 과학적 연구(urban climatology)를 도시 계획 및 정책과 광범위하게 접목시키기 위한 모색이 활발해졌다. 도시의 신진대사 연구의 의제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수렴되었던 것처럼 도시와 기후의 상관관계에 대한 환경사적 연구에서도 지속가능성은 최종 종착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새로운 전 지구적 차원의 위협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지구적 기후 격변 속에서 도시적 규모의 기후 관리가 갖는 잠재력이다. 그 결과, 기후학 연구 자체도 종래의 기후도(Klimaatlas)와 같은 종관적(synoptic) 기후학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왔던 도시 기후의 변칙적 전개와 상황에 보다 면밀히 주목하는 새로운 관측과 모델링 연구로 진화하고 있다.¹¹²⁾

영국은 도시사와 공중위생 연구가 강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어느 곳에서보다 도시 기후학 연구뿐 아니라 이를 도시 계획과 접목시키기 위한 탐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런던 대학의 도시사학자 헤버트(Michael Hebbert)에 따르자면, 도시기후학의 기원은 그것이 유아기 학문이라는 통념과 달리 도시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조사가 본격화된 19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날씨와 기상학에 대한 학문적, 공론적 관심을 주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最古)의 기상학회인 왕립기상학회(Royal Meteorological Society)의 전신으로서 브리튼기상학회가 출범한 것도 1850년이였다. 공기 오염과 환기 시설은 식수 공급, 배수, 하수처리만큼 빅토리아 시대의 개혁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다.¹¹³⁾

그러나 개인 굴뚝이나 화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수인성 위생 문제보다 훨씬 정확히 조사하고 연구하기 어려웠다. 도시와 같은 건축된 환경과 도시경계층(urban boundary layer) 간의 의미 있는 복합적인 관계는 크라처(Albert Kratzer)의 『도시기후(Stadtklima)』가 출판된 1937년에 가서야 제시될 수 있었다. 크라처는 당시 영국에서 공기 오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일반화되어있던 강수 분석을 통해서 879개의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를 조사하여, 도시가 분출하는 먼지, 가스 구름, 재의 양이 화산 폭발에 맞먹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크라처의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 있는 주장은 오히려 다른 데 있었다. 그렇다고 도시 기후를 고정된 사실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으며 도시기후는 자연이 아닌 인간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인공적 산물이기 때문에 공공 이익을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⁴⁾

이처럼 도시 기후 연구의 최종 목적이 도시 계획에 있다는 인식은 1930년대부터 뚜렷했지만, 헤버트는 도시기후학적 연구 성과를 도시 디자인과 도시 환경계획에 적용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한다. 도시기후학적 지식의 정책적 전환 가능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지식의 효력에 대한 검증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⁵⁾ 사실상 정책적 전환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112) Michael Hebbert, 2014, “Climatology for city plann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Urban Climate* 10, p.213.

113) Ibid., p. 205. 최초로 도시 기후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한 연구로는 Luke Howard, 1833, *The Climate of London: Deduced from Meteorological Observations Made on the Metropolis and at Various Places Around It*, London: Harvey and Darton이 손꼽힌다.

114) Albert Kratzer, *Das Stadtklima* (Braunschweig: Vieweg, 1937). 1937년도 판본은 이후 1956년에 수정, 확대되어 재출간되었다. 1956년도 판본은 미국기상학회에 의해 번역되었다. http://urban-climate.org/documents/AlbertKratzer_TheClimateOfCities.pdf (2018년 10월 23일자 확인), pp. 28, 169-170을 참고할 것.

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도시기후학 연구의 난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도시 계획과 디자인에 관계되는 도시 기후의 과학적 이해의 기본 틀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도시경계층(이하 UBL로 약칭)과 도시천개층(urban canopy layer: 이하에서는 UCL로 약칭)의 개념을 주축으로 한다. 도시경계층은 지붕 높이 이상의 국지적 혹은 중간 규모의 대기현상으로서, 도시 쪽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대로 새로운 촌락경계층(rural boundary layer)이 UBL 아래쪽에 형성될 때, UBL이 고립되는데, 이를 도시 공기기둥(urban plume)이라 한다. UBL의 성격은 그 아래에서 형성되는 UCL과의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다. UCL은 도시경계층의 하단, 즉 지표면과 건물 지붕과 나무 높이 사이의 대략적인 범위의 대기층을 의미하고 도시 관리 가능한 실내와 관리에 취약한 실외 공간으로 나뉜다. 이들 실내외 공간은 건물 외피(building envelope)를 거쳐서 상호교환적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에너지, 물질, 모멘텀의 상호교환을 통해서 지붕 높이의 접점에서 하위 도시경계층과 연결된다. 따라서 도시천개층의 동네 단위의 성격(거리 배열, 건물 형태, 활동 패턴, 그린 존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기후 중심의 도시 계획과 디자인의 핵심에 해당되고 또한 도시경계층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도시천개층의 영향을 조절하게 된다.¹¹⁶⁾

더블린 대학의 도시사학자 밀스(Gerald Mills)의 평가에 의하면, 도시기후학은 겨우 오늘날에 와서야 도시에 유의미한 지역적 기후 변화를 예상하고 기후 변화가 어떻게 도시와 그 기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지만, 아직 도시 기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례로 도시 기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인 대기 중의 탄소 배출량의 측정은 최근까지도 대충 공간을 분할한 권역별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공간 해상도에 바탕한 배출물 목록은 이미 세계 전역의 인위적 배출에 있어서 도시가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보여주고 50년 후에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치에 가까운 탄소 함량의 도시 대기 데이터들도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목록을 통한 접근을 보다 정확한 관찰을 통해 입증하려는 연구가 겨우 최근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고 여전히 다양한 성격의 도시 내 탄소 배출원과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역적 내지 지역적 기후 변화가 도시에 미친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도시 차원의 대책 혹은 관리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해줄 수 있지만, 이러한 기후 변화가 도시에 미칠 독특하고 특별한 영향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¹¹⁷⁾ 결국 도시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물질, 모멘텀의 상호교환과 도시가 위치한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도시 기후적 역학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서 도시 기후가 거꾸로 지역 기후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다면 지역 기후 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 연구의 효용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5) Michael Hebbert, "Climatology for city planning," p. 213.

116) A. John Arnfield, 2003, "Two Decades of Urban Climate Research: A Review of Turbulence, Exchanges of Energy and Water, and the Urban Heat Is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23), 3-4; G. Mills, 1997, "An Urban Canopy-Layer Climate Model," *Theoretical and Applied Climatology* 57, 229-230.

117) G. Mills *et al.*, "Climate Information," p.231.

종합토론

좌장 이정만(고문, 서울대학교)

- 유학의 자연미와 조선 서원의 전망 경관
- 조선 사대부 원림 미학 - 땅 읽기 相地를 중심으로 -
송원섭(제주학연구센터)
- 선불교와 산수, 그리고 풍수 - 마음과 자연의 만남의 미학 -
- 1970년대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오름미학의 형성 -
심승희(청주교육대학교)
- 인류가 만드는 인류세(The man-made Anthropocene)
박수진(서울대학교)
- 소나무를 보는 지리적인 눈
박정재(서울대학교)
- 일제강점기 가축 질병의 분포와 확산
황진태(서울대학교)
- 도시, 자연, 환경 - 유럽 환경사의 도시환경사적 진화 -
정현주(서울대학교)

